

大朝鮮人日本留學生 《親睦會會報》에 관한 研究(續)

— 創刊後 終刊號까지의 發刊實態와 주요 內容

차 배 근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1. 序 言

1896년 2월 15일 일본 동경(東京)에서 우리 나라 일본유학생들의 최초의 단체였던 대조선인일본유학생친목회(大朝鮮人日本留學生親睦會)에서 창간한 《친목회회보》(親睦會會報, 이하 《회보》로 약칭)는 우리 나라 잡지역사상(雜誌歷史上) 우리 손으로 처음 만들어진 국문잡지였다.

본래 이 잡지는 3개월마다 한 번씩 발행하기로 했으나 제2호는 4개월 만인 1896년 6월 16일 발행했으며, 제3호 역시 4개월 만인 10월 23일 나왔고, 제4호부터는 발간비의 부족으로 6개월마다 발행하기로 결정했으나 제3호 발행 5개월 뒤인 1897년 3월 24일 발행했다. 그리고 제5호는 제4호의 발행 후 6개월 만인 9월 26일 정상적으로 발행했으나 제6호는 약 7개월 만인 1898년 4월 9일에야 나왔다.¹⁾ 그러나

1) 제 날짜에 정기적으로 발행하지 못함으로써 그 내용의 時宜性도 뒤지게 되었는데, 제1호는 1896년 2월 15일 발행했으나 그에 실려 있는 기사들을 보면 1895년 5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7개월간의 사건들과 친목회 소식(일기 포함) 등을 다루고 있으며, 제2호는 1896년 6월 16일 발행했으나 그 내용은 1895년 12월 1일부터 1896년 3월 말까지 4개월간의 사건과 소식들을, 제3호는 1896년 10월 23일 발행했으나 동년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의, 제4호는 1897년 3월 24일 발행했으나 그 전해인 1896년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의, 제5호는 1897년 9월 26일 발행이나 동년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의, 제6호는 1898년 4월 9일 발행이나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의 사건과 소식들을 다루고 있다.

<표 1>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각 호의 발간상황

호 수	발행 날짜	인쇄 날짜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	본문 쪽수
제1호	1896년 2월 15일	1895년 11월 30일	崔相敦	金鎔濟	山本鑓次郎	110쪽
제2호	1896년 6월 16일	1896년 3월 29일	崔相敦	金鎔濟	山本鑓次郎	270쪽
제3호	1896년 10월 23일	1896년 6월 30일	金鎔濟	金鎔濟	山本鑓次郎	135쪽
제4호	1897년 3월 24일	1896년 12월 31일	金鎔濟	金鎔濟	山本鑓次郎	100쪽
제5호	1897년 9월 26일	1897년 6월 30일	元應常	金鎔濟	山本鑓次郎	183쪽
제6호	1898년 4월 9일	1897년 12월 30일	元應常	金鎔濟	山本鑓次郎	175쪽

이를 끝으로 《회보》는 중단되고 말았는데 그 이유는 회원들 사이의 불화로 인해 제6호의 발행 이후 곧 친목회가 해체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보》는 창간 이후 2년 2개월 동안 모두 6호를 발간하면서 우리 나라 일본유학생들 간의 친목과 지식교환 등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모국에 개화사상(開化思想)과 새로운 언론문물(言論文物)을 전파하는 데도 큰 몫을 했으며, 특히 모국에서도 잡지가 나오도록 만드는 데 하나의 중요한 자극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회보》에 관한 연구는 우리 나라에서 '잡지'라는 서양 언론문물의 수용과 생성·발전 과정을 규명하는 데도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회보》에 관한 연구가 아직까지 우리 나라 언론사학계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흔한 영인본(影印本)조차도 나와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회보》에 관하여 고찰해 보기로 하되, 그 창간 배경과 경위·목적·성격과 제1호의 내용과 편집·조판 체재 등에 관해서는 앞서의 줄고(拙稿)²⁾에서 소개했으므로, 여기서는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발간실태와 내용 등을 간단히 소개한 뒤 이들 《회보》가 당시 우리 나라 일본유학생들과 나아가서는 모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모국에서 잡지의 생성·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관하여 논의해 보기로 하겠다.

2) 拙稿, <大朝鮮人日本留學生 親睦會會報에 관한 研究: 그 創刊趣旨·經緯·內容을 중심으로>, <言論情報研究>(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발행), 제35집(1998. 12), pp. 1 - 55.

II. 第2號의 發刊과 그 編輯·組版 體裁 및 주요 內容

우선 《회보》 제2호의 발행날짜부터 살펴보면, 표지의 제호(題號) 오른쪽에는 “건양 원년 3월 발행”(建陽元年三月發行), 즉 1896년 3월 발행으로 표시되어 있다.³⁾ 그러나 맨 뒤쪽에 실려 있는 판권장의 간기(刊記)를 보면, “건양 원년 6월 16일, 명치(明治) 29년 6월 16일 발행”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표지와 판권장에 기재되어 있는 발행날짜가 서로 다르며, 도대체 정확한 발행날짜는 언제인가?

1. 第2號의 發行날짜와 그 發行의 遲延理由

비록 표지에는 “건양 원년 3월 발행”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 발행날짜는 판권장에 명기되어 있는 대로 6월 16일이었음이 확실한데, 《회보》 제3호 말미에 실려 있는 6월 14일자 친목회일기를 보면 “본회 잡지의 출판이 완성되어 제학원(諸學員) 및 찬성원들의 각처에 진정(進呈)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親睦會會報》 제3호, p. 134).

그러면 왜 표지에는 1896년 3월 발행이라고 인쇄해 놓았을까? 그 이유는 실제 발행날짜와는 관계없이, 창간호(제1호)의 본래 발행 예정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표시했기 때문이다. 즉, 창간호의 발행 예정날짜가 본래는 1895년 음력 10월(양력으로는 11월 16일~12월 15일 사이)이었기 때문에 창간호 표지에는 “개국 504년 10월 발행”(開國五百四年十月發行)으로 표시했으며, 《회보》는 3개월마다 발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2호 표지에 “건양 원년 3월 발행”이라고 인쇄했던 것이다.⁴⁾

3) 우리 나라에서는 1895년 12월 30일 이전에는 年度를 “開國〇〇〇年”이라고 표시했으나 1895년 12월 30일 우리 나라도 중국이나 일본처럼 “光緒”나 “明治”니 하는 식으로 “建陽”이라는 年號를 제정, 1896년 1월 1일부터 사용했다. 이에 앞서 1895년 10월 26일에는 1896년 1월 1일부터 陰曆 대신 陽曆을 채용하기로 결정, 음력으로 開國 504년 11월 17일을 建陽元年 1월 1일로 하여 이때부터 양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親睦會會報》도 양력을 사용, 연월일을 양력으로 “建陽〇年〇月〇日”식으로 표기하기 시작했다. 본고에서도 모든 날짜는 양력이다.

4) 때문에 그뒤 제3호도 실제 발행날짜는 1896년 10월 23일이었으나 표지에는 “建陽元年六月發行”으로 표시했으며, 제4호부터는 6개월마다 발행하기로 결정, 1897년 3월 24일 발행했으나, 제4호 표지에는 “建陽元年十二月發行”으로, 제5호는 1897년 9월 26일 발행이나 표지에는 “建陽二年六月發行”로, 제6호는 1898년 4월 9일 발행이나 표지에는 “光武元年十二月發行”으로 되어 있다. 한편 제2호 표지에 “建陽元年三月發行”으로 된 것은 1896년 1월 1일부터 우리 나라에서도 年號와 양력을 사용했기

하지만 제2호의 실제 발행날짜는 위에서 말했듯이 6월 16일이었는데, 《회보》의 창간 당시는 3개월마다 한 번씩 발간하기로 했으며, 창간호가 1896년 2월 15일 발행되었으므로, 제2호는 5월 15일에 발행했어야 정상이었다.

그러나 6월 16일에야 발행했으므로 1개월이나 늦게 나온 셈인데, 그 이유에 관한 기록을 찾지 못하여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창간호가 본래 예정보다 뒤늦게 1896년 2월 15일에야 발행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2호의 발행도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그리하여 제2호는 3월 중순부터 그 발간에 착수했던 것 같은데, 제2호 말미에 실려 있는 3월 13일자 친목회일기를 보면, 이날 “편찬원과 사무원의 보궐(補闕)을 위하여 위원회를 열고, 편찬원을 보선(補選)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3월 15일자 일기에는 “회보 제2호 발간의 일에 관한 서류를 각처(各處)에 보내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제2호에 실려 있는 친목회일기를 보면, 1895년 음력 10월 16일(양력 12월 1일)부터 1896년 양력 3월 30일까지의 일기만 기록되어 있으며, 제2호 인쇄날짜가 판권장에 3월 29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제2호의 편찬원들을 3월 13일에 보선하여, 3월 15일부터 제2호의 편찬 준비에 착수, 3월 29일 그 원고와 편집을 마감하고 인쇄에 부쳤으므로⁵⁾ 결과적으로 6월 16일에야 제2호를 발행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인쇄에 두 달 반이나 걸렸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혹시 제2호도 창간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본 내무성의 발행허가가 늦게 나와서 그 발행이 지연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확실히는 알 수 없다.

때문이며, 제1호와 제2호의 발행 간격이 마치 4개월처럼 보이는 것은 창간호 표지의 “開國五百四年十月發行”은 음력이기 때문인데, 이를 양력으로 환산하면 1895년 11월 16일~12월 15일 사이가 되므로 제1호와 제2호의 발행간격은 실제로는 3개월이다.

- 5) 제2호의 인쇄날짜는 판권장에 1896년 3월 29일로 되어 있으나 이것도 실제 인쇄날짜와는 관계 없이 제1호의 인쇄날짜인 1895년 11월을 기준으로 3개월(제4호부터는 6개월) 간격으로 기재해 놓은 것 같은데, 《회보》 각 호의 판권장에 기재되어 있는 인쇄날짜들을 보면 제1호는 1895년 11월 30일, 제2호는 1896년 3월 29일, 제3호는 1896년 6월 30일로서 3개월 간격으로 되어 있으며, 제4호부터는 6개월마다 발행하기로 결정했으므로 제4호 인쇄날짜는 1896년 12월 31일로, 제5호는 1897년 6월 30일로, 제6호는 1897년 12월 30일로 되어 있음을 볼 때 판권장의 인쇄날짜도 제1호의 1895년 11월을 기준으로 하여 제2호의 인쇄날짜를 1896년 3월 29일로 기재해 놓은 것 같기 때문이다.

2. 第2號의 發行人 · 編輯人 · 編纂員

다음으로 제2호의 발행인·편집인·인쇄인을 보면, 창간호와 마찬가지로 판권장에 발행인은 최상돈(崔相敦), 편집인은 김용제(金鎔濟), 인쇄인은 야마모토 에이지로(山本鑓次郎)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제2호도 역시 최상돈의 이름으로 발행하고 편집은 김용제가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명목상의 발행인과 편집인에 지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제2호 뒷붙이에 실려 있는 “친목회회규세칙”(親睦會會規細則) 중 1896년 2월 5일자 “위원회결의 제1호”의 맨 끝항(項)을 보면 “본회 회보의 발간시에 발행인과 편집인의 이름을 기재하되, 이들은 간사와 편찬원들 중에서 서로 논의하여 결정한다”고 밝혀놓고 있다. 따라서 이처럼 《회보》의 발간 때마다 간사와 편찬원들이 서로 논의, 발행인과 편집인을 결정, 그 이름을 판권장에 기재했다면 이들은 《회보》의 발행이나 편집을 책임지는 고정된 직책이 아니라, 판권장에 기재하기 위한 명목상의 발행인이나 편집인에 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위의 “친목회회규세칙”에서 보듯이 발행인과 편집인은 간사와 편찬원들 중에서 뽑았는데, 당시 최상돈은 간사였고, 김용제는 편찬원 중의 한 사람이었다.

편찬원들은 창간호 발행 뒤 약간의 변화가 있었는데, 3월 13일자 친목회일기를 보면 “편찬원과 사무원의 보궐(補闕)을 위하여 위원회를 열고, 편찬원 및 사무원을 보선(補選)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편찬원으로 누구를 보선했는지는 밝혀놓고 있지 않다. 하지만 제2호 뒷붙이에 실려 있는 ‘임원보선자’(任員補選者) 명단을 보면, 전임(前任) 편찬원들 중 신해영(申海永)과 김용제가 유임되고, 새 편찬원으로 안형중(安衡中), 정재순(鄭在淳), 조제환(趙齊桓), 박정수(朴正秀)를 선출했다고 적혀 있다. 따라서 이들 6명의 편찬원들이 3월 13일부터 제2호의 편찬을 맡았다.

3. 第2號의 編輯 · 組版 體裁와 주요 內容

제2호의 편집과 조판 체재도 창간호와 마찬가지로, 구성체재도 창간호와 같이 크게 세 가지 부분, 즉 앞붙이, 본문기사들, 뒷붙이로 나누어져 있는데, 앞붙이는 4쪽으로 창간호보다 4쪽이 적으나, 본문기사들은 모두 270쪽으로서 창간호보다 160쪽이나 많으며, 뒷붙이도 창간호보다 2쪽이 많은 6쪽이다.

따라서 제2호는 창간호보다 무려 158쪽이나 증가되어, 전체 분량이 모두 280쪽

(앞표지와 뒤표지 제외)에 달했는데, 이는 제1호부터 제6호(중간호)까지를 통틀어 가장 많은 분량이다.

1) 表紙의 形態와 앞붙이들의 內容

우선 앞표지부터 살펴보면, 다른 것은 창간호와 똑같으나 다만 발행날짜와 호수(號數)의 표기만 다를 뿐인데, 제호(題號)의 오른쪽에 “건양 원년 3월 발행”이라고 세로로 인쇄해 놓았고, 제호 바로 밑에 “제2호”(第貳號)라고 호수를 가로로 명기해 놓았으며, 제호 왼쪽에는 조금 내려 “대조선인일본유학생친목회편찬”이라고 편찬기관을 밝혀놓고 있다. 한편 표지 안쪽면에는 제2호의 목차를 2단으로 나누어 실어놓았는데, 창간호에서는 목차를 권말의 판권장 바로 위에 넣었으나, 제2호부터는 표지 안쪽면에 넣었다.

목차의 오른쪽 첫째 쪽에는 창간호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조선인일본유학생친목회지”(會旨)가 게재되어 있다. 그리고 둘째 쪽에는 《회보》의 발간목적·발행횟수·투고요령·구독요령 등 모두 7개 항목으로 된 《회보》의 안내들이 실려 있는데, 그 내용들은 창간호의 것들과 마찬가지로이다. 그 다음 쪽에는 한 장의 인물사진(上半身寫眞)이 실려 있는데, 그 아래 “회장 어윤적 씨”(會長 魚允迪)라고 사진설명을 달아놓았다.

2) 本文記事들의 編輯體裁와 각 欄別 주요 內容

위와 같은 앞붙이들에 이어 1쪽부터 270쪽까지 본문기사가들이 게재되어 있는데, 이들 본문기사의 편집체제나 조판체제도 창간호와 거의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나 제2호에서는 잡보·연설·회사기(會事記)의 3개 난(欄)이 없어지고, 그 대신 만국사보(萬國事報)라는 표제의 세계 각국 소식란이 새로 추가되었다. 그리하여 제2호는 모두 7개란, 즉 사설(社說)·논설(論說)·문원(文苑)·내보(內報)·외보(外報)·만국사보(萬國事報)·친목회일기(親睦會日記)로 나누어 그에 해당하는 기사들을 차례로 게재하였다.

(1) 本文記事들의 編輯體裁와 각 欄別 構成比

제2호 본문기사들의 총 건수(件數)는 무려 250건에 달하는데, 우선 이들을 각 난별(7개 난)로 나누어 그 건수와 쪽수를 비교해 보면, <표 2>에서 보듯이 외보가 건수로는 전체의 74.4%, 쪽수로는 63.0%를 점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 제2호 본문기사들의 유형별 구성비(장간호 대비)

구 분	기사 건수(記事件數)				지면량(紙面量: 쪽수)			
	제 2 호		창 간 호		제 2 호		창 간 호	
	건수	백분율(%)	건수	백분율(%)	쪽수	백분율(%)	쪽수	백분율(%)
사설(社說)	2	0.8	2	1.7%	9.3	3.4	4.0	3.6
논설(論說)	7	2.8	9	7.8	20.7	7.7	10.0	9.1
문원(文苑)	5	2.0	12	10.4	3.0	1.1	5.0	4.5
내보(內報)	26	10.4	12	10.4	28.8	10.7	15.0	13.6
외보(外報)	186	74.4	73	63.6	170.2	63.0	46.0	41.8
만국사보	23	9.2	—	—	23.0	8.5	—	—
친목회일기	1	0.4	1	0.9	15.0	5.6	15.0	13.6
잡보(雜報)	—	—	3	2.6	—	—	5.0	4.6
연설(演說)	—	—	2	1.7	—	—	9.0	8.1
회사기(會事記)	—	—	1	0.9	—	—	1.0	0.9
합 계(合計)	250	100.0	115	100.0	270.0	100.0	10.01	100.0

게다가 외보와 성격이 비슷한 만국사보를 더하면 외국관계 기사들이 모두 209건으로 전체의 83.6%를 차지하며, 쪽수는 모두 193쪽으로서 전체 지면의 71.5%를 점하고 있다. 이를 창간호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건수로는 186.3%, 쪽수로는 320%나 증가했는데 이처럼 제2호에서 외국관계 소식을 많이 다루게 된 것은 김용제(金鎔濟)가 “본회취지”(本會趣旨)라는 사설에서 밝혔듯이, 우리 나라도 문명개화를 위해서는 우선 선진외국의 소식과 정세부터 알아야 된다는 편집의도 때문이었던 것 같다.

위와 같은 외국관계 기사들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내보(內報), 즉 모국의 소식이었는데 이는 유학생들이 모국 소식에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외국관계 기사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 외보와 만국사보의 건수가 모두 209건인데 비하여 내보는 26건(본문기사 전체 건수의 10.4%)에 불과하며, 쪽수도 외보와 만국사보는 모두 193쪽이나 내보는 29쪽(본문 전체 쪽수 중 10.7%)에 지나지 않고 있다.

세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논설로서, 모두 7건(전체 건수의 2.8%)에 약 21쪽(전체 쪽수의 7.7%)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쪽수는 창간호보다 거의 배(倍)

나 늘어났는데, 창간호의 논설 건수는 9건이었으나 쪽수는 10쪽이었다.

그 다음 네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사설로서, 비록 건수는 2건이나 쪽수는 9쪽이다. 이는 창간호보다 4쪽이나 증가한 것인데, 이처럼 제2호에서 사설과 논설들의 길이가 창간호에 비하여 길어진 이유의 하나는 창간호에서는 사설 중 1편과 논설 중 4편이 한문으로 쓰여졌었으나, 제2호에서는 모든 사설과 논설들이 국한문혼용체로 쓰여졌기 때문이다. 이는 혹시 필자들에게는 국한문혼용체를 사용하도록 권장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제2호 첫머리에 실려 있는 신해영(申海永)의 “한문자(漢文字)와 국문자(國文字)의 손익여하(損益如何)”라는 제목의 사설을 보면 국문의 사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는 문원란에 실려 있는 5수(首)의 한시(漢詩)들과 친목회일기를 제외한 그밖의 모든 기사들도 국한문혼용체로 쓰여 있기 때문이다.

다섯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건수로는 문원란이나 쪽수로는 친목회일기인데, 창간호의 문원란에는 1편의 산문(散文)과 11수(首)의 한시(漢詩)들이 5쪽에 걸쳐 실려 있었으나, 제2호에서는 5수의 한시들이 3쪽에 걸쳐 실려 있어, 작품 수와 쪽수가 크게 감소되었다. 그러나 친목회일기는 그 쪽수가 창간호와 마찬가지로이다.

(2) 社說·論說·文苑·內報欄 記事들의 주요 內容

제2호 본문기사들의 내용을 각 난별로 간단히 소개해 보면, 첫째로 사설란에는 2편의 사설이 실려 있는데, 방금 위에서 언급한 신해영의 “한문자와 국문자의 손익여하”라는 사설에서는 한문과 국문의 장단점을 비교한 뒤 한문보다는 국문을 사용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 그리고 김용제의 “본회취지”(本會趣旨)라는 사설에서는 당시 선진외국과 우리 나라의 형세를 간단히 설명한 다음, 외국 형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신문이나 잡지들을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회보》 제2호에서도 외보(外報)를 많이 다루었으니 이를 통하여 외국의 사정을 알고, 우리 나라의 문명개화를 진작시켜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둘째로 논설란에는 모두 7건(전체 건수의 2.8%)의 논설들이 실려 있는데, 홍석현(洪奭鉉)의 “조선론”(朝鮮論)에서는 우리 정부와 국민들도 각성, 하루속히 개화된 나라를 이룩하자고 역설하고 있다. 그 다음 어용선(魚瑢善)의 “일가일국(一家一國)에 일인(一人)의 관중(關重)”이라는 논설에서는 국민 각자가 국가보위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신해영의 “국민의 희노(喜怒哀)”라는 논설에서는 우리 나라의 여러 가지 잘못된 현실들을 열거한 뒤 그에 대하여 국민들은 노(怒)할 줄 알아야 한다고 끝을 맺고 있다. 한편 장태환(張台煥)의 “지학론”(志學論)에서는 “문명지학

(文明之學)을 수(修)훈 후에 국가를 도보(圖報)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으며, 고희준(高義駿)의 “사물변천(事物變遷)의 연구에 대한 인류학적 방법(人類學的方法)”에서는 인류학적 방법론에 관하여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그 다음 전태흥(全泰興)의 “금일대세설”(今日大勢說)에서는 ‘대세’란 무엇이나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끝으로 농구자(弄球子)라는 필명의 “견문(見聞)과 백문(百聞)의 우열(優劣)”이라는 논설에서는 “백문(百聞)이 불여일견(不如一見)”이라는 말이 있으나, 모든 사물을 실제로 경험할 수는 없으므로, 백문도 역시 중요하다면서 학문을 하려는 자(者)들은 우선 백문천문만문(百聞千聞萬聞)에 힘써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로 문원란에는 모두 5편의 한시(漢詩)들이 실려 있는데, 이유철(李儒哲)의 “등고구”(登高邱), 변하진(卞河璣)의 “춘일술회”(春日述懷), 정인소(鄭寅昭)의 “망강남”(望江南)은 모두 서정시(敍情詩)들이다. 그러나 박정수(朴廷秀)의 “아가장단지대심정”(我歌長短志大心精)은 나라를 걱정하며 학문을 열심히 해서 보국(報國)하고자 하나 학문을 이루기 어렵다고 술회한 것이며, 나호(羅鎬)의 “약설우회”(畧設愚懷)라는 사언시(四言詩)는 세계정세를 설명하면서 나라를 걱정한 애국시이다.

넷째로 내보란에는 모국에 관한 모두 26건(본문기사 전체 건수의 10.4%)의 소식과 각종 자료들이 실려 있는데, 머릿기사로는 노국(露國)과 통상무역(通商貿易)의 약정(約定)에 관하여 청국공사 원세계(袁世凱)가 우리 나라 고종(高宗)에게 항의한 내용을 실어놓고 있다. 다음으로는 일본공사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가 고종을 알현할 때 올린 국정개혁안(國政改革案)을 소개하고 있다. 다음에는 1894년부터 1895년간의 중대 사건들과, 김굉집(金宏集·金弘集) 내각의 신정개혁안 및 그밖에 우리 정부에서 발표했던 조칙과 칙령 또는 정부관계 기사들을 실어놓았다. 다음으로는 당시 우리 나라에서 개화를 위해 신설했던 은행·철도회사·기선회사(汽船會社)·광산회사(礦山會社) 등과 함께 우송회사(郵送會社)·전신회사(電信會社)에 관하여 소개하고 있다.

한편 “낙동강에 선박과세(船舶課稅)를 정함”, “경상도의 수해지(水害地)”, “개성학교(開成學校)에 개교” 등의 소식도 실고 있다. 그런가 하면 “청년지사(靑年志士)에 망(望)”, “논관혼(論冠婚)”, “도성론(都城論)”, “농업의 권려론(勸勵論)”, “동양의 교론(東洋外交論) 등의 짙막한 논설기사들도 실어놓았다. 그런데 이러한 내보기사들의 출처를 보면 모두 29건 중 21건이, 당시 서울에서 일본인(日本人) 아다치 겐조(安達謙藏)가 발행하던 《한성신보》(漢城新報)에서 전재(轉載) 또는 발췌한 것으

로 되어 있다.⁶⁾

(3) 外報欄에 게재된 각 國別 주요 記事들의 內容

다섯째로 외보란에는 세계 각국의 소식들과 정세 등을 일본·청국·영국·프랑스·독일·터키(土耳其)·러시아·미주(亞米利加)·멕시코(墨西哥)·대양주(大洋洲) 순으로 소개해 놓았다. 이들 외보기사들을 국가별로 나누어 보면, <표 3>에서 보듯이 일본에 관한 기사들이 69건(전체 외보 중 37.6%)에 68.4쪽(전체 외보 지면 중 40.1%)으로 여러 나라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청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의 순이다.

일본에 관한 기사를 다시 세분해 보면, 외교와 통상에 관한 기사가 11건으로

<표 3> 제2호에 게재된 각국별 외보기사들의 비율

구 분	기사 건수(記事件數)		지면량(紙面量: 쪽수)	
	건수	백분율(%)	쪽수	백분율(%)
일본(日本)에 관한 기사	69	37.6	68.4	40.1
청국(淸國)에 관한 기사	23	12.4	23.0	13.5
영국(英吉利) 관계기사	21	11.3	17.7	10.4
프랑스(佛蘭西) 관계기사	10	5.4	5.9	3.5
독일(獨逸)에 관한 기사	5	2.7	2.1	1.2
터키(土耳其) 관계기사	9	4.8	11.0	6.5
러시아(露西亞) 관계기사	23	12.4	19.1	11.2
아메리카(亞米利加) 기사	9	4.8	9.3	5.5
멕시코(墨西哥) 관계기사	11	5.9	9.7	5.7
대양주(大洋洲) 관계기사	5	2.7	4.0	2.4
합 계(合 計)	185	100.0	170.2	100.0

가

6) 《漢城新報》는 1894년 安達謙藏가 서울에서 창간한 신문으로 1895년 1월 22일부터는 朝鮮文版도 격일로 발했다. 安達謙藏는 日本 熊本의 土族 출신(1864年生)으로, 熊本國權黨의 領袖였던 佐佐友房(사사도모후사)의 인정을 받아 정치에 뜻을 두게 되었으며, 1893년 佐佐의 수행원으로 우리 나라를 처음 시찰하러 왔었으며, 1894년 6월 淸日 兩軍이 우리 나라로 出兵時에 佐佐의 명령으로 다시 우리 나라에 와서 동년 10월 釜山日本總領事 室田義文(무로타 요시후미)의 권유로 釜山에서 《朝鮮時報》를 발간하다가 新任日本公使 井上馨(이노우에 가오루)의 협력과 재정적 지원을 받아 서울에서 《漢城新報》를 창간했다. 이듬해인 1895년 日本公使 三浦梧棲(미우라 고로)의 의뢰를 받아 漢城新報社를 중심으로 해서 모인 熊本 출신의 浪人들을 동원하여 우리 나라 明成皇后 살해사건 때 행동대장격의 역할을 맡았다(木村誠 外 編, 1995), pp. 199 - 200.

장 많으며, 다음은 일본정부 관계기사가 8건, 교육에 관한 기사가 7건, 일본 국내정치에 관한 것이 5건, 식민지 대만(臺灣)과 해외이주에 관한 것이 5건, 군비(軍備)에 관한 것이 역시 5건으로 비교적 높은 비중들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에 관한 기사도 모두 9건에 달하는데, 그중 철도에 관한 것이 5건, 해운(海運)에 관한 것이 4건이다. 한편 통신관계 기사는 3건, 상공업·산업·금융에 관한 기사가 4건, 토목공사에 관한 것이 1건, 기타 기사들이 8건이며, 이밖에 3건의 각종 통계자료들도 실려 있다.

청나라에 관한 기사는 모두 23건(전체 외보들 중 12.4%)에 23쪽(전체 외보 지면의 13.5%)으로 일본에 비해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이처럼 일본에 비해 적은 것은 《회보》가 일본에서 발행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시 청나라 세력과 청나라에 대한 우리 나라의 의존도가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었으며, 또한 청나라의 근대화가 우리 나라의 모델이 될 수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짐작된다. 그러나 철도에 관한 소개는 의외로 많아, 모두 6건이나 된다. 다음은 외교와 통상에 관한 것이 5건이며, 청나라 사정에 관한 것이 5건, 군비에 관한 것은 4건이며, 기타가 4건이다.

다음으로 유럽 열강들에 관한 외보기사들을 보면, 러시아(露西亞) 관계기사가 23건(전체 외보 중 12.4%)에 모두 19.1쪽(외보 지면 중 11.2%)으로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당시 러시아 세력의 동진(東進)이 우리 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 러시아의 극동진출에 관한 기사들이 7건이나 되며, 또한 군비확장에 관한 것이 8건, 시베리아 철도의 부설과 동양해운에 관한 것도 3건이나 된다. 그 다음 영국(英吉利)에 관한 기사들은 21건(외보 중 11.3%)에 약 18쪽을 차지했는데, 그중 해군의 확장에 관련된 것들이 10건이나 되며 외교와 통상에 관한 것이 2건, 공업과 산업에 관한 것이 3건, 교통에 관한 것이 3건, 기타가 2건이다. 한편 프랑스(佛蘭西)에 관한 기사들은 모두 10건(외보 중 5.4%)에 5.9쪽(외보 지면 중 3.5%)인데, 그중 6건이 군사관계이며 내각에 관한 것이 2건, 기타가 2건이다. 그 다음 독일에 관한 기사들은 별도 항목으로 독립시키지 않고 프랑스 기사들 뒤에 붙여놓고 있는데 모두 5건이지만 거의가 일반적 소개기사들이다.

위와 같은 유럽 강대국들 외에 터키(土耳其, 土耳其)에 관한 기사들도 모두 9건(외보 중 4.8%)에 11쪽(외보 지면 중 6.5%)이나 되는데, 왜 이처럼 터키에 관해서 《회보》 편찬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토이기(土耳其)의

개혁”, “현시지소란”(現時之騷亂), “토이기의 형승(形勝)”, “토이기 황제(皇帝)의 완경(頑硬)”, “토이고(土耳其) 아루메니아의 사건”, “토이고에 인(因)하여 불국(佛國)의 진퇴”, “토이기 형세가 점점 온(穩)함”, “토이기 정부와 열국공사(列國公使)의 동정”, “수부(首府)의 참상(慘狀)” 등에 관해 비교적 상세히 소개해 놓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을 포함한 북미(北美) 여러 나라에 관한 외보들은 “아미리카”(亞米利加)라는 표제 아래 함께 소개해 놓았는데, 건수는 모두 9건(외보 건수 중 4.8%)이며, 쪽수는 9.3쪽(외보 전체 쪽수 중 5.5%)이다. 그 내용들을 보면 “미국부인(米國婦人)의 직업”이라는 기사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조그만 여러 소공화국들에 관한 소개이다.

그러나 멕시코에 관해서는 별도로 “멕시코(墨西哥, 메씨시요)의 사정일반(事情一斑)”이라는 제목 아래, 그 사정들을 11개 항목으로 나누어 모두 9.7쪽에 걸쳐 상세히 소개해 놓고 있다. 끝으로 대양주(大洋洲, 오스차리아, 濠太刺利亞)에 관해서는 모두 4쪽에 걸쳐 그 나라의 병원·학교·기예관(技藝館)·교회(教會)·상가(商賈)·은행(銀行) 등을 소개해 놓고 있다.

(4) 萬國事報欄에 실린 각종 記事들의 內容

여섯째로 만국사보(萬國事報)란에는 위의 외보란에서 다루지 않은 기타 여러 나라의 소식들과 국제적 성격의 뉴스 및 각종 통계자료들을 소개해 놓았는데, 기사 건수는 모두 23건(전체 본문기사 건수의 9.2%)이며 쪽수는 23쪽(전체 본문기사 쪽수의 8.5%)이다. 우선 각국 소식으로는 “서반아(西班牙)의 신조군함(新造軍艦)”, “오국총리대신(奧國總理大臣)의 연설”, “서전국(瑞典國)에 관한 소식” 등이 실려 있다. 그 다음 세계 각국에 관한 통계자료들로는 “세계 각국 철도의 연장(延長)”, “세계 제국(諸國)의 우편수(郵便數)”, “교통회보”(交通彙報), “교통사업”, “각국 왕실비표(王室費表)”, “세계 각국 소학교(小學校)의 통람(通覽)”, “구주(歐洲)의 아동교육”, “구주 제국병수”(歐洲諸國兵數), “구주제국의 결혼 및 산아통계”, “구주도부(歐洲都府)에 기류(寄留)한 외국인”, “구주제국의 인구감소(人口減少)”, “구주제국 해군의 비교”, “구주제국의 조선업(造船業)”, “구주제국의 인구와 재황(財況)” 등도 소개하고 있다.

또한 “현금(現今) 동양함대중앙영불로 3국 해군비교(東洋艦隊中央英佛露三國海軍比較)”와 “구주제국의 동양함대(東洋艦隊)를 유(有)한 현재수(現在數)”를 밝혀놓고 있다.

이상과 같은 외보와 만국사보의 각 기사 말미에는 괄호 속에 《요미우리신문》

(讀賣新聞)이니, 《타이요잡지》(太陽雜誌)니 하는 식으로 그 출처를 대부분 밝혀놓고 있다. 따라서 외보와 만국사보들은 당시 일본 신문과 잡지들에서 발췌 또는 전재(轉載)했음을 알 수 있는데, 제2호의 외보와 만국사보들의 출처를 각 신문과 잡지별로 집계해 보면, 《고쿠민신문(國民新聞)》이 50회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요미우리신문》이 32회, 《지지신보》(時事新報)가 27회, 《도쿄니치니치신문》(東京日日新聞)이 20회, 《한성신보》(漢城新報)가 12회, 《니혼신문》(日本新聞)이 10회, 《타이요 잡지》(太陽)가 10회, 《게이자이잡지》(經濟雜誌)가 9회, 《고쿠민노도모》(國民之友) 잡지가 1회 등의 순이다.

위와 같은 외보와 만국사보에 이어 256쪽부터 270쪽까지 친목회일기가 실려 있다. 이는 1895년 12월 1일(음력 10월 15일)부터 1896년 3월 30일까지의 일기인데, 그중 12월 2일부터 이듬해 1월 말까지의 일기는 간첩(幹籤) 박정수(朴廷秀)가, 2월 일기는 간첩 윤방현(尹邦鉉)이, 3월 일기는 간첩 유승겸(兪承兼)이 각각 기록(모두 漢文)했다.

3) 뒷붙이들의 여러 가지 內容

제2호의 뒷붙이로는 “특별광고”, “친목회회규세칙”(親陸會會規細則), 1895년 12월 1일부터 1896년 3월 30일 사이의 “임원선보자”(任員選補者), “본회회원동정”, “특별회원동정”, “신입회원”, “신입특별회원”, “신입통상찬성원”, “신입특별찬성원”, “찬성금”(贊成金), 기부자들의 성명과 금액, “기증서적”과 “매입서적” 및 “대조선인 일본유학생친목회회보 제2호 발간 후 출납보고”가 실려 있다.

이들 중 중요한 것만 간단히 소개해 보면, 첫째로 “특별광고”는 1896년 3월 14일 통상회에서 지난 2월 회계 이범수(李範壽) 등이 친목회 돈을 절취, 미국으로 도망간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회장 어운적의 사퇴(辭退)를 결의했다는 내용의 친목회 공고(公告)이다. 그러나 이를 ‘광고’라고 한 것은 ‘널리 알린다’는 뜻으로 그렇게 부른 것 같은데, 《회보》에는 오늘날의 광고와 같은 상품이나 용역 광고들은 실려 있지 않다.

“기증서적”에는 친목회에서 기증받은 서적과 잡지들의 목록이 실려 있는데, 그 목록을 보면 잡지로는 《고쿠민노도모》(國民之友, 月3回刊), 《가태이잡지》(家庭雜誌, 月2回刊), 《쥬오시론》(中央時論, 月2回刊), 《후진신보》(婦人新報, 月刊), 《와세다문학》(早稻田文學, 月2回刊)과 서적으로는《만물기원》(萬物基原) 1권을 기증받

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매입서적” 목록을 보면 잡지로는 《타이요》(太陽), 《닛봉풍속화보》(日本風俗畫報), 《조각쿠잡지》(女學雜誌)를, 서적으로는 《조선지지》(朝鮮地誌) 1권, 《지나지지》(支那地誌) 1권, 《도쿄안내》(東京案内) 1권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 “매입신문”(每個月) 목록을 보면 《니혼신문》(日本新聞), 《고쿠민신문》(國民新聞), 《지지신보》(時事新報),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 《도쿄니치니치신문》(東京日日新聞)과 서울에서 일본인이 발간했던 《한성신보》(漢城新報) 등 모두 6종이 실려 있다.

이처럼 친목회에서 각종 잡지와 서적들을 구독한 것은 일본과 세계 각국의 형세를 알기 위해서였지만, 또한 《회보》의 발간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였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특히 외보와 만국사보들을 보면 그 대부분이 위와 같은 일본 신문과 잡지들에서 발췌 또는 전재했기 때문이다.

끝으로 “출납보고”에는 1895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친목회 수입금과 지출금 내역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데, 수입금은 회비 55원 21전, 기부금 128원, 이월금 725원 20전 6리 등을 포함, 총계가 913원 36전으로 나와 있다. 반면 지출금은 모두 658원 49전 4리인데, 그 내역을 보면 《회보》 제1호 5백 부 출판비 및 기타가 70원 93전 9리, 서적 매입비가 2원 57전, 신문 매입비가 8원, 통신비가 5원 1전 등이며 건양기념회(建陽紀念會) 및 사진대(寫眞代)가 62원 66전 5리, 전회계(前會計) 이범수(李範壽)의 절취금이 423원 55전 4리로 되어 있다.

4. 第2號의 發行部數와 配布範圍

위에서 《회보》 제2호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했는데, 그러면 제2호는 모두 몇 부(部)를 발행했으며, 그 배포대상은 누구였으며, 배포범위는 어느 정도였는가? 제2호도 창간호와 마찬가지로 모두 500부를 발행했는데, 제4호 말미에 실려 있는 1896년 7월부터 12월까지 친목회 “출납보고”(出納報告)를 보면 지출란에 “第二號會報五百部代價餘條九十九圓三十五錢五厘”라고 적혀 있다. 따라서 이를 보면 제2호 500부의 발간비로 당시 일본 돈 99원 35전이 소요되었음도 알 수 있다. 이는 1896년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총 지출금 253원 6전 중 39.2%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음을 볼 때, 《회보》 발간사업이 친목회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점했는지를 엿볼 수 있다.

제2호의 배포대상자들도 창간호와 마찬가지로 1차적으로는 친목회 회원들과 찬성원들이었는데, 제2호 앞붙이에 실려 있는 《회보》에 관한 안내글에서 두번째 항(項)을 보면 “본회회보는 규칙 제6절 제1조를 의(依)하여 3개월 1회씩 발행하며 차(此)를 본회회원 및 특별회원과 통상찬성원 및 특별찬성원에 진정(進呈)함을 위함이라”고 밝혀놓고 있다. 또한 제3호 말미에 실려 있는 6월 14일자 친목회일기를 보면, 이날 “본회 잡지의 출판이 완성되어 제학원(諸學員) 및 찬성원들의 각처에 진정(進呈)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당시 일본에 체류하고 있던 우리 나라 일반인들에게도 배포했으며, 이들에게는 유료(有料)로 배포했던 것 같다. 왜냐하면 제3호 말미에 실려 있는 1896년 4월부터 6월까지의 출납보고서 수입란을 보면 “第二號收入總計赴米六人什物買入金遺漏 一金二十六圓四十四錢五厘”라고 적혀 있음을 볼 때, 이 금액 중 일부는 일반인들에게 《회보》를 판매한 수입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회보》 1부의 값은 얼마였을까? 위의 제2호 판매수입금에는 판매부수가 나타나 있지 않으나, 1896년 1월부터 3월까지 출납보고서를 보면 “會報第一號十四部代 一金壹圓八十二錢”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서 1원 82전을 14부로 나누면 13전이 되므로 제2호도 제1호와 마찬가지로 1부의 대금은 13전이었던 것 같다.

한편 《회보》는 모국에도 배포했는데, 제4호에 실려 있는 7월 11일자 친목회일기를 보면 이날 “하오 10시 본회 회원 이유석(李儒皙), 박운양(朴潤陽) 등 5명이 귀국, 재원(諸員)이 사니가와(品川)에 나가 송별했으며, 박운양 편에 본회 회보 제2호를 본국의 각 관아(官衙), 각 학교에 진정(進呈)토록 위탁, 모두 115책을 송부(付送)”라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볼 때 제2호는 모국에도 115부나 보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전체 발행부수 중 약 3분의 1에 해당되는 숫자였다. 이처럼 많이 보낸 것은 친목회에서 《회보》를 모국에도 배포, 세계 각국의 형세를 알리고 개회사상을 전파하고자 했기 때문인 것 같은데, 당시 일본에 있던 우리 나라 유학생들은 모두 합쳐 100여 명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00부나 발행한 것은 본래부터 모국에도 배포할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제2호는 모국의 독립신문사에도 보내져, 이를 《독립신문》이 1896년 9월 22일자 잡보란에 소개함으로써 《회보》가 모국에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 기사를 보면, “일본 류학하는 조선 학도들이 친목회를 시작하여 년보를 출판하는데 독립신문사에 년보 데이호를 보내었는데 본즉 국한문으로 석근 칩이 이벽칠십장이 되고 그

속에 있는 논설과 각식 신문을 조선학도들이 지어 각식 학문상 의론을 만히 하고 외국 스경도 만히 기록 하였는데 이런 책은 조선 사람들이 처음으로 만든거시라 이런 거술 보거든 조선 사람들도 차차 남의 나라 학도들 모양으로 학문상에 유의하고 치국 치민하는 방침에 뜻이 잇는것 갓더라”고 소개했다.

《독립신문》은 다시 10월 8일자 제1면 첫머리의 논설을 통하여 “일본 유학하는 조선 학도들이 친목회를 모화 거과 유학하는 학도 중에서 일년에 한번씩 년보를 출판하여 여러권을 친구들에게 보내었는데 우리 신문사에 데일 데이호가 왔는지라 이 책을 근일에 우리가 자세히 넘어본즉 그속에 미우 지각잇는 말도 만히 잇고 말을 넘어보면 조선학도들도 분한 마음이 나서 조선을 문명 진보하게 하라는 마음도 잇는 것 갓고 즈과 남군을 사랑하고 도탄에 든 동포 형테를 구완히 줄 생각도 잇는것 갓 흔지라”라고 하면서 《회보》 제1호와 제2호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했다. 또한 같은 날짜 제4면의 영문판 *The Independent*의 논설에서도 《회보》 제1호와 제2호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러한 《회보》의 발간을 통하여 “과학적 또는 문학적 성취보다도 더 중요한 애국심을 배우게 되기를 바라며 또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회보》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이처럼 《독립신문》은 보도기사와 논설을 통해 《회보》의 발간 사실과 그 내용을 자세히 알려줌으로써 모국 동포들도 ‘잡지’라는 새로운 언론문물의 존재와 그 목적·기능 등을 인식, 우리 나라 땅에서도 이러한 잡지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회보》는 모국에서도 잡지가 나오게 만드는 하나의 자극제 구실을 했다고 짐작되는데, 우연인지 또는 《회보》의 영향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회보》의 창간 8개월 뒤인 11월 20일 우리 나라 땅에서도 우리의 손으로 처음 만들어진 《대조선독립협회보》라는 잡지가 나오게 됨으로써⁷⁾ 우리 나라에서도 비로소 잡지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7) 徐載弼·尹致昊 등 30여 명이 결성(1896년 7월 2일)한 독립협회의 會報. 발행인은 徐載弼, 발행소는 대조선독립협회, 월 2회간(半月刊), 판형은 菊判, 분량은 30쪽 정도. 제18호를 끝으로 1897년 8월 폐간했다.

Ⅲ. 第3號의 發刊과 그 編輯·組版 體裁 및 주요 內容

친목회는 《회보》 제2호에 이어 1896년 10월 23일 제3호를 발행했는데, “본회 회보는 규칙 제6절 제1조를 의(依)하여 3개월 1회씩 발행한다”는 규정대로라면, 제3호는 제2호의 발행(1896년 6월 16일) 3개월 뒤인 1896년 9월에 나왔어야 정상이었다. 그러나 제3호도 제2호와 마찬가지로 4개월 만에 발행했는데, 판권장을 보면 “건양 원년 10월 23일, 명치 29년 10월 23일 발행”, 즉 1896년 10월 23일 발행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표지에는 “건양 원년 6월 발행”(建陽元年六月發行), 즉 1896년 6월 발행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정확한 발행날짜는 언제였는가?

1. 第3號 表紙의 發行날짜와 실제 發行날짜

비록 표지에는 “건양 원년 6월 발행”이라고 표시해 놓았으나, 제3호의 실제 발행날짜는 판권장에 명기되어 있는 대로 1896년 10월 23일이었음이 분명한데, 제4호에 실려 있는 1896년 10월 22일자 친목회일기를 보면, 이날 “본회 회보 제3호가 출판되어 내도(來到)하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한 10월 26일자 친목회일기에는 “회보 제3호를 회원 및 찬성원들의 제처(諸處)에 분송(分送)하다. 단 본국(本國)의 각부(各部) 및 각 학교에는 차후에 편의에 따라 발송하기로 정하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親睦會會報》, 제4호, p. 90). 하지만 표지에 “건양 원년 6월 발행”이라고 한 것은 앞서 제1호 및 제2호와 마찬가지로 창간호(제1호)의 본래 발행 예정날짜를 기준으로 발행날짜를 표시했기 때문이다.⁸⁾

따라서 제3호의 발행날짜는 1896년 9월이 아니라, 판권장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1896년 10월 23일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만약 3개월마다 발행하기로 했다면 제3호는 9월에 나왔어야 정상이었으나 1개월 뒤늦게 발행했다. 그러나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제2호가 6월 16일(또는 26일)에 나왔기 때문에 제3호의 발행이 자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 것 같다. 왜냐하면 제3호 판

8) 즉, 創刊號 표지에 본래 발행 예정날짜였던 “開國五百四年十月發行”(양력 1895년 11월 16일~12월 15일 사이)으로 표시했으며, 《회보》는 3개월마다 발행하기로 했으므로 제2호 표지에는 “建陽元年三月發行”(양력 1896년 3월)으로, 제3호 표지에는 “建陽元年六月發行”이라고 밝혀놓은 것이다.

권장에 기재되어 있는 인쇄날짜를 보면 “건양 원년 6월 30일, 명치 29년 6월 30일 인쇄”, 즉 1896년 6월 30일 인쇄로 되어 있으며 또한 제3호 말미에는 6월 30일까지의 친목회일기만 실려 있음을 볼 때, 6월 30일 제3호를 인쇄에 부쳤으나 조판과 인쇄 및 제본에 약 4개월 정도가 걸려 10월 22일에야 “제3호가 출판되어 내도(來到)”하자 그 이튿날 발행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44쪽 짜리 잡지 300부 인쇄에 거의 4개월이나 걸린 것을 보면 혹시 제3호도 일본 내무성의 검열문제도 더 많은 시간이 걸려 10월 23일에야 발행했는지 모르겠으나, 그 진부는 알 수 없다.

2. 第3號의 發行兼編輯者와 印刷人 및 編纂者

다음으로 제3호의 발행인과 편집인을 보면, 판권장에 김용제가 ‘발행겸편집자’로 되어 있는데, 앞서 제1호와 제2호의 발행인은 최상돈(崔相敦), 편집인은 김용제(金鎔濟)였다. 그러면 제3호에는 왜 김용제가 발행 겸 편집자로 되었는가? 1896년 8월 16일자 친목회일기를 보면, 이날 위원회를 개최, “금번 ‘게이오의숙 보통과’ 졸업 제원(諸員)이 각 전문 분야로 들어감에 따라 그 임무를 조정했는데, 회보 발행인으로 최상돈 대신 장헌식(張憲植)을 선출했다”고 기록되어 있다(《親睦會會報》 제4호, p. 89). 그러나 그뒤 9월 23일자 친목회일기를 보면, 이날 열린 위원회에서 “회보 발행인을 회사(會事) 방편으로써 편집원 김용제가 겸임하도록 결의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록들을 볼 때, 최상돈이 게이오의숙 보통과를 졸업하고 철도 사무에 관한 견습을 나가게 되자 그 대신 장헌식을 발행인으로 선출했으나, 제3호의 발행 1개월 전인 9월 23일 김용제에게 발행인도 겸임토록 함으로써, 제3호 판권장에 김용제가 ‘발행겸편집자’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김용제에게 발행인도 겸임시킨 것은 “회사방편(會事方便)으로써” 그랬다고만 기록되어 있어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다.

다음으로 제3호 판권장에 기재되어 있는 인쇄인과 인쇄소를 보면, 인쇄인은 앞서 제1호 및 제2호와 마찬가지로 야마모토 에이지로(山本鏌次郎)이고, 인쇄소는 슈에지샤(秀英社)로 되어 있다. 한편 제3호의 편찬도 역시 제2호를 편찬했던 편찬원들이 그대로 맡았던 것 같은데, 그간에 편찬원들을 교체했다는 기록이 《회보》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이다.

3. 第3號의 編輯·組版 體裁와 主要 內容

비록 제3호는 1896년 10월 23일 발행했으나 거기에 실려 있는 친목회일기와 뒷붙이들 및 본문기사들을 보면 1896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친목회 동정 및 국내의 사건들과 형세 등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편집체제와 조판체제를 보면, 앞서 제2호와 크게 다른 것이 없으나 전체 쪽수가 앞붙이와 뒷붙이들을 모두 합쳐 144쪽(앞표지와 뒤표지 제외)으로 제2호(280쪽)에 비하여 반으로 줄어, 창간호(176쪽)보다도 적다. 이는 아마도 1896년 2월 28일 밤 친목회 회계(會計) 이범수(李範壽)가 약 420여 원의 친목회 운영비를 절취, 김헌식(金憲植) 등 5명과 함께 미국으로 도망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로 인해 친목회가 자금(資金難)을 겪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제3호는 분량뿐만 아니라 발행부수도 줄어 창간호와 제2호보다 200부가 적은 300부만 발행했다.

1) 表紙의 形態와 앞붙이들의 內容

우선 제3호의 앞표지부터 살펴보면, 앞서의 창간호나 제2호와 똑같으며 다만 제호(題號) 오른쪽에 인쇄해 놓은 발행날짜와 호수(號數)의 표시만 다를 뿐인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3호의 실제 발행날짜는 1896년 10월 23일이었으나 표지에는 “건양 원년 6월 발행”(建陽元年六月發行)이라고 인쇄해 놓았으며, 제호 아래에 “제3호”(第參號)라고 호수를 밝혀놓았다. 그리고 표지 안쪽에는 “친목회회보 제3호 목차”를 2단으로 나누어 실어놓았는데, 일부 주요 기사들의 제목들만 간략하게 소개해 놓았으며, 쪽 번호들도 밝혀놓지 않았다. 그러나 앞서의 제1호와 제2호와와는 달리, 사설과 논설들에 그 필자의 성명을 달아놓았다.

다음에는 앞붙이들이 모두 4쪽(창간호는 8쪽, 제2호는 4쪽)에 걸쳐 실려 있는데, 첫째 쪽에는 창간호나 제2호와 마찬가지로 《회보》의 발간목적·발행횟수·투고요령·구독요령 등에 관한 안내의 글을 실었으며, 둘째 쪽에는 “대조선인일본유학생친목회회보 회지(會旨)”가 게재되어 있다. 그리고 다음에는 게이오의숙의 2층짜리 양식(洋式) 본관 건물의 사진을 두 쪽에 펼쳐 실었는데, 사진 위에는 “慶應義塾 前面圖”라는 설명을 달아놓았고, 사진 아래에는 “大日本東京芝區三田町四丁目二十六番地”라고 게이오의숙의 주소가 적혀 있다.

2) 本文記事들의 각 欄別 構成比率과 주요 內容

위와 같은 앞붙이들에 이어, 본문기사들이 실려 있는데, 그 분량은 위에서 말했듯이 모두 135쪽으로서 창간호(160쪽)보다는 25쪽, 제2호(270쪽)보다는 무려 125쪽이나 적다. 그러나 편집과 조판 체제, 판형 등은 창간호나 제2호와 마찬가지로, 본문기사들의 편집체제를 보면 제2호와 마찬가지로 사설(社說)·논설(論說)·문원(文苑)·내보(內報)·외보(外報)·만국사보(萬國事報) 및 친목회일기(親睦會日記) 등 모두 7개의 난(欄)으로 나누어 그에 해당하는 기사들을 차례로 게재하고 있다.

(1) 本文記事들의 編輯體裁와 각 欄別 構成比率

본문기사들의 총 건수(件數)는 119건인데, 이들을 우선 각 난별(7개 난)로 나누어 그 건수(件數)와 쪽수(紙面量)를 비교해 보면, <표 4>와 같다. 이에서 보듯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창간호나 제2호에서와 마찬가지로 외보인데, 기사 건수는 모두 64건으로서 본문기사 전체의 53.9%를, 쪽수는 모두 50쪽으로서 본문기사 전체 지면의 37.0%를 점하고 있다.

<표 4> 제3호 본문기사들의 유형별 구성비율

구 분	기사 건수(記事件數)				지면량(紙面量: 쪽수)			
	제 3 호		제 2 호		제 3 호		제 2 호	
	건수	백분율(%)	건수	백분율(%)	쪽수	백분율(%)	쪽수	백분율(%)
사설(社說)	1	0.8	2	0.8	5.6	4.2	9.3	3.4
논설(論說)	13	10.9	7	2.8	29.7	22.0	20.7	7.7
문원(文苑)	9	7.6	5	2.0	7.0	5.2	3.0	1.1
내보(內報)	5	4.2	26	10.4	6.7	5.0	28.8	10.7
외보(外報)	64	3.9	186	74.4	50.0	37.0	70.2	63.0
만 국사보	26	21.8	23	9.2	28.0	20.7	23.0	8.5
친목회일기	1	0.8	1	0.4	8.0	5.9	15.0	5.6
합 계(合計)	119	100.0	250	100.0	135.0	100.0	270.0	100.0

그 다음 2위는 쪽수로는 논설(13건, 29.7쪽)이나, 건수로는 만국사보(26건, 28쪽)인데, 만국사보는 외보와 마찬가지로 세계 각국의 소식과 정보들이다. 따라서 만국사보와 외보를 합치면, 외국관계 기사들의 건수는 모두 90건으로 전체 본문기사들의*

75.7%를 차지했다. 또한 쪽수는 78쪽으로 전체 지면의 57.7%를 차지했는데, 이는 《회보》의 중요 발간목적의 하나가 독자들에게 선진외국의 형세와 정세를 숙지시켜 우리 나라의 문명개화에 앞장서게 하려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관계 기사들의 양을 앞서 제2호와 비교해 보면, 건수에서는 56.9%, 쪽수에서는 30.4%가 감소했는데, 이것은 제3호의 지면이 줄자 외국관계 기사들을 감소시켰기 때문인 것 같다.

한편 제3호에서는 논설의 비중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는데, 건수(13건)로는 3위이나 쪽수(29.7쪽)에서는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2호에 비해 6건에 9쪽이나 증가되었다. 한편 문원란도 제2호에 비해 건수는 4건, 쪽수는 4쪽이 증가했다. 반면 모국에 관한 소식들인 내보는 많이 감소했는데, 제2호에서는 모두 26건(본문기사들 중 10.4%)에 28.8쪽(본문기사 전체 지면의 10.7%)으로 2위를 점했으나, 제3호에서는 불과 5건(4.2%)에 6.7쪽(5.0%)으로 건수에서는 5위, 쪽수에서는 6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친목회일기의 양(量)도 많이 감소했는데, 이는 제2호에서는 5개월간(1895년 11월 1일~1896년 3월 31일)의 일기였으나 제3호의 일기는 3개월간(1896년 4월 1일~6월 30일)의 것이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제3호에 실려 있는 친목회일기들을 보면 중요한 사항들만 비교적 간략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

(2) 社說·論說·文苑·內報欄 記事들의 주요 內容

위와 같은 각 난의 본문기사들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보면, 첫째로 사설란에는 신해영(申海永)의 “근학(勤學)의 호시기(好時機)”라는 사설만 1편이 실려 있는데, 먼저 부지런함과 게으름의 이해(利害)를 실례를 들어 설명하고 나서 “금일은 결코 불가실(不可失)할 호시기(好時機)이니 부지런히 공부하자”고 촉구하고 있다.

둘째로 논설란에는 모두 13편의 논설들이 약 30쪽에 걸쳐 실려 있는데, 이들을 주제별로 나누어 보면, 당시 우리 나라의 형세와 정치에 관한 것이 4건(權鳳洙, “時勢論”; 安明善, “政治의 得失”; 洪奭鉉, “進步的退步的”; 尹世鏞, “政治家言行論”), 국민의 의무와 애국에 관한 것이 5건(劉昌熙, “國民의 義務”; 洪奭鉉, “國民의 大問題”; 金鎔濟, “國民之元氣銷磨方今之憂慮”; 洪奭鉉, “實行的不實行的”; 張憲植, “務本論”), 학문과 교육에 관한 것이 4건(池承俊, “學問의 功效”; 元應常, “學問의 研究”; 崔相敦, “教育論”; 南舜熙, “國家進就의 如何”)이다. 그러나 결론들은 하나같이 모두가 당시 우리 나라의 형세를 근심하면서 조국을 독립적이고 개명된 국가로 만들자는 것이다.

셋째로 문원란에는 전호(前號)들과 마찬가지로 한시(漢詩)들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모두 6편 7수(首)의 한시들 중에서 김태흥(金泰興)의 “태래언”(泰來言)이라는 율시(律詩) 1편을 제외한 나머지 5편 6수는 모두가 안영중(安泳中)이라는 한 사람이 특별기고한 것들(모두 七言絶句)이다. 한편 신해영(申海永)이 김옥균(金玉均)의 묘소에 가서 그를 추모하며 쓴 산문(“題金公玉均之墓”)도 실려 있으나, 이것도 일종의 율시 형식의 한시로서 길이는 2쪽이다.

넷째로 내보란에는 모두 5건의 모국 소식들이 실려 있다(“法律第二號 賊盜處斷例”, “京仁間鐵道敷設之約條件”, “獨立新聞의 發刊”, “朝鮮에 대하야 英國의 商利”, “元山港輸出入概計”). 이들 중 “독립신문의 발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독립신문》의 창간(1896년 4월 7일) 사실과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 있다.

(3) 外報·萬國事報와 親睦會日記의 주요 內容

다섯째로 외보란에는 세계 열강들의 소식과 정세 등을 나라별로 나누어 실었는데, 일본에 관한 기사들이 가장 많으며, 다음은 러시아·영국·독일·청나라·미국 등의 순으로 되어 있다.

일본에 관한 기사들은 모두 16건(전체 외보기사 중 25%)이 19.3쪽(외보기사 전체 지면 중 38.8%)에 걸쳐 실려 있는데 대외관계 기사가 4건, 군사관계가 4건, 내정(內政)에 관한 것이 2건, 교통과 통신 관계가 2건, 교육에 관한 것이 1건, 공업에 관한 것이 1건, 공공시설에 관한 것이 1건이며, 그 밖에 “조선(朝鮮)에 금동불(金銅佛)과 지나(支那)에 승상(僧像)을 득(得)함”이라는 기사도 실려 있다.

반면, 청나라에 관한 기사는 모두 5건에 불과한데, 그 중 1건은 청일전쟁 이후 청국의 상황에 관한 것이고, 1건은 “신우편제도”(新郵便制度)의 실시에 관한 것이며, 또 하나는 “지부해안(芝罘海岸)을 로국(露國)에 양여(讓與)한다”는 기사이고 나머지 2건은 일반적인 피이쳐 기사(“吟香翁支那談”, “明園”)이다.

한편 러시아에 관한 기사는 모두 12건인데, 그 중에서 군비확장에 관한 것이 5건, 탐험에 관한 것이 3건, 외교에 관한 것이 2건, 기타가 2건이다. 영국에 관한 기사는 모두 7건이 실려 있는데, 그 중 이집트의 정벌에 관한 것이 2건, 외교정책에 관한 것이 1건, 군사에 관한 것은 1건, 금융에 관한 것이 1건이며, 흥밋거리의 토포기사도 2건(“女皇陛의 子孫 六十三人”, “女博士選舉”)이 실려 있다. 독일 관계기사는 모두 6건 중 5건이 외교와 통상에 관한 것이며, 나머지 1건은 군비확장에 관한 것이다. 그 반면, 프랑스 관계기사는 5건 중 내정(內政)에 관한 것이 3건이며, 나머지 2

건이 군비확장에 관한 것이다. 이 밖에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관한 기사도 각각 4건씩 실려 있으며, 미국에 관한 기사는 모두 5건인데 그 중 1건은 “해군확장”(海軍擴張)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4건은 주로 미국의 내정에 관한 것들이다.

여섯째로 만국사보란에는 국제적 성격의 소식들과 중요 통계자료들 및 앞서 외보란에서 소개한 국가들 이외의 여러 나라 소식들을 한데 모아서 소개했는데, 기사 건수는 모두 26건(전체 본문기사의 21.8%)이며, 쪽수는 28쪽(전체 본문기사 쪽수의 20.7%)이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각종 통계자료들인데, “세계 금산(金産)의 출액(出額)”, “세계 각국의 학교”, “세계 각국의 해군비(海軍費)”, “세계 전신선(電信線)의 총연장(總延長)”, “구주(歐洲)의 공채액(公債額)과 병졸(兵卒)의 수(數)”, “구주의 육군 및 인민의 부담액” 등을 소개해 놓고 있다. 그런가 하면, 흥미기사들도 있으며(“世界 最初의 甲裝艦”, “歐美 各國의 電氣鐵道”, “歐羅巴人の 食糧”, “人間生死의 差等”, “新舊北極의 探險”, “布哇와 米國間의 海底電線”), “세계사조”(政界思潮), 유럽 형세와 그 여러 나라들 간의 관계 등에 관한 기사들도 많이 실려 있다. 그리고 앞서 외보란에서 소개하지 않은 국가들에 관한 것들로는 “파사(波斯)의 신왕(新王)”, “아블리가주(亞弗利加洲) 오렌지 자유국의 군비확장”, “도리포리아국의 난(亂)”, “뿌로우에도(島)의 개항(開港)” 소식 등이 실려 있다.⁹⁾

일곱번째로는 친목회일기가 128쪽부터 135쪽까지 실려 있는데, 제3호의 일기는 1896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의 일기이다. 그중에서 4월분은 간첩 전태흥(全泰興), 5월분은 간첩 지승준(池承浚), 6월분은 간첩 유승겸(俞承兼)이 각각 교대로 한문으로 기록했는데, 친목회의 주요 사건과 활동 등을 날짜별로 간략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

3) 뒷붙이들의 여러 가지 內容과 親睦會 動靜

위와 같은 본문기사를 다음에는 뒷붙이로서, 광고와 1896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의 친목회 임원선보자(任員選補者), 본회원과 특별회원들의 동정, 찬성금(贊成金) 기부자들의 성명과 금액, 기증받은 서적과 매입서적들의 목록 및 친목회의 출납보고(出納報告) 등이 모두 5쪽에 걸쳐 실려 있다.

9) 이들 萬國事報는 거의 모두가 일본의 신문과 잡지들에 실렸던 것들을 번역, 전제한 것들인데, 각 기사 말미에 밝혀놓은 出處들을 보면, 《時事新報》가 9건으로 가장 많으며 《國民新聞》이 4건, 《讀賣新聞》이 3건, 《東京日日新聞》이 1건이며, 우리 나라 서울에서 日本人들이 발간했던 《漢城新報》에서도 1건을 전제했다. 한편 잡지로는 《國民之友》에서 3건, 《衛生雜誌》에서 2건을 전제했다.

첫째로 ‘광고’는 동경상선학교(東京商船學校)의 학과목(學科目)과 수업연한, 시험 방법 등에 관한 소개인데, 이는 동경상선학교에서 우리 나라 유학생들을 위해 별도로 제정한 ‘조선국유학생수업규정’(朝鮮國留學生修業規定)을 우리 학생들에게 알려달라고 친목회에 보내온 것을 우리 글로 번역해 무료로 실어준 것 같다. 왜냐하면 1896년 8월 25일자 친목회일기를 보면, “특별찬성원 마추야마 요시노리(松山溫德)씨는 현재 상선학교 교장을 맡고 있는데 특히 조선학생을 위해 상선학교 학과표(學課表)를 보내왔다”고¹⁰⁾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임원선보자’라는 제목의 뒷붙이를 보면, 평의원으로 최상돈(崔相敦)과 김낙환(金洛煥), 회장으로 홍석현(洪奭鉉), 부회장으로 안형중(安衡中), 간사로 오성모(吳聖模), 간참으로 변하진(卞河璉), 간독으로 김홍진(金鴻鎭)과 김동규(金東圭)를 선보(選補)했다고 공고하고 있으나 이들의 선보날짜는 밝혀놓고 있지 않다. 하지만 친목회일기를 보면, 1896년 4월 28일 “상오 8시 게이오의숙 구락부에서 개최한 임시회의에서 평의원들과 회장 및 부회장을 새로 뽑았다”고, 4월 30일 “상오 8시 권설사무소(權設事務所)에서 열린 위원회에서 간사·간참·간독들을 보궐(補闕)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셋째로 본회회원동정과 특별회원동정에는 1896년 4월부터 6월 말까지 본회원들과 특별회원들의 동정이 소개되어 있다. 넷째로 ‘찬성금’을 보면, 1896년 4월부터 6월 30일까지 사이에 특별찬성원 3명이 각각 3원씩 모두 9원을 기부했다고 하면서 그 기부자들의 성명을 밝혀놓고 있다.

다섯째로 기증서적, 매입서적, 매입신문을 살펴보면 《고쿠민노도모》(國民之友, 月3回刊), 《가테이잡지》(家庭雜誌, 月2回刊), 《와세다문학》(早稻田文學, 月2回刊), 《쥬오시론》(中央時論, 月2回刊), 《후진신보》(婦人新報, 月刊) 등의 잡지를 일본인들로부터 기증받았으며, 서적으로는 《법령전서》(法令全書) 64권을 박정수(朴廷秀)로부터 기증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타이요잡지》(太陽雜誌) 3권, 《닛봉풍속화보》(日本風俗畫報) 21권, 《소년세가이》(少年世界) 10권 및 《만국공법》(萬國公法) 8권, 《지구설략》(地球說略) 3권, 《신편물리학》(新編物理學) 2권, 《기하학》(幾何學) 3권, 《조선혁신택》(朝鮮革新策) 1권, 《인도개국기필》(印度開國記筆) 1권을 매입했다고 한다. 또한 《니혼신문》(日本新聞), 《고쿠민신문》(國民新聞), 《지지신보》(時事新報),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 《도쿄니치니치신문》(東京日

10) 《親睦會會報》, 제4호(1897. 3. 24 발행), p. 88.

日新聞), 《한성신보》(漢城新報) 등 모두 6종의 신문을 매달 구독했다고 한다. 그러나 6월 28일자 친목회일기를 보면, “오늘 위원회에서 결의하기를, 신문 매입 6처(處) 중 닛봉, 고쿠민, 요미우리 3처는 별무긴요(別無緊要)하므로 7월부터 폐지하고 한성, 지지, 도쿄 3처만 예전처럼 매입할 것을 의결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끝으로 출납보고에서는 1896년 4월부터 6일까지 3개월간의 수입금과 지출금의 내역을 자세히 밝혀놓았는데, 수입금을 보면 회비 47원 16전 2리, 기부금 9원 등과 이월금 245원 69전 7리를 포함하여 총계가 329원 57전 9리로 되어 있다. 반면, 지출액은 모두 96원 11전인데 그 내역을 보면 《회보》 제2호의 출판비가 50원, 서적 매입대가 4원 79전, 신문매입대가 5원 5전, 통신비가 3원 8전 5리 등으로 나와 있다.

4. 第3號의 發行部數와 配布狀況

위와 같은 내용의 제3호는 창간호와 제2호보다 200부가 적은 300부를 발간했는데, 제4호에 실려 있는 1896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의 친목회 “출납보고”에서 지출란을 보면, “第三號會報三百部代價(小費並) 六十壹圓五十錢五厘”라고 기록되어 있다. 제3호를 창간호와 제2호보다 200부나 줄여 300부만 발간한 이유는 아마도 경비문제였던 것 같은데, 친목회는 1896년 2월 28일 회계 이범수(李範壽)가 저축금과 운영비 등 모두 450여 원을 훔쳐 미국으로 도망함으로써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간에 많은 회원들이 귀국 회원수가 줄었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1895년 4월부터 1896년 1월까지 게이오의숙에 파견했던 모두 190여 명의 관비유학생들 중에서 1896년 6월 말까지 귀국자만도 100여 명에 달했으며, 또한 8명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1896년 6월 말경에는 77명만 남았다고 아베 요(阿部洋)는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阿部洋, 1976, p. 26).

제3호도 역시 친목회 회원과 찬성원들 뿐만 아니라 모국에까지 배포했는데, 1896년 10월 26일자 친목회일기를 보면 “회보 제3호를 회원 및 찬성원들의 제처(諸處)에 분송(分送)했으며, 본국(本國)의 각부(各部)와 각 학교에는 차후에 편의에 따라 발송하기로 정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독립신문》 11월 7일자(제93호) 1면의 ‘잡보’란을 보면 “일본 잇는 조선 생도 친목회 회보 데삼호가 독립신문사에 왔는데……”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모두 몇 부를 모국

에 배포했는지는 그에 관한 기록을 찾지 못해 알 수 없으나, 아마도 100부 이상 보냈을 것으로 추측된다. 왜냐하면 앞서 제2호는 150부를 보냈으며, 제3호의 발행 당시 친목회 회원들과 찬성들은 모두 합쳐 100여 명에 불과했으나, 300부를 발간한 것을 보면, 이는 모국에 100부 이상을 보내기 위해서였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어떻든 제3호도 모국에 배포했고, 《독립신문》에서 제3호의 내용도 자세히 보도함으로써 모국의 많은 사람들이 《회보》에 관하여 알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위에서 말한 11월 7일자 《독립신문》을 보면, 제1면 ‘잡보’란의 첫머리 기사를 통하여 “일본 잇는 조선 생도 친목회 회보 데삼호가 독립신문사에 왔는디 열두 사람이 가각 논설을 호야 몇장식 기록들을 호얏고 또 그중에 혹 시도 잇고 그중에 논보라 호고 조선 신문도 기록호며 외보라 호고 세계 각국에 요긴호 신문들을 번역호야 기록호였스며 또 회중 일도 기록호였는디 조선 학도들이 이런 칩에다가 논설을 지어 일년에 네번식 이리케 기지호는거슨 학문상에도 유조호고 또 심각이 차차 넓어져 일 후에 국가에 유조호 사람들이 될듯호더라”고 보도하고 있다. 또한 같은 날짜 제4면 영문판 *The Independent*의 “Exchanges”란에서도 제3호의 내용과 그 필자들을 자세히 소개했다. 따라서 《회보》를 직접 보지 못한 모국의 많은 동포들도 그 내용을 알게 되고, 또한 이러한 잡지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회보》는 모국에서 잡지가 나오도록 만드는 데도 하나의 자극제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독립신문》이 1896년 11월 7일 《회보》 제3호에 관하여 소개한 13일 뒤인 11월 20일 우리 나라 땅에서도 《대조선독립협회회보》라는 잡지가 처음으로 창간되어 잡지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IV. 編輯·組版 體裁 등의 革新과 第4號의 發刊

1897년 3월 24일 친목회는 또 《회보》 제4호를 발행했는데, 이처럼 제4호가 제3호의 발행(1896년 10월 23일) 이후 5개월 뒤에야 나오게 된 것은 친목회의 경비 부족으로 제4호부터는 그 발행 간격을 종래의 3개월에서 6개월로 고치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한 친목회는 《회보》의 발간비를 줄이기 위하여 조판체제도 변경했다. 동시에 《회보》의 편집방침도 바꾸어, 제4호부터는 그 주목적과 주기능을 학문의 발달에 두게 됨으로써, 《회보》가 회원들의 동정을 주로 알리는 단순한 회보(會報)

내지 회지(會誌)에서 벗어나서 일종의 학술지(學術誌)로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표지와 앞붙이 등도 개선하는 등 여러 가지 혁신을 단행, 《회보》는 외양적으로도 더욱 근대적 잡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데, 우선 제4호에 나타난 주요 변화들부터 간단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第4號부터 《會報》의 革新과 變化의 주요 內容

첫번째로 주요 변화의 하나는 방금 위에서 말했듯이 《회보》 발행기간을 제4호부터 6개월로 고쳤으며, 또한 조판체제도 변경한 것이었다. 이는 친목회의 재정적 어려움 때문이었는데, 왜 이처럼 친목회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지는 《회보》에 구체적으로 밝혀놓고 있지 않으나, 아마도 1896년 2월 28일 회계 이범수(李範壽)가 친목회 저축금과 운영비 등 모두 450여 원을 훔쳐 미국으로 도망했으며, 또한 그간에 많은 회원들이 귀국, 회원수가 줄게 되어 회비 수입도 감소되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1) 發行間隔을 6個月로 바꾸고 組版體裁도 變更

《회보》의 발행기간을 6개월로 고치기로 결정한 것은 1896년 12월 5일 제26회 위원회에서였는데, 이 날짜의 친목회일기를 보면 제26회 위원회에서 “본회 경비의 부족[不贍]으로 《회보》의 발간기간을 6개월에 1차적으로 임시로 정하되 만약 본회의 유지금(維持金)이 잉족(剩足)하게 되면 예전처럼 [3개월에 한 번씩] 발간하기로 의결했다”고 기록되어 있다(《親睦會會報》 제4호, p. 93). 또한 제4호 앞붙이 둘째 쪽에 실려 있는 “친목회임시광고”라는 제목의 사고(社告)를 보면 “폐회(弊會)는 규칙 제28조를 의(依)하야 3개월 1회씩 발간하야 내외유지(內外有志) 제씨(諸氏)에 공람(供覽)하더니 근경(近頃)에 지(至)하야 유지금(維持金) 불섬(不贍)함을 인(因)하야 임시개의(臨時開議)하고 6개월 1회씩 발간하기로 권정(權定)하얏스나 단(但) 유지금 인족(認足)할 시(時)는 의전(依前) 발행할터이니 폐회에 향하야 애고(愛顧)하시든 제씨(諸氏)는 차(此)를 양존(諒存)하시옵”이라고 공고하고 있다.

한편 《회보》의 조판체제를 변경한 것도 발간비를 줄이기 위해서였는데, 제4호의 앞붙이 둘째 쪽에 실려 있는 “인쇄제도(印刷制度)의 개량(改良)”이라는 공고를 보면 “본회회보는 지수감입(紙數減入)하는 기분(幾分)의 경비를 위하야 제4호부터 인쇄제

도를 개량함”이라고 밝혀놓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볼 때, 조판체재의 변경은 물론 지면의 쇄신(刷新)에도 목적이 있었겠지만, 더 큰 이유는 제한된 지면에 더 많은 원고를 실어 《회보》의 출판경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제4호부터는 조판체재를 어떻게 바꾸었는가? 제3호까지는 1단 종조(縱組)에 1행(行)의 자수(字數)가 35자, 1면의 행수(行數)는 14행으로 되어 있었으나 제4호부터는 2단 조판(段 사이)에 段柱를 삽입)에 1행의 자수는 22자, 행수는 21행으로 바꿨으며, 행간(行間)도 전호(前號)들보다 좁혔다.¹¹⁾ 그리하여 제3호까지는 1면에 모두 490자가 들어갔었으나, 제4호부터는 924자가 들어가게 됨으로써 각 쪽에 거의 2배에 가까운 원고를 더 싣게 되었다.

그 결과, 제4호의 본문기사들은 모두 100쪽으로서 앞서의 호(號)들에 비하여 쪽수는 가장 적었지만 실제 분량은 전호(前號)들에서의 189쪽에 해당되는 분량으로서,¹²⁾ 제2호보다는 적었으나 창간호와 제3호보다는 결코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출판비는 전호들에 비해 많이 경감되었는데, 제1호는 본문 160쪽짜리 500부 발간에 70원 93전 9리, 제2호는 270쪽짜리 500부 발간에 99원 35전 5리, 제3호는 135쪽짜리 300부 발간에 61원 50전 5리가 들었으나, 제4호는 전호들의 조판체재로는 189쪽에 해당되었으나 500부 발행에 45원 3전 5리밖에 들지 않았다. 따라서 목적했던 대로 조판체재의 변경을 통하여 출판경비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 그리하여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회보》를 계속 발간할 수 있었다.

2) 《會報》發行의 1차적 目的을 學問上 發達로 變更

둘째로 제4호부터 나타난 또 하나의 큰 변화는 《회보》 발행목적의 변경이었는데, 앞붙이에 실려 있는 《회보》에 관한 안내의 글을 보면, 제3호까지는 그 발행목적은 주로 회원들 “피아의 사정을 통하여 친목을 돈후히 하고 겸하여 지식을 교환함”이라고 밝혀놓았었다. 그러나 제4호부터는 아래와 같이 “본회 회보 발행의 주의(主意)는 학문상 발달과 회원동정에 기관(機關)됨”이라고 고쳐놓고 있다.

11) 제3호까지의 行間은 5호 2分 4分으로 되어 있었으나, 제4호부터는 5號 4分으로 바꾸었다. 하지만 본문 활자의 크기는 前號들과 마찬가지로 5號를 사용했으나, 活字體는 바꾸었는데, 제3호까지는 오늘날의 見明朝體와 비슷했으나 제4호부터는 新明朝體와 비슷한 것으로 바꾸었다.

12) 前號들에서는 1면의 行數는 14行, 1行의 字數는 35字였으므로 1면의 總字數는 490字였으나, 제4호부터는 2段組版에 1行 字數는 22字, 行數는 21行이므로 1면의 總字數는 924字임. 따라서 제4호 100쪽의 總字數는 9만 2,400字가 되는데, 이를 前號들에서 1면의 總字數인 490字로 나누면 곧 188.5쪽이다.

[제3호까지 《회보》의 발행목적과 배포대상]

- 一. 本會會報 發行의 目的은 吾人이 他邦에 留學호되 遠近에 僑住호야 容音이 落落 흔지라 此를 以호야 彼我的 事情을 通호야 親睦을 敦厚히 호고 兼호야 智識을 交換을 위함이라.
- 一. 本會會報는 規則 第六節 第一條를 依호야 三個月 一回式 發行호야 此를 本會會員及特別會員과 通常贊成員及特別贊成員에 進呈함을 위함이라.

[제4호부터 《회보》의 발행목적과 배포대상]

- 一. 本會會報 發行의 主意는 學問上 發達과 會員動靜에 機關됨을 以호야 三個月에 一回式 發刊호야 此를 會員及內外有志諸氏에게 供覽함.

이처럼 제4호부터 《회보》 발행의 주목적을 “학문상 발달”에 두고, 회원들 간의 동정을 알리는 것은 부차목적으로 삼기로 변경한 것은 친목회 자체의 기본목적은 회원들 간의 친목에서 학문상의 발달로 한 걸음 더 발전시키기로 했기 때문이었는데, 제4호 앞붙이에 실려 있는 “친목회광고”를 보면 “본회는 금회(今回)에 규칙제조(規則調製)와 사무방편(事務方便)에 대개정(大改正)을 가(加)호고 오배장년(吾輩壯年)에 학술본무(學術本務)를 일신경(一新境)에 확립(確立)호고자 호기로” 했다고 밝혀놓고 있다(《親睦會會報》 제4호 앞붙이 3쪽).

바로 이러한 결정에 따라 《회보》의 발행목적도 제4호부터는 학문 발달에 1차적 목적을 두고, 회원들의 동정을 알리는 것은 부차적 목적으로 삼게 됨으로써, 《회보》가 회원들의 동정을 주로 알리는 단순한 회보 내지 회지(會誌)에서 벗어나 일종의 학술지로 발전하게 되었다.

셋째로 제4호부터는 《회보》의 배포범위도 “내외유지”까지로 확대했는데, 위에서 언급했듯이 제3호까지는 “본회 회보는 규칙 제6절 제1조를 의(依)호야 3개월 1회씩 발행호야 차(此)를 본회 회원 및 특별회원과 통상찬성원 및 특별찬성원에 진呈(進呈)함을 위함이라”고 《회보》의 배포 범위를 “본회 회원 및 특별회원과 통상찬성원 및 특별찬성원”에 국한했다. 그러나 제4호부터는 “차(此)를 회원 및 내외유지 제씨(諸氏)에게 공람함”이라고 하여 “내외유지”까지로 확대했는데, 이는 제3호까지는 《회보》 발간의 주목적을 회원들의 동정을 알리는 데 두었으나, 제4호부터는 학문의 발달에 두기로 변경한 것에 따른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3) 編輯方針도 바뀌 講演欄 등을 新設

넷째로 제4호부터 나타난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회보》의 편찬원칙의 개정과 그에 따른 편집체제의 변경이었다. 이는 위에서 말했듯이, 제4호부터 《회보》발행의 제1차적 목적을 학문의 발달에 두게 되자 그에 맞게 편찬원칙도 바꾸게 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4호 앞붙이에 실려 있는 “친목회광고”라는 제목의 공고에서 새로 밝힌 “회보편찬약칙”(會報編纂略則)을 소개해 보면 아래와 같다(《親睦會會報》제4호, 앞붙이 3쪽).

會報編纂略則(親睦會廣告)

本會는 今回에 規則調製와 事務方便에 大改正을 加하고 吾輩壯年에 學術本務를 一新境界에 確立하고자 玆로 自今本會에 機關된 會報와 規則及補則中에 可讀할 文字와 可考할 事蹟이 頗多호오니 內地에 壯年學生及有志諸士中에 此를 願覽購讀호는 者는 本會事務所에 通報호시옵

會報編纂略則

- 一. 社說: 社會上利益호 言論을 建白호
- 一. 論文: 學問研究上 一部分을 專指違言호
- 一. 寄附書: 本邦人及外國有志에 意見書도 請求호야 本國國文으로 譯載호
- 一. 文苑: 志士의 述懷와 外邦山川賞景及風俗을 形喻호
- 一. 講演: 玆에 吾人이 各專門에 就호야 各學問을 修함에 分호則 一個人學業이 오호호則 社會上全體文明이라 此를 以호야 每月通常會에 幾員式 豫定호야 自分에 實地修學호는마 醫學 化學 工學 農學 兵學 法律學 政治 經濟學 等を 講演으로 設호야 會報에 被載호터이니 此를 合編호則 各 教科書目이라 人物 養成호는 方法에 間接利益이 不少호
- 一. 內外報: 萬國 今日에 政教如何호과 國勢如何호과 四民의 如何호을 脈絡相接호야 記호
- 一. 雜報: 國家의 發達과 個人의 事業을 讚揚호야 何人이던지 此等事件을 記호야 本會事務所에 投寄호則 編載호
- 一. 會中記事: 本會의 動靜을 記호

바로 이와 같은 편찬원칙 내지 방침에 따라 제4호부터는 그 편집체제도 일신했는데, 특히 새로운 변화의 하나는 기부서(寄附書) 즉 “본방인(本邦人) 및 외국의 유지

(有志)에 의견서(意見書)도 청구(請求)해야 본국문(本國文)으로 [회보에] 역재(譯載)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회보》에 강연(講演)란을 신설하고, 매달 통상회에서 회원들 중에서 몇 명씩 연구발표를 하게 하여, 그 내용을 강연란에 게재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4호를 보면, 강연란이 없으며, 제5호부터 새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시일관계로 제4호에 미처 강연란을 설치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렇지만 친목회에서는 매달 열린 통상회에서 회원들이 몇 명씩 학술강연을 하도록 했다.

4) 表紙와 앞붙이·뒷붙이도 여러 가지로 變更

다섯째로 제4호부터는 앞표지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제3호까지는 “親睦會會報”라는 한자제호(漢字題號)만을 명조체 활자로 표지 중앙에 세로로 인쇄해 놓았으나, 제4호부터는 제호를 붓글씨로 써서 동판 컷을 만들어 인쇄했다. 또한 이러한 한자 제호 이외에 “친목회, 회보”라는 한글 제호도 새로 표지 상단에 가로로 넣었는데, 이 한글 제호도 역시 붓글씨로 써서 동판인쇄했다. 한편 한자 제호 왼쪽에 세로로 인쇄해 넣은 편찬자 이름도 제3호까지는 “大朝鮮人日本留學生親睦會編纂”으로 되어 있었는데, 제4호부터는 “大朝鮮留學生親睦會編纂”으로 바뀌었다.¹³⁾ 그리고 이러한 편찬자 명칭과 “建陽元年十二月發行”이라는 발행날짜 및 “第四號”라는 호수의 활자체도 제3호까지는 오늘날의 건명조체(見明朝體)와 비슷한 활자로 인쇄했었으나, 제4호부터는 신명조체(新明朝體)로 바뀌었다. 그러나 표지의 바탕 그림은 종래와 마찬가지로 세계약도를 그대로 넣었다.

여섯째로 제4호부터는 앞붙이에도 몇 가지 변화가 보이고 있는데, 종래에는 앞붙이로 목차, 《회보》에 관한 안내의 글, 친목회 회지(會旨) 및 화보만 실었으나 제4호부터는 친목회의 여러 가지 공고(公告)들도 실기 시작했으며, 이들 앞붙이에 별도의 쪽 번호를 붙였다. 그러나 제3호까지는 표지 다음에 삽입했던 화보(사진)들을 제4호부터는 넣지 않았는데, 1896년 11월 1일자 친목회일기를 보면 이날 열린 제18회 통상회에서 회장 홍석현이 “회보 제4호 출판시에 사진 삽입을 의정(議定)할 것”을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11월 11일 개최된 임시회의에서 회장이 신해영(申海永)

13) 이렇게 바꾼 것은 혹시 친목회 자체의 명칭을 “大朝鮮留學生親睦會”로 변경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어 친목회일기 등을 샅샅이 찾아보았으나 친목회의 명칭을 변경했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왜 위와 같이 “大朝鮮留學生親睦會編纂”으로 바꾸어놓았는지는 알 수 없다.

으로 교체된 뒤, 22일에 열렸던 위원회의 결의사항을 보면 “회보 제4호를本月 29일(일요일) 편찬하여 입재(入梓)하는데, 단 사진 삽입은 경비가 부족한 관계로 넣지 않는다”고 결의했다고 기록되어 있다(《親睦會會報》, 제4호, p. 93).

끝으로 제4호부터는 뒷붙이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는데, 제3호까지는 뒷붙이로 친목회에 관한 여러 가지 소식들, 예컨대 개선한 임원들의 명단, 회원들의 동정, 신입회원들의 명단 등을 게재했다. 그러나 제4호부터는 이러한 것들을 본문기사 말미의 “회중기사”(會中記事)란에 넣었으며, 뒷붙이에는 찬성금(贊成金) 기부자의 명단과 금액, 친목회에서 기증받은 서적과 매입한 서적·신문들의 목록 및 결산보고서만 실었다.

2. 第4號의 실제 發行날짜와 印刷날짜

위와 같이 내용적 및 외양적으로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된 《회보》 제4호는 1897년 3월 24일 발행했는데, 판권장의 간기(刊記)를 보면 “건양 2년 3월 24일, 명치 30년 3월 24일 발행”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표지에는 “건양 원년 12월 발행”(建陽元年十二月發行), 즉 1896년 12월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앞서 제2호나 제3호와 마찬가지로 창간호 표지에 “개국 504년 10월 발행”(양력 1895년 11월 16일~12월 15일 사이)이라고 밝혀놓았던 본래의 창간예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렇게 표시한 것이며,¹⁴⁾ 제4호의 실제 발행날짜는 판권장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1897년 3월 24일이었음이 분명한데, 이 날짜 친목회일기를 보면 “본회 회보 제4호 출판래도(出版來到)”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親睦會會報》 제5호, p. 173).

한편 제4호의 인쇄날짜를 보면 판권장에는 “건양 원년 12월 31일, 명치 29년 12월 31일 인쇄” 즉 1896년 12월 31일 인쇄로 되어 있다. 그러나 1896년 11월 22일자 친목회일기를 보면 이날 개최한 위원회에서 “회보 제4호를本月 29일, 일요일에 편찬, 입재(入梓)한다”고 의결(議決)했다고 기록되어 있다(《親睦會會報》 제4호, p. 93). 따라서 이를 볼 때 1896년 11월 29일 제4호의 편집을 완료하고 인쇄에 부쳤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 날짜 친목회일기를 보면 그에 관한 아무런 기록이 없으며, 이듬해 1월 17일자 친목회일기에 이날 편집원 회의를 열고 제4호 회보를 편찬했다고 기록되어 있다(《親睦會會報》 제5호, p. 170). 따라서 이를 볼 때 실제로

14) 앞서 제2호와 제3호의 표지에 표시되어 있는 발행날짜에 관한 설명 참조.

제4호의 편집은 1897년 1월 17일에 했던 것이 확실한데, 그렇다면 왜 편집도 끝나기 전인 1896년 12월 31일 인쇄라고 판권장에 기재했을까? 그 이유는 판권장의 인쇄날짜도 실제 인쇄날짜와는 관계 없이 제1호의 인쇄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표기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¹⁵⁾ 그렇다면 제4호의 실제 인쇄날짜는 언제였는가?

실제 인쇄날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1897년 1월 17일자 친목회일기에 이날 편집원 회의를 열고 제4호 회보를 편찬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으며, 또한 2월 5일자 일기를 보면 이날 열린 제28회 위원회에서 “본회 회보 제4호는 현재 이미 입재(入梓)한 후 사안(查案)을 추가하여 500부로 정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음을 볼 때, 제4호의 인쇄는 1월 하순에 시작되었던 것 같다. 그리하여 약 두 달 만에 인쇄와 제본이 모두 끝나자 3월 24일 제4호가 친목회에 넘겨졌음을 알 수 있는데, 이 날짜 친목회일기를 보면 앞서 말했듯이 “본회 회보 제4호 출판래도(出版來到)”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3. 第4號의 發行 兼 編輯者와 編纂員 및 印刷人

다음으로 제4호의 발행인과 편집인을 보면, 제3호와 마찬가지로 김용제(金鎔濟)가 ‘발행겸편집자’로 판권장에 기재되어 있다. 제4호의 발행 겸 편집자를 다시 선출했으나 또 김용제가 맡게 된 것 같다. 왜냐하면 1896년 11월 16일자 친목회일기를 보면, 이날 “위원회를 개최, 회사(會事)를 결의했는데 편찬원을 4명, 발행인을 1명으로 정하고, 편찬원으로는 김용제·유창희(劉昌熙)·조제환(趙齊桓)·원응상(元應相)을, 발행인으로는 김용제를 추천했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親陸會會報》 제4호, p. 92). 따라서 이를 볼 때 1896년 11월16일에 열렸던 위원회에서 김용제가 제4호의 발행인으로 다시 추천되어 제4호 판권장에 발행 겸 편집자로 기재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제4호부터는 판권장에 발행소(發行所)도 기재되어 있는데, 발행소는 “친목회

15) 왜냐하면 판권장에 기재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인쇄날짜들을 보면, 제1호는 開國五百四年十月十六日印刷(양력으로는 12월 2일)로, 제2호는 “建陽元年三月二十九日印刷”로, 제3호는 “建陽元年六月三十日印刷” 등으로 3개월 간격으로 되어 있으며, 제4호는 제3호 인쇄날짜로부터 6개월 뒤인 “建陽元年十二月三十一日印刷”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제4호부터 6개월마다 발행하기로 결정했으므로 제4호 인쇄날짜는 1896년 12월 31일로 표기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5호와 제6호의 인쇄날짜도 역시 6개월 간격으로 표기되어 있다. 즉 제5호 인쇄날짜는 제4호 인쇄날짜로부터 6개월 뒤인 1897년 6월 30일로, 제6호는 제5호 인쇄날짜로부터 6개월 뒤인 1897년 12월 30일로 되어 있다.

권설사무소”(親睦會權設事務所)로 되어 있고, 그 오른쪽에 적혀 있는 주소는 “大日本東京神田區錦町二丁目五番地阿立館内”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볼 때, 친목회 사무실을 이곳으로 옮겼음이 확실한데 언제 옮겼는지는 모르겠으나 제4호 앞붙이 2쪽에 실려 있는 “사무소이정”(事務所移定)이라는 공고를 보면 “친목회사사무소를 금도(今度)에 일본동경(日本東京) 간다구(神田區) 니시키정(錦町) 2정목(二丁目) 5번지 아닛지관내(阿立館内)로 이장권설(移定權設) 하얏스오니 혜고(惠顧) 하시든 제씨(諸氏)는 착량(着諒) 하시옵”이라고 적혀 있다.

다음으로 제4호의 인쇄인을 보면, 앞서 제1호에서부터 제3호까지와 마찬가지로 역시 야마모토 에이지로(山本鏞次郎)로 되어 있으며, 인쇄소도 슈에이사(秀英社)였다. 또한 이들 인쇄인과 인쇄소의 주소에도 변함이 없었다.

끝으로 제4호의 편찬원들을 보면 판권장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1896년 11월 16일자 친목회일기를 보면 이날 “위원회를 개최, 편찬원을 4명, 발행인을 1명으로 정하고 편찬원에는 김용제·유창희·조제환·원응상을 추천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제4호부터는 편찬원을 4명으로 줄이고, 김용제·유창희·조제환·원응상을 편찬원으로 선출했음을 알 수 있는데, 제3호의 편찬원들은 모두 5명으로서 곧 신태영·김용제·안형중·조제환·박정수였다. 한편 편찬원들 이외에 신문과 잡지의 번역원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11월 16일 개최된 위원회에서 그대로 유임시키기로 결의했다고 친목회일기에 기록되어 있다.

4. 第4號의 編輯·組版 體裁와 주요 內容

위에서는 우선 제4호의 발행날짜와 발행 겸 편집자·인쇄인·편찬원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제4호에서는 어떠한 내용들을 주로 다루었으며 그 편집체제는 어떠한가?

앞서 언급했듯이, 제4호부터는 편집방침과 조판체제 및 내용 등에 여러 가지 혁신과 변화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표지와 앞붙이에도 몇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제4호의 편집체제와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보면 아래와 같다.

1) 앞붙이들의 內容과 그 몇 가지 變化

우선 앞붙이들부터 살펴보면, 표지 뒷면에는 종래와 마찬가지로 목차를 실었으며

다음 쪽에는 《회보》에 관한 안내의 글을 2단으로 나누어 실어놓았다. 그러나 《회보》에 관한 안내의 글을 보면, 제3호까지는 모두 7개 항목으로 되어 있었으나 제4호에서는 종래의 제1항과 제2항을 합치는 동시에 그 내용을 “본회 회보 발행의 주의(主意)는 학문상 발달과 회원동정(會員動靜)에 기관(機關)됨을 이(以)하여 3개월에 1회씩 발간하여 차(此)를 회원 및 내외유지 제씨(諸氏)에게 공람(供覽)함”이라고 고쳐놓았다.

한편 종래에는 앞붙이로 이상과 같은 목차와 《회보》에 관한 안내문 및 친목회 회지와 화보만 실었으나, 제4호부터는 친목회의 여러 가지 공고(公告)들도 실어놓았다. 이들 앞붙이는 모두 2단으로 세로조판을 했으며, 거기에 별도의 쪽수를 붙였는데 첫째 쪽에는 방금 위에서 소개한 《회보》에 관한 안내의 글이 실려 있다. 그리고 둘째 쪽 첫머리에는 “친목회회보 회지(會旨)”를 실어놓았으며, 그 다음에 모두 5개의 공고들, 즉 “친목회입시광고”, “투서제씨(投書諸氏)의 주의(注意)”, “인쇄제도의 개량”, “사무소이정(事務所利定) 이라는 제목의 공고들과 “정오”(正誤)라는 제목의 정정(訂正) 공고가 실려 있다.

그 다음 셋째 쪽에는 “친목회광고”라는 제목의 공고가 2단(세로조판)으로 나뉘어 실려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본회는 금회(今回)에 규칙제조(規則調製)와 사무방편(事務方便)에 대개정(大改正)을 가(加)하고 오배장년(吾輩壯年)에 학술본무(學術本務)를 일신경(一新境)에 확립(確立)하고자 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그에 따라 새로 개정한 “회보편찬약칙”(會報編纂略則)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앞서 이미 소개한 바와 같다.

2) 本文記事들의 編輯體裁와 주요 內容

위와 같은 앞붙이들에 이어 다음 쪽부터는 본문기사들이 실려 있는데, 이들에는 새로 1쪽부터 시작해서 쪽 번호를 붙여놓고 있다. 제4호의 본문기사들은 모두 100쪽으로서 앞서의 호(號)들에 비하여 쪽수는 적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제4호부터는 2단(종래는 1단)으로 조판했고, 행간(行間)도 전호(前號)들보다 좁혔다. 따라서 비록 4호의 쪽수(본문)는 100쪽이지만, 실제 분량을 계산해 보면 전호(前號)들에서의 189쪽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제2호보다는 적으나 창간호나 제3호보다는 그 분량이 결코 적지 않았다.

(1) 本文記事들의 構成體裁와 各 欄別 構成比率

제4호 본문 기사들의 편집체재는 앞서 제3호와 거의 마찬가지로, 잡보(雜報)란을 추가했으며,¹⁶⁾ 친목회일기와 기타 친목회 동정들을 “회중기사”(會中記事)라는 표제 아래 한데 묶어서 실어놓았다. 그리하여 본문기사들을 모두 8개 난(欄), 즉 사설·논설·문원·내보·외보·만국사보·잡보·회중기사로 나누어 그에 해당하는 기사들을 차례로 게재했다. 본문기사들의 총 건수(件數)는 115개인데, 이들을 우선 각 난(즉, 유형별)으로 나누어 그 건수(件數)와 지면량(紙面量)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표 5>와 같다.

<표 5> 제4호 본문기사들의 각 난별 구성비율

구 분	기사 건수(記事件數)				지면량(紙面量: 쪽수)			
	제 4 호		제 3 호		제 4 호		제 3 호	
	건수	백분율(%)	건수	백분율(%)	쪽수	백분율(%)	쪽수	백분율(%)
사설(社說)	1	0.9	1	0.8	3.7	3.7	5.6	4.2
논설(論說)	13	11.3	13	10.9	19.3	19.3	29.7	22.0
문원(文苑)	10	8.7	9	7.6	1.1	1.1	7.0	5.2
내보(內報)	6	5.2	5	4.2	9.9	9.9	6.7	5.0
외보(外報)	50	43.5	64	53.9	30.3	30.3	50.0	37.0
만국사보	11	9.6	26	21.8	3.6	3.6	28.0	20.7
잡보(雜報)	15	13.0	—	—	17.9	17.9	—	—
회중기사	9	7.8	1	0.8	14.2	14.2	8.0	5.9
합 계(合計)	115	100.0	119	100.0	100.0	100.0	135.0	100.0

* 제3호에서는 친목회일기가 별도의 난으로 되어 있었으나 제4호에는 회중기사에 포함시켰음.

<표 5>에서 보듯이, 본문기사들 중 외보가 50건(전체 본문기사 중 43.5%)에 30.3쪽(30.3%)으로서 건수와 쪽수에서 모두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외보 기사를 다시 나라별로 나누어보면, 일본이 22건(44.0%)에 16.8면(55.4%)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러시아로 12건(24.0%)에 4.8면(15.8)을 차지했는데, 이는 당시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그 세력을 크게 부식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한편 외보기사들과 비슷한 만국사보도 11건(전체의 9.6%)에 3.6쪽(전체의 3.6%)인데, 이들 만국사보

16) 雜報欄은 창간호에는 있었으나, 제2호와 제3호에서는 빠졌다가 다시 제4호에 설치했다.

와 외보를 합치면 외국관계 기사가 모두 61건으로서 전체 본문기사들 중 53.1%, 총 쪽수는 33.9쪽으로서 전체 쪽수의 33.9%를 차지하고 있다. 그 반면, 모국에 관한 기사들인 내보는 모두 6건(5.2%)에 9.9쪽(9.9%)으로 의외로 적어 건수에서는 7위를, 쪽수에서는 4위를 차지했다.

외보 다음으로는 잡보와 논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건수에서는 잡보(15건, 13.0%)가 두번째로 많으나, 쪽수로는 논설(19.3면, 19.3%)이 두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친목회의 동정에 관한 회중기사(會中記事)는 9건(7.8%)에 14.2면(14.2%)으로 건수에서는 여섯번째이나, 쪽수에서는 네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문원(文苑)란은, 비록 건수는 10건(8.7%)이나 쪽수는 1.1면(1.15)에 불과해 본문기사들 중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제4호의 본문기사들에서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점은 어문일치(語文一致)의 국한문혼용체 기사들이 대폭 증가했다는 것인데 논설 중에서 1건(張憲植, “送第二學期卒業諸君各就專門序”), 잡보에서 1건(“清俄兩國特訂和約”) 및 문원란에 실린 10수(首)의 한시(漢詩)들과 회중기사 중에서 친목회일기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기사들은 국한문혼용체로 쓰여져 있다. 하지만 문체는 아직도 한문투(漢文套)이며, 토씨(助詞)와 서술어미(敘述語尾) 등만 한글로 되어 있고, 띄어쓰기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쉼표와 마침표 등의 구두점들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비하면 문체가 많이 근대화되고 세련되었다.

(2) 社說·論說·文苑·內報欄 記事들의 주요 內容

제4호의 본문기사들을 각 난별로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로 사설란에는 원응상(元應常)의 “내외정책의 여하(如何)”라는 제목의 사설만 1편이 실려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영국이 청나라를 짓밟고 있는 것은 “영국은 만인(萬人)이 평의(評議)하여 일사(一事)을 성(成)하나 청국은 한 사람이 천단(擅斷)하여 만사(萬事)를 행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나라도 모든 일을 민주적으로 협의하여 시행하지 않고, 국왕이나 몇 사람이 독단하기 때문에 청나라와 같이 나라의 형편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 같다.

둘째로 논설란에는 모두 14편이 실려 있는데, 이들을 주제별로 나누어보면, 국가와 정치·외교 등에 관한 것이 4편(金基璋, “政治本原”; 金鎔濟, “國民의 信用”; 劉昌熙, “政治家의 職責論”; 南舜熙, “外交上如何”), 학문과 교육에 관한 것이 3편(李冕宇, “學問의 實行과 虛飾의 利害”; 李周煥, “晚覺論”; 張奎煥, “賴人處世豈非教育

之不振歟”), 충군애국(忠君愛國)과 국민의 단결을 촉구하는 것이 2편(鄭寅昭, “國家의 觀念”; 申佑善, “一心과 離心の 關係”), 유학생들의 면학을 촉구하는 것이 2편(全泰興, “時務之大要”; 張憲植, “送第二學期卒業諸君各就專門序”), 인생과 처세방법 등에 관한 것이 3편(洪奭鉉, “人生行路”; 趙齋桓, “處世自責”; 李周煥, “諭物論”)이다.

셋째로 문원란에는 모두 10수(首)의 한시(漢詩)들이 게재되어 있으나, 이들 중 3수는 회원인 권봉수(權鳳洙)가 쓴 것이고 나머지 7수는 주일조선공사관 서기이자 친목회 통상찬성원이었던 한영원(韓永源)이 특별기고를 한 것이었는데, 왜 이처럼 문원란의 참여자가 적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권봉수의 한시들을 보면 우국적(憂國的) 내용도 담겨 있지만 대부분 자신의 심정을 노래한 것들이다. 그리고 한영원의 한시들 중 4수는 일본의 명소(名所) 닛고(日光)를 돌아보면서 감회를 읊은 것들이며, 2수는 가을밤에 느낀 자신의 감회를 표현한 것들이다.

넷째로 내보란에는 모두 6건의 모국 소식과 자료들을 실어놓았는데 “개정지방제도반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1896년 4월, 칙령 제37호로서 반포한 새로운 지방관리직제(地方官吏職制)의 내용을, “호구조사규칙”(戶口調査規則)이라는 기사에서는 1896년 9월 6일 반포한 칙령 제61호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한편 “각지방공립소학교위치”라는 기사에서는 “학부(學部)에서 [1896년] 9월 17일 부령(部令) 제5호를 발(發)하여 지방공립소학교 위치 38처(處)를 여좌(如左)히 정함”이라고 하면서 그 38개 곳의 이름을 열거해 놓고 있다. 그리고 “각도(各道)의 병비위치(兵備位置)”라는 기사에서는 당시 우리 나라 군대의 주둔처와 병력 수를 소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서울 주둔 친위대(親衛隊) 2천 명을 포함, 전국의 총 병력 수가 겨우 7,400명이다. 그 다음 “포(浦鹽)과 북관(北關)의 관계”라는 기사에서는 두만강 연안지역의 형세(形勢)를 간략히 소개한 뒤, 노령(露嶺)의 포염(浦鹽) 등지에 건너가서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의 현황과 보호관리의 문제를 논하고 있다. 끝으로 “조선에 관한 일청(日淸)의 무역”이라는 기사에서는 1896년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일본과 중국 상인들에 의한 인천항에서의 수출입 현황과 그 증가추세를 소개해 놓았는데, 이는 일본 《지지신보》(時事新報)에서 인용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3) 外報·萬國事報·雜報·會中記事 들의 주요 內容

다섯째로 외보란에는 세계 열강들의 소식과 정세 등을 나라별로 나누어 실어놓았는데, 모두 50건(쪽수는 30.3쪽) 중 일본에 관한 것이 22건(외보기사들 중 44.0%)

에 16.8쪽(외보기사 전체 지면의 55.4%)으로서 가장 많다. 그 내용을 보면 일본의 국가예산에 관한 것이 2건, 외교에 관한 것이 2건, 군사관계 기사가 3건, 교육관계가 2건, 무역관계가 2건, 상업관계가 3건, 금융관계가 2건, 교통과 통신 관계가 3건, 식민지 대만에 관한 것이 2건, 기타가 1건이다. 일본 다음으로는 러시아(露西亞)에 관한 기사들이 12건(24.0%)에 4.8쪽(15.8%)이나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러시아의 정세와 동진(東進)정책에 관한 것을 비롯, 특히 러시아합대에 관한 것이 많으며 황제의 동정에 관한 것도 4건이나 된다. 한편 청국(淸國)에 관한 기사들도 6건(12.0)에 3.0쪽(9.9%)으로서 비교적 많은 편인데, 그 중에서 4건은 군사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2건은 중국정부의 재정과 서양 열강과의 마찰에 관한 것이다. 그 다음 영국(英吉利)에 관한 기사들도 6건(쪽수는 3.3쪽)이나 되는데, 주로 외교와 군사에 관한 것들이다. 끝으로 미국(亞米利加)에 관한 것은 4건에 2.4쪽인데, 이들 중 “샌프란시스코(桑港)와 동양의 상매(商賣)에 확장계획”을 제외하고는 우리 나라와 직접적 관계가 적은 미국 내부분제에 관한 것들(“大統領의 選舉”, “北美合衆黨의 黨議”, “紐育州의 富豪”)이다.

여섯째로 만국사보(萬國事報)란에는 위의 외보에서 다루지 않은 기타 여러 나라 소식들과 국제적 뉴스들 및 참고자료 등 모두 11건의 기사들이 3.6쪽에 걸쳐 실려 있다. 그 내용들을 보면 멕시코에 관한 기사가 1건(“墨西哥의 大鐵道를 貸與함”)이며, 국제적 뉴스가 2건(“太平洋에 郵船沈沒”, “濠洲에 日本人勞動者”), 흥미거리 소식이 6건(“百歲以上之人”, “世界第一의 合資會社”, “地球의 振動試驗”, “世界中最輕快한 水雷艇”, “獨逸에 新軍用風船”, “露國皇帝와 佛國”), 참고자료가 2건(“官私立造船所製艦費比較”, “地球上未開地の 面積”)이다.

일곱째로 잠보란에는 모두 15건의 각종 기사들이 17.9쪽에 걸쳐 게재되어 있는데, 그 중 9건은 외국관계 소식이며 나머지 6건은 모국에 관한 소식이다. 모국에 관한 것들을 보면 “조선에 독립문”, “조선에 독립신문”, “조선에 은행창립”, “조선에 교육공능(教育功能)”, “조선에 학도의복(學徒衣服)의 신장(新章)” 등의 제목으로 모국의 여러 가지 소식들을 소개하고,¹⁷⁾ 또한 “건양원년중요기사”(建陽元年重要記事)라는 제목 아래 1896년 1월 2일부터 12월 28일까지 모국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을 날짜별로 간단히 요약해 놓고 있다.

17) 《會報》에서는 《독립신문》에 관하여 앞서 제3호의 內報에서 “獨立新聞의 發刊”이라는 제목으로 그 창간을 보도한 바 있으나 제4호에서 또다시 “朝鮮에 獨立新聞”이라는 기사를 통하여 소개했다.

끝으로 회중기사(會中記事)란에는 189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의 친목회일기와 “임원개선급신천자”(任員改選及新薦者), “보통졸업자”(普通卒業者)¹⁸⁾ “통상회원동정”, “특별회원동정”, “신입통상회원”, “신입특별회원”, “신입통상찬성원”, “신입특별찬성원”의 명단 등이 모두 14.2쪽에 걸쳐 실려 있다.

3) 뒷붙이들의 주요 內容과 몇 가지 變化

위와 같은 본문기사들에 이어 뒷붙이로는 “찬성금”(贊成金), “기증서적”, “매입서적”, “매입신문” 및 “출납보고”(出納報告)가 모두 3쪽에 걸쳐 실려 있는데, 제3호에서는 이런 것들 이외에 친목회 각종 공고, 임원선보자(任員選補者) 명단, 회원과 특별회원의 동정 등도 뒷붙이로 실었다. 그러나 제4호에서는 친목회 공고 등은 앞붙이에 실었으며, 임원선보자와 회원들의 동정 등은 본문기사의 말미에 게재했다. 한편 제3호까지는 뒷붙이에 별도의 쪽 번호를 붙이지 않았으나 제4호부터는 별도의 쪽 번호를 붙여놓고 있다.

첫째로 “찬성금”이라는 제목의 뒷붙이에는 189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의 찬성금 기부자들의 명단과 그 금액이 실려 있는데, 통상찬성원들 중에서는 이하영(李夏榮)이 30원, 고희경(高羲敬)이 10원, 이필영(李弼榮)이 5원을 기부했다. 그리고 일본인 특별찬성원들 중에서는 모두 41명이 기부금을 냈는데, 30원을 낸 사람이 2명, 15원을 낸 사람이 1명, 10원을 낸 사람이 8명, 5원을 낸 사람이 5명, 3원을 낸 사람이 7명, 2원을 낸 사람이 14명, 1원씩 낸 사람이 3명, 50전을 낸 사람이 1명으로 전체 금액은 228원 50전이다.

둘째로 “기증서적”에는 189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친목회에서 기증받은 서적들의 목록과 기증자들이 실려 있다. 그 내역을 보면 한영원(韓永源)이 《상업강의록》(商業講義錄) 2권을 비롯해 모두 4권을 기증했으며, 홍석현(洪奭鉉)이 《조선삼항무역총설》(朝鮮三港貿易叢說) 등 3권을 기증했고, 일본인들이 1권의 책, 《西鄉隆盛傳》과 9종의 잡지 즉 《고쿠민노도모》(國民之友, 月3回刊), 《가데이잡지》(家庭雜誌, 月2回刊), 《와세다문학》(早稻田文學, 月2回刊), 《메이지평론》(明治評論, 月刊), 《주오시론》(中央時論, 月2回刊), 《후진신보》(婦人新報, 月刊), 《리쿠고잡지》(六合雜誌, 月刊), 《규세이》(救世, 月刊), 《쥬쿠유》(塾友, 慶應義塾塾友社

18) 1896년 7월 30일 제2학기말 慶應義塾 普通科를 졸업한 45명의 관비유학생들과 12월 31일 제3학기말 역시 게이오의숙 보통과를 졸업한 20명의 관비유학생들의 명단이다.

발행, 月刊)와 2종의 신문(《國民新聞》, 《讀賣新聞》)을 기증했다.

셋째로 “매입서적” 목록을 보면 잡지 《타이요》(太陽) 12권, 《닛봉풍속화보》(日本風俗畫報) 1권, 《도요가쿠게이잡지》(東洋學藝雜誌) 1권을 매입했다. 넷째로 “매입신문” 목록을 보면, 《독립신문》, 《한성신보》(漢城新報), 《지지신보》(時事新報), 《도쿄니치니치신문》(東京日日新聞)을 매입했다. 이러한 신문과 잡지들을 매입한 것은 회원들이 회람하는 한편, 《회보》의 편찬자료로 이용하기 위해서였는데 《회보》에 실려 있는 기사들을 보면 주로 위와 같은 신문과 잡지들에서 전채하거나 발췌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출납보고”에는 1896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 6개월간 친목회의 수입금과 지출금의 내역이 실려 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수입금은 모두 595원 10전 9리였고, 지출금은 253원 6전 2리로 되어 있다. 따라서 342원 4전의 흑자를 보았는데,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회보》의 발행간격도 늘이고 조판체제도 바꾸는 등 그 발간비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5. 第4號의 發行部數와 配布對象 및 配布狀況

끝으로 제4호의 발행부수와 배포상황을 보면, 앞서 제3호는 300부를 발행했으나, 제4호는 창간호나 제2호와 마찬가지로 다시 500부를 발행했는데, 1897년 2월 5일자 친목회일기를 보면 이날 열린 제28회 위원회에서 “본회 회보 제4호는 현재 이미 입재(入梓)한 후 사안(查案)을 추가하여 500부로 정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제5호의 말미에 실려 있는 친목회 출납보고서(1897년 1부터 6월 말까지)를 보면 지출난에 “회보 제4호 500부대(代) 45원 3전 5리”라고 적혀 있다.

이처럼 제4호를 다시 500부로 늘려 발행한 것은 앞서 《회보》에 관한 안내의 글에서 보았듯이 제4호부터는 《회보》 발행의 주목적을 학문의 발달에 두고, 회원들의 동정을 알리는 것은 부차목적으로 변경하면서 그에 따라 《회보》의 배포범위도 친목회 본회원과 특별회원 및 통상찬성원과 특별찬성원 등에 국한하지 않고, 내외유지제씨(內外有志諸氏)에게까지 확대했기 때문인 것 같다.

왜냐하면 1897년 2월 5일 제28회 위원회에서 제4호의 발행부수를 결정할 당시 친목회 회원들은 약 100여 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00부를 발행하기로 의결한 것을 보면 내외유지제씨들에게도 널리 배포하기 위해서였다고 볼 수 있

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외유지제씨’가 구체적으로 누구들을 지칭하는지 모르겠는데, 제4호 앞붙이에 실려 있는 “회보편찬약칙”(會報編纂略則)의 첫머리를 보면 “내지(內地)에 장년학생급유지제사(壯年學生及有志諸士) 중에 차(此)를 원람구독(願覽購讀)하는 자(者)는 본회 사무소에 통보하시옵”이라고 적혀 있음을 볼 때 당시 일본에 체류하고 있던 우리 나라 사람들 중 친목회 회원이나 찬성원이 아닌 사람들을 지칭했던 것 같다. 그러나 내지유지제씨(內地有志諸氏)라고 하지 않고 “내외유지제씨”라고 한 것을 보면 모국의 “유지제씨”도 포함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따라서 제4호를 다시 500부로 늘려서 발행했던 것 같은데, 당시 재일한인(在日韓人)들의 수가 유학생들을 포함하여 모두 155명 정도였음(森田芳夫, 1955, p. 4)에도 불구하고, 500부를 발행했다는 것은 모국에도 배포하기 위해서였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국에 몇 부를 보냈는지는 그에 관한 기록을 찾지 못하여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상당히 많은 부수를 모국의 정부 각 부처나 각 학교 등에 배포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제4호의 내용에 관해서도 《독립신문》이 1897년 4월 8일자 제1면 전체를 할애한 “론설”을 통하여 자세히 소개함으로써,¹⁹⁾ 비록 《회보》를 직접 읽지 못한 모국의 많은 동포들도 그 내용을 알게 되었다.

한편 제4호는 일본에 체류하고 있던 우리 나라 일반인들에게도 배포했으며 이들에게는 유료로 배포했는데, 앞붙이에 실려 있는 “회보편찬약칙”을 보면 “내지(內地)에 장년학생급유지제사(壯年學生及有志諸士) 중에 차(此)를 원람구독(願覽購讀)하는 자(者)는 본회 사무소에 통보하시옵”이라고 요망하고 있다. 또한 1897년 3월 28일자 친목회일기를 보면 이날 열린 제30회 위원회에서 “회보 제4호는 1책가(一冊價)를 10전씩(十錢式) 정함. 단(但) 우편으로 구독(求讀)하리 유(有)할 시(時)는 1책에 우세(郵稅) 2전을 가송(加送)함”이라고 결의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하지만 일본의 동경청년회 등에는 무료로 배포한 것 같은데, 1896년 12월 5일자 친목회일기를 보면, 위원회에서 동경청년회에 《회보》를 매호마다 기부하기로 결의했다고 되어 있다.

19) “일본 잇는 조선 유학성의 친목회 데스호 회보가 잇는디 장 슈는 일빅장이요 목츠는 팔쵸이라 츠레로 열람하여 본즉……” 하면서 제4호의 내용들을 자세히 소개한 뒤 “이 친목회 회원들의 독실한 학문과 활달한 의견은 문명 세계에 진보하는 기초가 될지라 본국에 도라와서 아모조록 보국안민호야 큰 사업을 이루여 조선이 세계 각국에 우등 터전을 받게 함을 우리는 바라노라”고 끝맺었다.

V. 第5號의 發刊과 그 編輯·組版 體裁 및 주요 內容

위와 같은 《회보》제4호의 발행 6개월 뒤인 1897년 9월 26일 친목회는 또 제5호를 발행했다. 그 편집체재와 조판체재 등은 제4호와 아주 비슷한데, 이는 제4호에서 그 편집방침과 조판체재 등을 대대적으로 혁신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제4호에서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강연(講演)란을 신설하기도 했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제4호부터 《회보》의 제1차적 발행목적을 “학문상 발달”에 두기로 하고 이러한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회보》에 강연란을 신설하는 한편, 매회 통상회에서 회원들 중 몇 명씩 연구발표를 하도록 하여 그 내용을 강연란에 게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강연란을 제4호에서는 미처 신설하지 못하다가 제5호에서 설치했다. 한편 제5호에서는 만국사보들도 제4호보다 무려 25쪽이나 늘려 세계 각국의 情況(情況)을 두루 소개했다. 그 결과 전체 분량도 제4호보다 83쪽이나 늘어나게 되었다.

1. 第5號의 실제 發行·印刷 날짜와 刊記의 날짜

먼저 제5호의 발행날짜부터 살펴보면, 판권장의 간기(刊記)에는 “광무원년(光武元年) 9월 26일 발행”, 즉 1897년 9월 26일 발행으로 명기되어 있다.²⁰⁾ 그러나 이 날짜 친목회일기를 보면 제5호가 발행되었다는 기록은 없으며 “상오 9시에 제4회 위원회를 개최, 회보 제5호로 부터 표지상(表紙上) ‘발행’ 두 글자와 ‘편찬’ 두 글자를 상환(相換)하야 서(書)히기로” 의결했다는 기록만 나오고 있는데, 제5호 표지를 보면 위와 같은 위원회 결의대로 고쳐놓았다.²¹⁾ 따라서 이를 볼 때, 9월 26일에는

20) 우리 나라 정부는 1897년 8월 14일 年號를 종래의 建陽에서 光武로 고치고 이를 8월 16일부터 시행하기로 의결, 그 이전에는 1897년을 建陽2年이라고 했으나 8월 16일부터는 光武元年으로 고쳐 썼는데, 8월 15일자 친목회일기를 보면 “廢建陽年號下詔勅”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그 이튿날짜 日記에는 “以建陽二年改爲光武元年自本公館承通知”라고 적혀 있다. 그리고 그 다음 日記부터는 光武年號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제5호 版權張 刊記에도 光武年號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21) 즉, 제4호까지는 “親睦會會報”라는 세로 漢文題號 오른쪽에 “建陽元年十二月發行”이라는 식으로 발행날짜를 표기하고, 題號 왼쪽에는 조금 내려서 “大朝鮮留學生親睦會編纂”이라고 編纂者를 밝혀놓았었다. 그러나 제4회 위원회에서 “회보 제5호로 부터 表紙上 ‘發行’ 二字와 ‘編纂’ 二字를 相換하야 書히기로” 의결했는데, 이와 같은 의결대로 제5호의 表紙에서는 題號 오른쪽에는 “建陽二年六月〇日編纂”으로, 왼쪽에는 “大朝鮮留學生親睦會發行”으로, ‘편찬’과 ‘발행’이라는 글자들을 서로 바꾸어놓았다. 그러나 이처럼 고치면서 왜 光武年號를 사용하지 않고 “建陽二年六月〇日編纂”이라고 했는지는 위의 脚註에서 언급했듯이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아직 제5호의 표지도 인쇄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제5호의 정확한 발행날짜는 언제일까?

비록 판권장에는 “1897년 9월 26일 발행”으로 기재해 놓았지만, 실제로는 10월 8일 발행된 것이 거의 확실한데, 이 날짜 친목회일기를 보면 “회보 제5호 발행 고성”(會報第五號發行告成)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판권장의 간기에 적혀 있는 발행날짜와 실제 발행날짜 중 어떤 것을 제5호의 발행날짜로 보아야 하겠는가? 언론사(言論史)를 연구하다 보면 이런 문제에 가끔 당면하게 되나 결국 간기의 발행날짜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제5호의 실제 발행날짜는 10월 8일이었음이 확실하나, 간기대로 1897년 9월 26일로 보도록 하겠다.

한편 제5호의 인쇄날짜도 판권장에는 “건양 2년 6월 30일 인쇄” 즉 1897년 6월 30일 인쇄로 되어 있으나 방금 위에서 말했듯이 9월 26일까지도 아직 표지조차 인쇄되지 않았음을 볼 때, 인쇄가 모두 끝난 것은 최소한 9월 26일 이후였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판권장에 인쇄날짜를 6월 30일로 기재해 놓았는데, 이는 앞서 제4호의 인쇄날짜에서도 언급했듯이 판권장의 인쇄날짜도 실제 인쇄날짜와 관계 없이 제1호의 인쇄날짜를 기준으로 기재했기 때문이다.²²⁾

그렇다면 제5호의 실제 인쇄날짜는 언제였는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제5호의 원고들을 인쇄에 부친 것은 7월 초였던 것 같은데, 6월 13일자 친목회일기를 보면 이날 열린 제38회 위원회에서 “제5호의 입재(入梓)는 내(來) 7월 5일 이내로 정했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날 위원회에서 제5호에 실을 “회계출납, 서적매입과 기부, 회중기사(會中記事)의 원고는 당임원(當任員)이 각각 7월 3일 이내로 수정필초(修整畢抄)해야 편찬소로 송부케 하고, 제원(諸員)은 각각 지식을 발언해야 논문·문원·잡보를 진술하되 본월(本月) 25일 내로 사무소에 송부하며(但社說은 논문 중에서 選載함), 번역 제원(諸員)은 번역원고를 일일물체(一一勿滯)하고 본월 25일 내로 사무소에 송부하기로 결의했다”고 기록되어 있다(《親睦會會報》 제5호, p. 179).

따라서 이를 볼 때 6월 25일에 원고들을 마감, 7월 3일과 4일에 편집을 끝낸 뒤

22) 왜냐하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인쇄날짜들을 보면 제1호는 1895년 양력 11월 30일, 제2호는 1896년 3월 29일, 제3호는 동년 6월 30일 등으로 정확히 3개월 간격(제3호까지는 3개월마다 발행했기 때문)으로 되어 있으며 제4호는 1896년 12월 31일, 제5호는 1897년 6월 30일로서 6개월 간격(제4호부터 6개월마다 발행했기 때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제6호 인쇄날짜도 역시 6개월 간격, 즉 제5호 인쇄날짜인 1897년 6월 30일로부터 정확히 6개월 뒤인 1898년 12월 30일로 되어 있다.

7월 5일경 인쇄에 부쳤던 것 같다. 그러나 판권장에 인쇄날짜를 6월 30일로 기재해 놓은 것은 위에서 말했듯이 실제 인쇄날짜와는 관계 없이 제1호의 인쇄날짜를 기준으로 기재했기 때문이다.

2. 第5號의 發行者 · 編輯者 · 印刷者와 編纂員

다음으로 제5호의 발행자·편집자·인쇄자와 편찬원들을 보면, 앞서 제3호와 제4호에서는 김용제(金鎔濟)가 ‘발행겸편집자’로 판권장에 기재되어 있었으나, 제5호에는 발행자와 편집인이 분리되어 있으며 발행자는 원응상(元應常), 편집자는 김용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된 것은 1897년 4월 30일 제33회 위원회에서 “발행인 김용제는 임무중첩(任務重疊)하야 사임함으로 발행인을 원응상으로 체보(遞補)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김용제가 판권장에 편집자로 기재된 것은 6월 30일 제39회 위원회에서 “제5호 회보에 발행겸편찬원 각 일원(一員)을 의례 재명(載名)하되 단 편찬원은 의전(依前)한다”는 결의에 따라 편찬원의 일원이었던 김용제의 이름을 판권장에 ‘편집자’로 재명한 것이었다.

한편 제4호부터는 판권장에 발행소(發行所)와 그 주소도 기재하기 시작했는데, 제5호에서도 제4호와 마찬가지로 발행소는 “친목회권설사무소”(親睦會權設事務所)로 되어 있고 주소는 “大日本東京神田區錦町二丁目五番地阿立館內”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는 인쇄자와 인쇄소 및 그 주소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들은 앞서 제1호에서부터 제4호까지와 마찬가지로 되어 있다. 즉 인쇄자는 야마모토 에이지로(山本鏌次郎), 인쇄소는 슈에이사(秀英社)로 되어 있으며 이들 인쇄자와 인쇄소의 주소도 역시 변함이 없다.

끝으로 제5호의 편찬원과 번역원들을 보면, 4월 30일 하오 6시에 개최한 제33회 위원회에서 편찬원은 2인으로 개정(更定)하고 교열원 2인을 신정(新定)하되 교열원은 원임(元任) 편찬원들 중에서 선임하여 제5호부터 담임케 했다. 그러나 이들 편찬원과 교열원은 추후에 의정(議定)하기로 했다가 6월 13일 제38회 위원회에서 편찬원으로는 김용제와 조제환(趙齊桓)을, 교열원으로는 원임편찬원들 중에서 원응상과 유창희(劉昌熙)를 임명했다. 하지만 6월 30일 제39회 위원회에서 교열원을 폐지하고 이들을 편찬원으로 환임(還任)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이유는 밝혀놓고 있지 않다.

그러나 어쨌든 위와 같은 제38회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교열원으로 임명되었던 원 응상과 유창희가 다시 편찬원이 되어 김용제와 조제환과 함께 제5호의 편찬을 맡았음을 알 수 있다.

이들 편찬원은 주로 편집과 교열 등의 업무를 맡았던 것 같은데 앞서 제38회 위원회의 결의사항을 보면 《회보》 뒷붙이로 실을 “회계출납보고서,” “매입 및 기부서적,” “회중기사”(會中記事) 등의 원고는 그 담당임원들(즉 會計·幹誌·日記書札 幹籤)이 수정필초(修整畢抄)하여 편찬소로 보내도록 했으며, 본문기사들 중 논문·문원·잡보 등의 원고는 회원들로부터 투고를 받았고 외보·만국사보 등은 번역원들이 일본의 신문이나 잡지들에서 번역토록 했다.²³⁾ 따라서 이를 볼 때 편찬원들은 위와 같이 담당임원·회원·번역원들이 보내온 원고들을 수합, 편집하고 교열하는 업무를 주로 맡았던 것 같다. 그러나 사설(社說)의 선정도 맡았던 것 같은데, 제38회 위원회의 결의사항 중에 “단 사설은 회원들이 보내오는 논문 중에서 선재(選載)한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3. 第5號의 編輯·組版 體裁와 주요 內容

제5호의 편집체제와 조판체제 등은 앞서의 제4호와 거의 마찬가지로 강연(講演)란을 신설했으며, 만국사보란 기사들도 제4호보다 무려 25쪽이나 늘려 세계 각국의 정황(情況)을 두루 소개했다. 그 결과 전체 분량도 제4호보다 83쪽이나 늘어나게 되어, 본문기사가 모두 183쪽에 달했으며 앞붙이가 4쪽, 뒷붙이가 5쪽으로서 이들을 모두 합치면 192쪽이나 되었다. 그리하여 창간호부터 제6호까지의 모든 《회보》들 중에서 분량이 가장 많았다.²⁴⁾

1) 表紙의 形態와 앞붙이들의 內容

우선 표지부터 살펴보면 제4호와 똑같으나 다만 한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앞서

23) 번역원들은 누구누구였는지 알 수 없으나 그 수가 많았던 것 같은데, 3월 28일자 친목회일기를 보면 이날 열린 제30회 위원회에서 “會報編纂에 翻譯及原稿의 增加를 위하여 來月로부터 法學協會雜誌를 購入하고 檢하여 翻譯員 6인을 增設할 것을 議決했다”고 한다.

24) 제1호 본문은 160쪽, 제2호는 270쪽, 제3호는 135쪽, 제4호는 100쪽, 제5호는 183쪽, 제6호는 175쪽으로서, 비록 쪽수는 제2호가 가장 많은 것 같으나 제3호까지는 1번의 總字數가 490字였으나, 제4호부터는 924字였다. 따라서 제5호의 실제 분량은 제2호의 조판체제로는 344쪽에 해당되었다.

언급했듯이 제4호까지는 “親睦會會報”라는 한자제호(漢字題號) 오른쪽에 “建陽元年十二月發行”이라는 식으로 발행날짜를 표기하고, 제호 왼쪽에는 조금 내려서 “大朝鮮留學生親睦會編纂”이라고 편찬자를 밝혀놓았었다. 그러나 제5호부터는 이들에서 ‘편찬’과 ‘발행’이라는 글자들을 서로 맞바꾸어 제호 오른쪽에는 “建陽二年六月〇日編纂”이라고, 왼쪽에는 “大朝鮮留學生親睦會發行”이라고 고쳐놓았다. 그리고 표지 뒷면에는 《회보》에 관한 안내의 글을 실어놓았는데, 그 내용은 제4호와 똑같다.

표지 다음에는 모두 3쪽에 걸쳐 여러 가지 내용의 앞붙이가 붙어 있으며, 이들에 는 제4호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쪽수를 매겨놓았다. 첫째 쪽에는 “친목회회보 제5호 목차”를 2단으로 나누어 실어놓았는데, 종래와 같이 주요 기사들의 제목과 그 필자의 성명만 간략하게 소개해 놓았으며, 각 기사들의 쪽 번호도 밝혀놓지 않고 있다. 둘째 쪽에는 “친목회회보 회지(會旨)”, “친목회임시광고”, “투서제씨(投書諸氏)의 주의(注意)”, “인쇄제도(印刷制度)의 개량”, “사무소이정(事務所利定)”이라는 제목의 친목회 공고(公告)들이 실려 있는데, 이들은 제4호에 실었던 것들을 그대로 다시 실어놓은 것들이다. 셋째 쪽에는 “친목회광고”(親睦會廣告)라는 제목 아래, 제4호부터 새로 개정한 “회보편찬약칙”(會報編纂略則)이 실려 있는데, 이것 역시 제4호에 실었던 것을 그대로 다시 게재한 것이다.

2) 本文記事들의 編輯體裁와 주요 內容

위와 같은 앞붙이들에 이어 다음 쪽부터 본문기사들이 실려 있는데, 이들에 는 새로 1쪽부터 시작해서 별도의 쪽 번호를 붙여놓고 있다. 본문기사의 조판체재는 앞서 제4호와 똑같으나 제5호의 쪽수는 모두 183쪽으로서 제4호보다 83쪽이나 더 많은데, 이는 앞서 말했듯이 제5호부터 강연(講演)란이 신설되었으며, 또한 만국사보(萬國事報)란의 기사들도 제4호보다 25쪽이나 늘어났기 때문이다.

(1) 本文記事들의 構成體裁와 각 欄別 構成比率

본문 기사들의 편집체제도 앞서 제4호와 같으나 방금 위에서 말했듯이 강연란이 신설되었다. 그리하여 모두 9개 난, 즉 사설·논설·문원·강연·내보·외보·만국사보·회중기사로 나누어 그에 해당하는 기사들을 차례로 게재했다. 본문기사들의 총 건수(件數)는 112개이며, 게재 면수(쪽수)는 모두 183쪽인데, 이들을 각 난별(欄別)로 나누어 그 기사 건수와 쪽수(紙面量)의 구성비율을 비교해 보면 <표 6>와 같다.

<표 6> 제5호 본문기사들의 각 난별 구성비율

구 분	기사 건수(記事件數)				지면량(紙面量: 쪽수)			
	제 5 호		제 4 호		제 5 호		제 4 호	
	건수	백분율(%)	건수	백분율(%)	쪽수	백분율(%)	쪽수	백분율(%)
사설(社說)	1	0.9	1	0.9	8.3	4.5	3.7	3.7
논설(論說)	11	9.8	13	11.3	24.7	13.5	19.3	19.3
문원(文苑)	6	5.4	10	8.7	0.7	0.4	1.1	1.1
강연(講演)	13	11.6	—	—	46.8	25.7	—	—
내보(內報)	8	7.1	6	5.2	18.5	10.1	9.9	9.9
외보(外報)	32	28.6	50	43.5	28.4	15.5	30.3	30.3
만국사보	20	17.9	11	9.6	28.6	15.6	3.6	3.6
잡보(雜報)	12	10.7	15	13.0	13.2	7.2	17.9	17.9
회중기사	9	8.0	9	7.8	13.8	7.5	14.2	14.2
합 계(合計)	112	100.0	115	100.0	183.0	100.0	100.0	100.0

<표 6>에서 보듯이, 제5호의 경우도 역시 외보기사들의 구성비율이 높으나 제4호까지는 건수나 쪽수(지면량)에서 모두 수위를 차지한 데 비해 제5호에서는 건수로 수위(首位)를 차지했으나 쪽수에서는 3위로 밀려났다. 그 대신 새로 설치한 강연(講演)란 기사들이 수위를 차지했는데, 비록 건수는 13건(전체 본문기사 건수의 11.6%)으로서 외보나 만국사보보다 적으나 쪽수는 모두 46.8쪽(본문기사 전체 지면의 25.7%)으로서 본문기사들 중 그 분량이 가장 많다.

강연란 다음으로는 만국사보가 쪽수에서 2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제5호에서 만국사보들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즉 제4호보다 무려 25쪽이나 늘어나 외보를 약간 상회했는데, 이처럼 만국사보의 지면을 대폭 늘린 이유는 아마도 제4호까지는 일본·중국·독일·미국 등 세계 열강들의 소식에 중점을 두었으나 제5호부터는 그밖의 여러 나라들의 소식도 널리 소개하기로 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만국사보들을 보면, 위와 같은 세계 열강들 이외의 세계 여러 나라 소식과 정황(情況)을 두루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반면, 제4호까지 수위를 차지했던 외보기사들의 쪽수가 제5호에서는 대폭 줄어 3위로 밀려났는데, 제4호에서는 외보가 모두 50건(전체 본문기사들 중 43.5%)에 30.3쪽(본문기사 전체 지면의 30.3%)이었으나, 제5호에서는 32건(28.6%)에

28.4쪽(15.5%)으로 감소했다. 이는 강연란이 신설됨에 따라 그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으며, 또 한편으로는 만국사보들도 늘렀기 때문인데 제4호에서는 만국사보가 11건(9.6%)에 3.6쪽(3.6%)이었으나 제5호에서는 20건(17.9%)에 28.6쪽(15.6%)으로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이들 만국사보는 외보와 성격이 비슷하다. 따라서 이들을 합치면 모두 52건(전체 본문기사 112건 중 46.5%)에 57쪽(전체 본문기사 183쪽 중 31.1%)으로서 제5호에서도 역시 외국관계 기사들이 건수나 쪽수에서 모두 수위를 점하고 있다.

만국사보와 외보 다음으로는 논설과 잡보가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건수에서는 잡보(12건, 10.7%)가 논설(11건, 9.8%)보다 많으나 쪽수에서는 논설(24.7쪽, 13.5%)이 잡보(13.2쪽, 7.2%)보다 거의 두 배나 되고 있다. 그러나 제4호에서는 논설과 잡보란의 쪽수가 거의 비슷했는데(논설 19.3쪽, 잡보 17.9쪽), 그러면 제5호에서 논설란의 쪽수가 크게 늘어난 까닭은 무엇인가? 그 이유는 과거에는 논설에서 주로 우리 나라 형세나 개화의 필요성 등을 역설하는 짤막한 글들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제5호에는 논설란에도 강연란 기사와 비슷한 학술적 성격의 긴 글들(예컨대, 卞國璿의 “物理總論略述” 등)을 실었기 때문인데, 이는 특히 제5호부터는 《회보》 발행의 제1차적 목적을 학문상 발달에 두었기 때문인 것 같다.

다음으로 내보(內報)는 모두 8건(전체 본문 건수의 7.1%)에 18.5쪽(전체 지면 중 10.1%)으로서 제4호보다 약간 늘었다. 그리고 회중기사(會中記事)는 건수와 쪽수가 모두 제4호와 비슷하다. 그러나 문원(文苑)란은 더 줄었는데, 제4호에는 모두 10수(首)의 한시(漢詩)들이 1.1쪽에 걸쳐 실려 있었으나 제5호에는 겨우 6수의 한시들이 실려 있으며 쪽수도 한 쪽이 채 되지 못하고 있다.

(2) 社說·論說·文苑欄 記事들의 주요 內容

위와 같은 제5호의 본문기사들을 각 난별로 다시 간단히 소개해 보면, 첫째로 사설란에는 신해영(申海永)이 쓴 “환성옹(喚惺翁)의 담(談): 변화기질(變化氣質)의 4대 중요”라는 제목의 사설만 실려 있다. 그러나 분량은 8.3쪽(본문기사 전체 지면의 4.5%)이나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당시 우리 나라가 미개(未開)하여 세계 열강들의 위협을 받게 된 원인은 “우리 조선인들의 4대 병근(病根), 즉 의뢰심(依賴心), 경멸심(輕蔑心), 의려심(疑慮心), 무신용(無信用)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당국자는 국민으로 하여금 이상 4대 성질(性質)을 변화케 하여 4대 신성질(新性質)을 양성후 후 만반(萬般) 실력을 확장하여야…… 계림(鷄林) 일국(一局)에 적진룡막(積塵籠幕)

을 신천(晨天)에 권포(捲拋)하고…… 혼돈야(混沌夜)에 성(成)흔 몽(夢)을 조제성(朝齊惺)할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둘째로 논설란에는 모두 11편의 논설들이 24.7쪽(본문 전체 지면의 13.5%)에 걸쳐 게재되어 있는데, 이들을 주제별로 나누어 보면 정치와 애국에 관한 것이 4편(金基璋, “政治本原”; 林在德, “經國之四大要”; 兪承兼, “希望에 對흔 行爲의 得失”; 金成殷, “愛國心이 有흔後 國民”), 교육과 학문에 관한 것이 4편(元應常, “教育에 對흔 야 國民의 愛國像想”; 南舜熙, “牖民說”; 尹致晟, “武事教育의 最急說”; 吳聖模, “分業分力の 關係”)이다. 그리고 경찰·우편·물리(物理)에 관한 것이 각각 1편씩 실려 있는데, 이들은 학술적 성격의 글들로서 전대홍(全泰興)의 “경찰론”(警察論)에서는 서양에서의 경찰의 연혁과 종류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김동규(金東圭)의 “우체(郵遞)의 개론(概論)”에서는 통신의 발달과정을 요약한 다음 특히 근대에 들어와서 발달한 우체제도와 그 종류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 변국선(卞國璿)의 “물리총설약술”(物理總論略述)에서는 물체의 9가지 통성(通性 或 眞性)과 8가지 편성(偏性 或 假性)의 각각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²⁵⁾

셋째로 문원(文苑)란에는 모두 6수(首)의 한시(漢詩)들이 실려 있으나 쪽수는 한 쪽도 못 되고 작자(作者)도 2명으로서 곧 한 사람이 3수씩 발표했다. 우선 김기장(金基璋)의 한시들을 보면 “자계고수”(自戒固守)라는 제목의 칠언율시(七言律詩)에서는 쓸데없이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세태를 풍자하고 있으며, “수기(睡起)라는 칠언절구(七言絕句)에서는 벌써 가을이 왔음을, 그리고 “책추선원”(責秋慙怨)이라는 오언절구(五言絕句)에서도 초가을을 맞아 세월의 무상함을 탄식하고 있다. 그 다음 한영원(韓永源)의 “음증노구치히코고료”(吟贈野口彦五郎)라는 제목의 칠언율시는 노구치히코고료(野口彦五郎)라는 일본인에게 바친 시로서 타국 땅에서의 객수(客愁)를 토로하고 있으며 “술회화목택형당운”(述懷和木澤馨堂韻)이라는 칠언율시에서는 만리타향에서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읊고 있으며 “중시형당”(重示馨堂)이라는 칠언절구에서는 고향(모국)에서 온 편지를 받아 보고 비록 발음은 서로 다르나 뜻은 같은 것은 백제(百濟) 왕인(王人) 박사가 일본에 한자(漢字)를 전해 준 덕택이라면서 우리 나라의 찬연한 문물을 찬양하고 있다.

25) 卞國璿의 이 논설은 1897년 2월 14일 통사회에서 “物理總論”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던 講演 내용을 다시 정리한 것(漢文으로 썼음)으로, 論說이라기보다는 물리학의 주요 원리에 관한 학술논문에 가까운데 이러한 글을 講演欄에 실지 않고 왜 論說欄에 게재했는지 의문이다.

(3) 講演欄에 掲載된 각종 學術論文들의 內容

넷째로 제5호부터 새로 설치한 강연란에는 모두 13편의 학술논문들이 실려 있는데, 이들은 1897년 1월부터 6월까지 매달 한 번씩 개최한 통상회에서 회원들이 발표했던 학술강연들 중에서 일부를 선정하여 실은 것들이다. 그 주제들을 보면 법률과 법무행정에 관한 것이 5편으로 가장 많으며 정치에 관한 것이 2편, 군사·경제·공업·교통에 관한 것이 각각 1편씩이며, 심리학과 물리학 및 지진(地震)의 원인에 관한 것도 1편씩 실려 있다.

우선 법률에 관한 논문기사들을 보면 김상순(金相淳)의 “법률정의”(法律正義)에서는 법률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정의(定義)들을 소개한 다음, 전통적 정의들에서의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정재순(鄭在淳)의 “법률개론”(法律概論)에서는 법률의 필요성과 법률의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한 뒤 법률의 종류에 관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면우(李冕宇)의 “형법주의의(刑法意義)의 약론(略論)”에서는 형법에 관한 여러 가지 관점의 정의(定義)들을 소개하고 나서, 형법은 결국 국가나 개인들의 자보성(自保性)의 유지를 위한 것이라면서 자보주의(自保主義)를 내세우고 있다. 유창희(劉昌熙)의 “형사소송법의 연혁”에서는 먼저 “형사소송법이란 것은 형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방법을 규정된 규칙”이라고 정의를 내린 다음, 이러한 법률의 연혁을 로마시대부터 시작해서 소개하면서 특히 프랑스와 독일에서의 그 발전과정을 설명하고 나서 끝으로 일본의 형사소송법도 간단히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법무행정에 관한 장규환(張奎煥)의 “감옥제도론”(監獄制度論)에서는 폐금주의(閉禁主義)와 배적주의(配謫主義)의 장단점을 설명한 뒤 “만일 적당한 식민지를 유(有)할진대는 폐금주의와 배적주의를 교(巧)히 절충병용함이 제일상책이나, 내지옥(內地獄)에 재(在)하던지 식민지옥에 재(在)하던지 간에 개심(改心)을 장려함에 가장 유효한 것은 계급제도에 재(在)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다음으로 정치에 관한 논문들 중 안명선(安明善)의 “정도론”(政道論)에서는 “정도(政道)라 하는 거슨 정치가가 사(事)에 당(當)하여야 정(政)을 치(治)하는 도(道)라”고 전제하면서 그 요건으로서 첫째는 중심, 둘째는 공성(公誠)을 요한다고 하면서 그 사례들을 들고 있다. 그리고 김용제(金鎔濟)의 “입법정체(立法政體)의 개론(概論)”에서는 헌법의 정의(定義)·종류·유래를 소개하고 나서, 우리 나라도 입헌정체를 채택해야 된다고 은근히 주장하고 있다.

그 밖의 주제에 관한 논문들을 보면, 노경보(盧景輔)의 “군제유래략서”(軍制由來

略敍)에서는 중국의 상고시대(上古時代)부터 시작, 중고시대(中古時代), 근고시대(近古時代), 금시대(今時代)까지의 군제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한편 어용선(魚溶善)의 “경제학개론”(經濟學概論)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경제학이라고 하면 다만 재정상(財政上)에 관한 학문인줄로만 아는 이가 만흔 듯 하나…… 대저 경제학을 논할진대 먼저 부(富)와 생산과 분배와 교역과 소비에 5개 명칭이 근본이 되는 고로 이들 5개 명칭을 가지고 차례로 설명하겠다”면서 부(富)·생산·분배·교역·소비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해 놓고 있다. 그 다음 최영식(崔永植)의 “공업의 필요”라는 논문에서는 공업의 필요성을 열거하고 나서, 우리 나라도 공업을 발흥시켜야 된다고 역설하고 있다. 조제환(趙齊桓)의 “교통개론”(交通概論)에서는 “지방의 원근과 산해(山海)의 간격(間隔)됨을 일(日)과 월(月)노 무애(無碍)히 편리토록 상통상수(相通相輸) 하야 풍속문물이 균일케 하고 상공업과 농무(農務)상의 실업(實業)을 확연 발달케 한 연후에 점차로 추(推)하야 우내(宇內)의 천명(闡明)과 일반사회상의 화합을 가기(可期)할 터이기” 때문에 우선 교통부터 발달시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남순희(南舜熙)의 “심리학과 물리학의 현효(現效)”라는 제목의 논문에서는 물리학의 기능에 관하여 논하면서 물리학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리고 지승준(池承浚)의 “지진(地震)의 원인”이라는 논문에서는 먼저 지구(地球)의 구조에 관하여 약술한 다음, 지진이 일어나는 원인들에는 3가지 종류, 곧 화산(火山)의 조화(造化), 지체(地體)의 함몰(陷沒) 및 단층(斷層)이 있다면서 이러한 원인들에 의해 각각 일어나게 되는 화산지진, 몰입지진, 단층지진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4) 內報·外報·萬國事報들의 주요 內容

다섯째로 내보란에는 모국에 관한 8건의 기사가 모두 18.5쪽에 걸쳐 실려 있는데, 그 중 4건은 당시 서울의 인구현황, 외국인 현황 등의 통계자료이며, 2건은 건양(建陽) 2년도의 정부수입세목과 세입세출총예산의 내역이며, 1건은 국내우편규칙이고 나머지 1건은 “朝鮮의 鑛山”이란 제목의 기사로서 곧 우리 나라 광산(鑛山)에 관한 소개이다.

여섯째로 외보란에는 세계 열강들의 소식과 정세 등을 나라별로 나누어 실어놓았는데, 모두 32건(쪽수는 28.4쪽)의 외보들 중 일본에 관한 것이 17건(외보 전체의 53.1%)에 12.8쪽(외보 전체의 45.1%)으로서 가장 많으며, 다음은 청국(淸國)에 관한 것이 6건(18.8%)에 6.7쪽(23.6%), 영국에 관한 것이 5건(15.6%)에 2.6쪽

(9.2%), 미국에 관한 것이 3건(9.4%)에 5.8쪽(20.4%), 러시아에 관한 것이 1건(3.1%)에 0.5쪽(1.8%)이다.

일본에 관한 기사들을 보면 교육에 관한 것이 8건으로서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관계 기사로는 명치(明治) 30년도의 총예산, 군사관계 기사로는 미국에서 건조 중인 일본순양함과 군비확장에 관한 소식, 철도관계 기사로는 일본이 만국철도동맹에 가입했다는 소식과 “영미철도시찰기”(英米鐵道視察記)가 실려 있다. 다음으로 청국에 관한 기사들을 보면 청국의 “세입총액”, “해군확장”, “청로비밀조약”(淸露秘密條約), “로청은행”(露淸銀行), “동청철도”(東淸鐵道), “동청철도회사조례”(東淸鐵道會社條例) 등의 기사가 게재되어 있다. 한편 영국에 관한 기사로는 “육군의 확장”, “제2회 육군확장”, “해군의 확장”, “영국과 독로불(獨露佛)의 해군”, “세계출입”(歲計出入) 등이, 미국(亞米利加)에 관한 기사들로는 “매년도재정비교”(每年度財政比較), “미국(米國)과 하와이(布哇)의 합병조약안(合併條約案)” 등을, 러시아(露西亞)에 관한 기사로는 러시아의 인구통계(人口統計)를 소개하고 있다.

일곱째로 만국사보란에서는 “건양(建陽) 1년의 세계파란(世界波瀾)”이라는 제목 아래 1896년도의 세계 주요 정세를 총정리해 놓은 다음 세계의 일반정세, 각종 주요 통계자료, 흥미거리 기사 및 세계 각국의 단신(短信)들을 실어놓았다. 이들 기사는 거의가 일본의 신문이나 잡지에 실렸던 것을 번역해서 전재(轉載)하거나 요약한 것들인데 각 기사의 말미를 보면, 예컨대 “구주(歐洲)의 신형세”와 “영불(英佛)의 관계”는 《타이요》(太陽) 잡지에서, “구리도문제와 열국여론의 분리”는 4월 13일자 《고쿠민일보》(國民日報)에서, “희랍봉쇄의 열국형세”는 4월 25일자 《고쿠민일보》에서 전재했다고 밝혀놓고 있다.

(5) 雜報와 會中記事의 주요 內容

여덟째로 잡보란에는 모두 12건의 기사들이 13.2쪽에 걸쳐 게재되어 있는데, 제4호까지는 모국에 관한 소식들도 실렸으나 제5호에는 모두가 외국에 관한 것들로서 위의 만국사보들과 거의 비슷하다. 따라서 왜 이러한 잡보란을 별도로 두었는지 의문이 드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각국 화폐제도”(各國貨幣制度), “각국의 화폐개혁”, 일본의 제14회 국회에서 새로 정한 “화폐법안(貨幣法案)의 요령” 및 “신화폐(新貨幣)의 형식” 등 화폐에 관한 것이 가장 많다. 그리고 외교와 국제관계에 관한 기사로는 1896년도의 외교 상황을 간단히 결산한 해설기사(“千八百九十六年度의 外交”)와 군비축소론에 관한 기사(“軍備緊肅論”) 및 “만국우편연합회의”(萬國郵便聯合

會議)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다.

그 밖에 “황금채집(黃金採集)의 신발명(新發明)”, “부인직업(婦人職業)의 양잠(養蠶)”, “현금(現今) 동물의 종류”, “해중식물(海中植物)의 사(事)” 등 여러 가지 흥미거리 기사들과 세계 주요 국가 제왕(帝王)들의 연령과 탄생축하일, 그리고 “독일궁정(獨逸宮廷)의 조직”도 소개해 놓고 있다.

끝으로 회중기사(會中記事)란에는 1897년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6개월간의 친목회일기를 비롯하여 “임원신천자”(任員新薦者), “졸업자”, “통상회원동정”, “출회자”(黜會者), “특별회원동정”, “신입통상회원”, “신입통상찬성원”, “신입특별찬성원” 명단이 실려 있다. 이들 중 “졸업자”를 보면 지승준(池承浚)·신우선(申佑善)·유승겸(兪承兼)·장헌식(張憲植)이 본년 4월 30일 게이오의숙 고등과(高等科)를 졸업했으며 찬성원 이두희(李斗熙)와 특별회원 조희범(趙義範)은 6월 30일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고 되어 있다.

한편 “출회자”라는 제목의 공고에서는 “홍석현(洪奭鉉)과 정인소(鄭寅昭)를 징벌세칙 제6조틀 의(依)하야 본년 5월 24일에 제명출회함”이라고 밝혀놓았는데, 이 둘 사람은 친목회의 불화설(不和說)을 허위로 일본신문에 폭로한 죄로 5월 24일 제명출회(除名黜會)한 것이었다. 그 다음 “신입통상회원” 명단을 보면 모두 9명이 3월에 입회했으며 “신입통상찬성원”과 “신입특별찬성원” 명단을 보면 모두 11명(통상찬성원 3명, 특별찬성원 8명)이 가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뒷붙이들의 여러 가지 內容들과 뒤표지

위와 같은 제5호의 본문기사들에 이어, 뒷붙이로는 1897년 1월부터 6월 말까지의 사이에 찬성금(贊成金) 기부자들의 명단과 금액, 기증받은 서적(신문·잡지 포함)의 목록, 매입서적의 목록, 매입신문의 목록 및 출납보고(出納報告)가 모두 4쪽에 걸쳐 실려 있으며, 이들 뒷붙이에는 별도의 쪽 번호를 붙여놓고 있다.

첫째로 찬성금 기부자들과 금액을 보면 신입통상찬성원들인 민상호(閔商鎬)가 20원, 박용규(朴鎔奎)가 10원, 양의중(梁宜鍾)이 3원을 냈으며 기존의 통상찬성원들 중에서는 원세형(元世亨)이 3원을 낸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8명의 신입특별찬성원들은 모두 합쳐 26원을 냈는데, 3명은 각각 5원씩 냈으며 3명은 3원씩 냈고, 나머지 2명은 1원씩 냈으며 기존의 특별찬성원들 중에서는 11명이 모두 합쳐 56원을 냈다. 그리하여 찬성금 총액은 115원이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에 회원들이 낸 회비

의 총액 78원보다 37원이나 많은 금액이었다.

둘째로 기증받은 서적(신문·잡지 포함)의 목록을 보면, 당시 우리 나라 독립협회에서 발행한 《대조선독립협회회보》(月2回刊)와 일본 잡지 《고쿠민노도모》(國民之友, 月3回刊), 《가테이잡지》(家庭雜誌, 월2회간), 《와세다문학》(早稻田文學, 월2회간), 《후진신보》(婦人新報, 月刊) 및 일본 신문 《고쿠민신문》(國民新聞)과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을 기증받았는데, 일본 잡지들의 기증자는 모두 일본인들이다.

셋째로 매입서적과 신문의 목록을 보면 잡지로는 《타이요》(太陽), 《호가쿠협회잡지》(法學協會雜誌), 《도쿄게이사이잡지》(東京經濟雜誌)를 구독했으며, 신문으로는 일본의 《지시신보》(時事新報)와 우리 나라에서 발행되던 《독립신문》과 《한성신보》(漢城新報)를 구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독립신문》은 창간(1896년 4월 7일) 3개월 뒤인 7월부터 구독했는데 “매입신문” 목록에 그 이름이 들어 있음을 볼 때 정식으로 구독료를 내고 보았던 것 같다.

넷째로 출납보고(1897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6개월간)를 보면, 수입금은 회비 78원, 찬성금 115원, 신문매입 및 기타 38전, 이월금 342원 4전으로서 총계가 535원 42전이다. 그 반면, 지출금은 모두 332원 10전 2리인데, 그 내역을 보면 《회보》 제4호 500부 출판비가 45원 3전 5리, 친목회 증정규칙(增訂規則) 3판 500부 인쇄비가 19원 96전 3리, 통신비가 10원 76전, 서적매입비가 6원 9전, 신문매입비가 5원 56전 등의 순으로 되어 있다. 이에서 보듯이 지출금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회보》 출판비였으며, 서적과 신문 매입비도 적지 않았는데 친목회에서 신문과 잡지를 구독한 것은 회원들의 공람(共覽)을 위해서였지만, 또한 《회보》 발간자료로 삼기 위한 중요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신문과 잡지 구독비를 《회보》 출판의 간접비로 본다면, 제4호의 발간비는 57원 81전으로서 전체 지출비 중 17.4%를 차지했다.²⁶⁾

뒷붙이 마지막 장에는 별지(別紙)로 서광범(徐光範)의 서거에 대한 애도문(哀悼文)이 붙어 있다. 그리고 뒷표지 안쪽 면에는 판권장이 들어 있으며, 바깥 면에는 “정오”(正誤)와 “친목회편찬소광고”(親睦會編纂所廣告)가 게재되어 있는데 “정오”에서는 《회보》 제4호의 내보(內報) 중 “포염(浦鹽)과 북관(北關)의 관계”라는 기사

26) 그러나 제6호 말미에 실려 있는 제5호 발행 이후 친목회 출납보고(1897년 7월부터 12월까지)를 보면, 제5호 500부의 발간비로 모두 103원 20전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 제4호의 발간비보다 거의 2배나 많은데,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그러나 만약 제5호 500부의 발간비가 103원 20전이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당해 기간(1897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총지출비 194원 중 53%에 해당되는 금액이었으며, 총수입금 131원 70전과 거의 맞먹는 금액이었다.

에 오식(誤植)이 있어 이를 바로잡는다는 것이며 “친목회편찬소광고”에서는 인쇄소의 일본인 조판공들이 한글을 제대로 알지 못해 오식(誤植) 등이 많으니 양해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4. 第5號의 發行部數와 配布對象 및 配布狀況

《회보》 제5호도 앞서 제4호와 마찬가지로 500부를 발행했는데, 1897년 6월 13일자 친목회일기를 보면 이날 열린 제38회 위원회에서 “제5호 회보는 500부로 정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제5호도 500부를 발행한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제4호부터는 《회보》의 배포범위도 확대, 친목회원들과 찬성원들 뿐 아니라 “내외유지제씨(內外有志諸氏)에게도 공람”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 몇 부를 모국에 배포했는지는 그에 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어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상당히 많은 부수를 모국에 배포한 것으로 짐작된다. 왜냐하면 6월 13일 제38회 위원회에서 제5호의 발행부수를 500부로 결정하기 보름 전인 5월 24일자 친목회일기를 보면 “우리 90회원”(我九十會員) 운운하고 있음을 볼 때(《親睦會會報》 제5호, p. 178) 당시 친목회 전체 회원이 약 90명에 불과했으며, 또한 당시 일본에 체류 중이던 우리 나라 일반인들도 그리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00부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면 이는 모국에 상당 부수를 보낼 것을 전제로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제5호도 “유지제씨”들에게는 유료로 배포했는데, 제6호에 실려 있는 1897년 11월 3일자 친목회일기를 보면, 이날 개최한 제43회 위원회에서 “본회 회보 제5호 대가(代價)는 매책(每冊) 15전으로 정하기로 했으며, 단 우편으로 매구(買購)할 인(人)은 우세(郵稅) 4전을 병(並)하여 사무소로 보내도록 의결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모국의 “유지제씨”들에게도 유료로 배포했는지, 또는 일본의 “유지제씨”들에게만 유료로 배포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유료 구독자는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제6호 말미에 실려 있는 제5호 발행 이후 친목회 출판보고(1897년 7월부터 12월까지)를 보면 수입란에 “회보매입대”가 겨우 4원 36전으로 나와 있다. 따라서 이를 1부당 구독료 15전으로 나누면 28.8이 되므로 제5호의 유료 구독자는 약 28명 정도에 불과했던 것 같다.

VI. 第6號의 發刊과 이를 끝으로 《會報》의 終刊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보》 제5호의 발간에 이어 1898년 4월 9일 친목회는 제6호를 발행했다. 그러나 이를 끝으로 《회보》는 불행하게도 중단되고 말았는데, 김기장(金基璋) 등이 사소한 감정으로 분쟁을 일으켜 많은 회원들이 1898년 2월, 집단적으로 친목회를 탈퇴하게 됨으로써 친목회가 자연히 해체되었기 때문이다(《學之光》 제6호, p. 14).

하지만 친목회가 2월에 곧 해체된 것은 아니었으며, 4월 9일에는 《회보》 제6호도 발행하면서 명목상으로는 그대로 존속했다. 그러다가 9월 10일 “제국청년회”(帝國青年會)라는 이름으로 재결성(再結成)했는데 제국청년회에서는 《제국청년회회보》(帝國青年會會報)라는 회보도 발간했다고 하나 그 실물이 아직 발견되지 않아 진부는 알 수 없다.²⁷⁾

1. 第6號의 發行날짜와 印刷날짜 및 編纂날짜

《회보》의 중단하였던 제6호는 위에서 말했듯이 1898년 4월 9일 발행되었는데, 관권장의 간기를 보면 “광무 2년 4월 9일 발행”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따라서 제6호는 거의 정상적으로 발행되었는데, 제5호의 발행(1897년 9월 26일) 이후 6개월 보름 만에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6호에 실려 있는 회중기사(會中記事)와 뒷붙이들 및 본문기사들을 보면 1897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의 친목회 소식들과 국내 외 정세와 사건 등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그 내용들의 시의성(時宜性)으로 볼 때는

27) 《學之光》 제6호에 실려 있는 “日本留學生史” 14페이지를 보면 “是年(1898)九月十日에 留學生 一同이 東京青年會館에 集하여 平和團成을 協議하고 會를 更張하여 帝國青年會라 하고, 規則을 改定하며 會報도 改刊하니……” 운운하고 있으며 白淳在에 의하면, 친목회가 해체되고 “그뒤 ‘帝國青年會’가 새로 조직, 탄생되면서 그 기관지로서 《帝國青年會會報》를 발간한 바 있으나 얼마 못 가서 폐간되었다”고 하며(白淳在, 1972, p. 49) 또한 《독립신문》 제4권 제128호(1899년 6월 8일) 2면 雜報에 실려 있는 “일본유학생 친목회회보”라는 기사에 “일본에 류학하는 대한학도들이 년전에 친목회를 설립하고 소개에 회보를 출판하더니 그 회 일홈을 갖쳐 제국청년회라 하였는데 경비가 경감하여 회보 출판하기가 매우 어렵다더라”고 보도하고 있음을 보면 帝國青年會에서도 회보를 발간한 것이 사실인 것 같다. 그러나 李海暢에 의하면 “친목회가 해산되고 그 후신으로 帝國青年會가 조직되었는데 회보를 발행했는지 아니했는지 未詳이다”라고 하며(李海暢, 1983, p. 325) 帝國青年會에서 발간했다는 회보의 실물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을 보면, 帝國青年會에서도 회보를 발간하려고 했으나 경비문제 때문에 실제로는 발간하지 못했던 것 같다.

제6호도 발행이 많이 지연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전년도 7월부터 12월 말까지의 소식들과 사건 등에 관한 잡지가 이듬해 4월 9일에야 나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것은 제6호도 인쇄기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이었는데, 표지를 보면 “광무 원년 12월 편찬,” 즉 1897년 12월 편찬으로 되어 있고, 판권장의 인쇄날짜는 12월 30일로 되어 있다. 그러나 1897년 12월 12일자 친목회일기를 보면, 이날 상오 10시에 열린 제47회 위원회에서 “제6호 회보는 광무 2년 1월 10일노 한(限)하야 입재(入梓)홀 사(事)로 정하고 부수는 500부로 정했으며, 제6호 회보에 기재할 시문(詩文), 논설 및 강연의 원고는 본월 31일 이내로 사무소에 투송(投送)함을 요하며(但 講演은 入梓後 此를 以하야 後日 通常會에 演說하야도 無妨함), 각 번역원은 원고지를 통상회를 부대(不待)하고 조속(早速)히 탈초(脫抄)하야 본월 31일 이내로 사무소에 투송할 것을 의결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볼 때 제6호 원고들은 1897년 12월 31일 마감, 열흘 동안에 편집을 끝낸 뒤 1898년 1월 10일 인쇄에 부쳤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조판·교정·인쇄·제본 등에 약 3개월이 걸려,²⁸⁾ 4월 9일에야 제6호를 발행하게 되었던 것 같다.

2. 第6號의 發行者·編輯者·印刷者와 編纂員

제6호의 발행자와 편집자를 보면, 앞서 제5호와 마찬가지로 발행자는 원응상(元應常), 편집자는 김용제(金鎔濟)로 판권장에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발행자와 편집자에 변동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간에 다시 뽑았으나 연임되었기 때문이었다. 즉 1897년 11월 7일 친목회에서는 회장단과 평의원들을 다시 선출했으나 정선거 문제로 11월 21일 재선거를 실시, 조제환(趙濟桓)이 회장으로 당선되자 이튿날 제46회 위원회를 개최, 친목회의 모든 추천임원들을 개선하면서 《회보》 편찬원들도 다시 선출했다. 이때 유창희(劉昌熙)·원응상·신해영(申海永)을 편찬원으로 선출하면서 그 중에서 원응상은 발행인을 겸임토록 의결했다. 그리하여 원응상이 《회보》 제6호의 발행자로 판권장에 기재되었던 것이다.

28) 참고로 각 號의 인쇄기간을 판권장에 기재되어 있는 인쇄날짜와 발행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면, 제1호는 2개월, 제2호는 2개월 15일, 제3호는 3개월 23일, 제4호는 2개월 24일, 제5호는 2개월 26일, 제6호는 3개월 9일이 걸렸다. 그러나 판권장에 기재되어 있는 인쇄날짜가 실제 인쇄날짜와 다른 경우가 많은데 제6호의 경우, 판권장의 인쇄날짜와 발행날짜를 기준으로 할 때는 4개월 9일이 걸렸으나 실제 인쇄날짜(1898년 1월 10일)를 기준으로 할 때는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러나 김용제가 어떻게 제6호에서도 편집자로 판권장에 기재되었는지는 그에 관한 기록이 친목회일기에 나와 있지 않아 자세히 알 수 없는데, 방금 위에서 언급한 11월 22일 제46회 위원회에서 새로 선출한 편찬원들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다. 하지만 12월 12일자 친목회일기를 보면, 이날 상오 10시에 열린 제47회 위원회에서 “추천임원 및 조사위원은 실제 사무방편을 위하야 체감(遞減)되……편찬원 중에서 원응상 대신 김용제를 새로 추천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볼 때, 김용제는 제46회 위원회에서 새로 뽑은 편찬원들에는 빠졌다가 제47회 위원회에서 원응상은 발행인만 맡도록 하고, 그 대신 김용제를 다시 편찬원으로 추천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가 왜 제6호 편집자로 판권장에 기재되었는지는 그에 관한 언급이 친목회일기에는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는 “편찬원 중에서 일원(一員)을 의례 재명(載名)한다”는 관례에 따른 것이었던 것 같다.²⁹⁾

한편 제6호의 발행소도 제5호와 마찬가지로 “친목회권설사무소”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 오른쪽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를 보면, 제5호에서는 “大日本東京神田區錦町二丁目五番地阿立館内”였으나 제6호에는 “大日本東京神田區今川小路二丁目二番地松本家内”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볼 때, 그간에 친목회 사무소를 이전했음을 알 수 있는데 1897년 11월 3일자 친목회일기를 보면 이날 열린 제43회 위원회에서 “본회 권설사무소는 방편으로 인하야 회장소(會長所)인 神田區錦町三丁目二十一番地井上家로 임시 이장(移定)하기로 결의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왜 이처럼 친목회 사무실을 간다(神田)의 아릿지관(阿立館)에서 회장 개인의 처소(處所)로 옮겼는지는 밝혀놓고 있지 않다. 하지만 아마도 경비문제였던 것 같은데, 그 뒤에도 계속하여 친목회 사무실을 회장의 처소로 옮기고 있다.

제6호의 인쇄자도 앞서 제1호부터 제5호와 마찬가지로 역시 야마모토 에이지로(山本鑣次郎)였으며, 인쇄소도 슈에이사(秀英社)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옆에 기재되어 있는 인쇄인과 인쇄소의 주소도 역시 변함이 없었다.

끝으로 제6호의 편찬자들을 보면, 이들의 성명은 판권장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1897년 11월 22일자 친목회일기를 보면 앞서 언급했듯이, 이날 열린 제46회 위원회에서 유창희·원응상·신해영을 편찬원으로 새로 임명했으며, 이들 중에서 원응상은 발행인을 겸임토록 했다. 하지만 12월 12일 제47회 위원회에서 원응상 대신

29) 이러한 관례는 앞서 다른 號들부터 계속되어 왔는데, 예컨대 제5호의 경우도 1897년 6월 30일자 제39회 위원회에서 “제5호 회보에 發行及編纂員 各 一員을 依例 載名되 但 編纂員은 依前호”이라는 決議에 따라 김용제가 판권장에 ‘編輯者’로 재명되었다.

김용제를 편찬원으로 새로 추천하고 원응상은 발행인 직책만 맡도록 했다. 따라서 제6호의 편찬원은 유창희·신해영·김용제로 모두 3명이었다. 그러나 앞서 제5호의 경우는 편찬원이 모두 4명(원응상·유창희·김용제·조제환)이었는데, 제6호의 편찬원들을 3명으로 줄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한편 제6호 번역원들도 변동이 있었는데 9월 26일자 친목회일기를 보면, 이날 상오 9시에 개최한 제40회 위원회에서 임원 및 번역원을 체보(遞補)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새로 교체한 임원들의 성명만 적어놓고 “번역원은 략지”(翻譯員略之)라고 하면서 그 이름들은 밝혀놓고 있지 않아 누구누구가 번역원으로 새로 뽑혔는지는 알 수 없다.

3. 第6號의 編輯·組版體裁와 주요 內容

제6호의 편집체제와 조판체제 등도 앞서 제5호와 마찬가지로 전제 쪽수가 181쪽(앞붙이 4쪽, 본문기사 175쪽, 뒷붙이 2쪽)으로서, 제5호(앞붙이 4쪽, 본문기사 183쪽, 뒷붙이 5쪽, 합계 192쪽)에 비하여 9쪽이 감소했다. 그 중요 이유 중 하나는 제5호에 새로 설치했던 강연관에 모두 13건의 강연 기사들을 46.8쪽(본문기사 전체 지면의 25.7%)에 걸쳐 실었으나, 제6호에서는 강연 기사들이 겨우 2건에 9.8쪽으로서 제5호보다 37쪽이나 줄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보는 약 22쪽이 증가하기도 했는데, 그러면 제6호에서는 주로 어떠한 내용들을 얼마나 다루었으며, 앞서 제5호에 비하여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가?

1) 表紙의 形態와 앞붙이들의 內容

우선 표지부터 살펴보면, 제5호와 똑같으나 다만 한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앞서 제5호에는 한자(漢字) 제호 왼쪽에 “대조선인유학생친목회발행”(大朝鮮留學生親睦會發行)이라고 발행기관을 밝혀놓았으나, 제6호 표지에서는 “대한국유학생친목회발행”(大韓國留學生親睦會發行)이라고 고쳐놓았다. 이는 1897년 10월 12일 우리나라 국호(國號)를 대한제국(大韓帝國)으로 고쳤기 때문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친목회 일기에는 국호의 변경에 따라 친목회 명칭도 “대한국유학생친목회”로 고치기로 했다는 언급은 나오지 않고 있다.

한편 표지 뒷면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앞서 제4호와 제5호에서는 표지 뒷면에 《회

보》에 관한 안내의 글을 실어놓았었으나 제6호에서는 이를 빼고 그 대신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서거를 애도하는 글을 실어놓았다.

그 다음에는 모두 네 쪽의 앞붙이가 붙어 있으며, 이들에는 제4호와 제5호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쪽 번호를 매겨놓았다. 그 중 첫째 쪽에는 “친목회회보 제6호 목차”를 2단으로 나누어 실어놓았는데, 종래와 같이 주요 기사들의 제목과 그 필자의 성명만 간략하게 소개해 놓았으며 각 기사들의 쪽 번호도 밝혀놓지 않고 있다. 둘째 쪽에는 “친목회회보 회지(會旨)”, “친목회임시광고”, “투서제씨(投書諸氏)의 주의(注意)”, “인쇄제도(印刷制度)의 개량”이라는 제목의 친목회 공고(公告)들이 실려 있는데, 이들은 제5호에 실었던 것들을 다시 그대로 실어놓은 것들이다. 셋째 쪽에는 “자광무원년지동팔십이년칠요속견표”(自光武元年至同八十二年七曜速見表)라는 제목 아래, 광무 원년부터 82년까지의 간지(干支)와 요일의 “찾아보기” 표가 실려 있으며 이를 찾아보는 방법과 요령을 넷째 쪽에 실어놓았다.

2) 本文記事들의 編輯體裁와 主要 內容

위와 같은 앞붙이들에 이어, 다음 쪽부터 새로 별도의 쪽 번호를 붙인 본문기사가 실려 있는데 그 편집체재를 보면 앞서 제5호와 똑같이 모두 9개 난, 즉 사설·논설·문원·강연·내보·외보·만국사보·잡보·회중기사로 나누어 그에 해당하는 기사들을 차례로 게재했다. 또한 조판체재도 앞서 제5호와 같으나 제6호에서는 본문 기사들의 건수나 쪽수가 제5호보다 많이 줄었는데, 제5호의 경우는 모두 112건에 쪽수가 183쪽이었으나, 제6호의 경우는 92건에 175쪽으로서 제5호에 비해 건수는 20건(-21.7%), 쪽수는 8쪽(-4.4%)이 감소했다.

(1) 本文記事들의 構成體裁와 各 欄別 構成比率

제6호 본문 기사들의 각 난별(欄別) 구성비율을 보면, <표 7>에서 보듯이 건수에서는 외보(36건)가 전체 본문 기사들의 39.1%로서 수위(首位)를 차지하나 쪽수는 사설이 0.9쪽 많다. 그러나 사설의 건수는 1편에 불과한데, 그럼에도 1편의 사설이 쪽수에서 수위를 차지한 것은 그 분량이 무려 51쪽(본문기사 전체 지면의 29%)이 나 되기 때문이다. 외보 다음으로 건수가 많은 것은 내보(18건)이나 쪽수는 만국사보가 오히려 더 많은데, 만국사보는 모두 10건(10.9%)이나 쪽수는 16.5쪽(9.4%)으로서 사설과 외보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만국사보는 외보와 마찬가지로 외국관계 기사들이다. 따라서 외보와 만국사보를 합치면 모두 46건에 66.6쪽

<표 7> 제6호 본문기사들의 각 난별 구성비율

구 분	기사건수(記事件數)				지면량(紙面量: 쪽수)			
	제 6 호		제 5 호		제 6 호		제 5 호	
	건수	백분율(%)	건수	백분율(%)	쪽수	백분율(%)	쪽수	백분율(%)
사설(社說)	1	1.1	1	0.9	51.0	29.1	8.3	4.5
논설(論說)	4	4.3	11	9.8	12.0	6.9	24.7	13.5
문원(文苑)	7	7.6	6	5.4	1.3	0.7	0.7	0.4
강연(講演)	2	2.2	13	11.6	9.8	5.6	46.8	25.7
내보(內報)	18	19.6	8	7.1	15.8	9.0	18.5	10.1
외보(外報)	36	39.1	32	28.6	50.1	28.7	28.4	15.5
만국사보	10	10.9	20	17.9	16.5	9.4	28.6	15.6
잡보(雜報)	6	6.5	12	10.7	6.3	3.6	13.2	7.2
회중기사	8	8.7	9	8.0	12.2	7.0	13.8	7.5
합 계(合計)	92	100.0	112	100.0	175.0	100.0	183.0	100.0

으로서 전체 본문기사 92건 중 50%, 전체 본문기사 175쪽 중 38.1%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하여 앞서의 다른 호(號)들과 마찬가지로 제6호에서도 외국관계 기사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제6호에서는 모국관계 기사들인 내보도 모두 18건(19.6%)에 15.8쪽(9.0%)으로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건수로는 2위, 쪽수로는 4위), 제5호에서는 8건에 불과했으나 제6호에서 18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이다. 그 반면, 강연란 기사들은 제5호에 비해 크게 감소했는데 제5호에서는 모두 13 건(전체 본문기사 건수의 11.6%)에 46.8쪽(본문기사 전체 지면의 25.7%)으로서 건수에서는 3위를, 쪽수에서는 수위(首位)를 차지했었으나, 제6호에는 단 2건만이 9.8쪽에 걸쳐 실려 있다.

왜 이처럼 제6호에서 강연란 기사들을 크게 줄였는지 모르겠는데, 강연란은 앞서 언급했듯이 제4호부터 《회보》의 제1차적 발행목적은 “학문상 발달”에 두기로 결정하고, 이러한 목적의 구현을 위해 신설키로 했으나 제4호에서 미처 설치하지 못했다가 제5호부터 설치했었다.

제6호에서는 논설과 잡보도 또한 제5호보다 거의 반(半)으로 줄였는데, 제5호에서는 잡보가 12건(전체 본문기사의 10.7%)에 13.2쪽(7.2%)이었으나, 제6호에서는 6건(6.5%)에 6.3쪽(3.6%)이다. 그리고 논설은 제5호에서는 모두 11건(9.8%)에

24.7쪽(13.5%)이었으나 제6호에서는 4건(4.3%)에 12쪽(6.9%)에 불과하다. 한편 회중기사(會中記事)는 건수와 쪽수가 모두 제5호와 비슷하다. 그리고 문원(文苑)란은 쪽수만 늘었는데, 제5호에서는 문원란이 채 한 쪽도 되지 못했으나 제6호에서는 1.3쪽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제6호의 문원란도 앞서 제5호나 그 이전의 다른 호(號)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매우 빈약한데, 한시(漢詩)들만 7수(首)가 실려 있다.

(2) 社說·論說·文苑欄 記事들의 주요 內容

위와 같은 제6호 본문기사들의 내용을 각 난별로 간단히 소개해 보면, 첫째로 사설란에는 신해영(申海永)이 쓴 “무신경제약(無神經契約)의 결과불선변(結果不善變)”이라는 제목의 사설만 1편 실려 있다. 그러나 분량은 무려 51쪽으로서 본문기사 전체 지면의 29%, 곧 거의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는데 그 요지만 간단히 소개해 보면 “국(國)과 국(國)이 계약체결하는 권(權)의 유무(有無)를 인(認)하여야 기국(其國)의 독립 여부를 지(知)하느니 일국(一國)의 계약체결혼은 곧 독립의 표(表)를 공포(公布)함이라”고 전제한 다음, 우리 나라에서 1876년 2월 26일 일본과 체결한 한일수호조규(韓日修好條規)부터 시작, 1895년 7월 일본의 게이오의숙(慶應義塾)과 맺은 유학생과견계약까지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에 포함된 불평등하고 잘못된 조항들을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1895년 5월부터 게이오의숙에 파견한 제1차 관비유학생들의 생활경제 실황과 학비, 유학생들의 수(數)와 동정 등을 자세히 소개한 뒤 “오인(吾人)은 대안(大眼)을 개(開)하고 좌(左)에 무신경제약을 일변(一變)하여야 우(右)에 유신경규약성립(有神經規約成立)함을 쾌도(快靚)히기로 저사(佇俟)하노라”고 끝맺고 있다.

둘째로 논설란은 앞서 호(號)들보다 크게 줄어, 겨우 4건(전체 본문기사의 4.3%)의 논설이 12쪽(전체 본문기사 쪽수의 6.9%)에 걸쳐 실려 있다. 그 중 유치학(兪致學)의 “민법(民法)의 개론(概論)”은 논설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학술적 논문으로서, 민법의 성격·정의(定義)·필요성·연혁·종류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그 다음 장호익(張浩翼)의 “사회경쟁적(社會競爭的)”이라는 논설에서는 “오늘날의 세계는 바야흐로 약육강식적 경쟁시대”이니 “오인(吾人)도 [세계의] 공세적(攻勢的) 운동과 경쟁적 동작을 주의(注意)하라…… 경토(境土)를 방위하고 정정당당한 자국(自國)의 권(權)을 비양(飛揚)하라 문명세계에 공립(共立)홀진저”라고 촉구하고 있다. 한편 임재덕(林在德)의 “선사업자(善事業者)는 선찰시기(善察時機)”라는 논설에서는 당시 세계의 정황을 설명한 뒤 “구미(歐米)는 식일(昔日) 야만으로 금일(今日) 부강개명

(富強開明)하고 동아(東亞)는 석일 문화로 금일 위미(萎靡)에 침입하니古今盛衰(古今盛衰)와 동서역지(東西易地)가 엇지 여차(如此)하노”라고 탄식하면서 우리도 하루속히 문명개화를 이룩하자고 역설하고 있다. 끝으로 육종면(陸鍾冕)의 “해군창기론”(海軍唱起辭)에서는 일본에서 근대 해군의 확장 경위를 설명한 뒤, 3면이 바다인 우리 나라도 해군을 창설하고 군함을 건조해 “동양해면상(東洋海面上)에 금성철벽군함(金城鐵壁軍艦) 매고 태극기를 고괘(高卦)하야 태평양 해수(海水)갓치 태평만세하기를 기망(期望)한다”고 끝맺고 있다.

셋째로 문원(文苑)란에는 모두 7수(首)의 한시(漢詩)들이 실려 있으나 쪽수는 1.3쪽에 불과하다. 그 중 “술회”(述懷)와 “분운증제군자”(分韻贈諸君子)라는 제목의 칠언율시(七言律詩)들은 “완성헌주인”(浣聲軒主人)이라는 필명의 작자가 특별기증한 것으로 밝혀놓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타향에서 고국을 그리는 심정을 읊은 것들이다. 그 다음 윤석준(尹錫準)의 칠언율시 “견민”(遣憫)과 오언절구 “청소우성”(淸宵偶成), “매화”(梅花)도 역시 작자 자신의 심회(心懷)를 읊은 것들이다. 권호선(權浩善)의 오언절구 “술회”(述懷)도 마찬가지이나 이한상(李漢相)의 오언절구 “사의”(寫意)는 애국시(愛國詩)이다.

(3) 講演欄에 掲載된 各種 學術論文들의 內容

넷째로 강연란에는 겨우 2건의 기사가 9.8쪽에 걸쳐 실려 있는데, 앞서 제5호에서는 모두 13건(전체 본문기사 건수의 11.6%)에 쪽수가 46.8쪽(본문기사 전체 지면의 25.7%)으로서 건수에서는 3위, 쪽수에서는 수위(首位)를 차지했었다. 그러나 제6호에서는 건수로는 모두 9개 난 중 8위, 쪽수로는 7위인데 왜 이처럼 강연란 기사들이 크게 줄게 되었는지는 그에 관한 언급이 《회보》에 나와 있지 않아 정확히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강연란에는 앞서 언급했듯이 매달 한 번씩 개최한 통상회에서 회원들이 발표한 강연들을 등재(登載)하기로 했던 것인데, 친목회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통상회에서 강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제6호에 등재할 강연들은 1897년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의 것들이었는데, 이 기간의 친목회일기를 보면 7월·9월·10월 달 통상회에서만 강연을 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즉 7월 4일 제26회 통상회에서 회의가 끝난 뒤 “제씨(諸氏)가 서로 뒤를 이어 연설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9월 5일 제28회 통상회에서는 원응상(元應常)이 “사회 3원력”(社會力·自然力·一個人力)에 관하여, 남순희(南舜熙)가 “국민교육여

하”에 대하여, 유승겸(兪承兼)은 “경제략론”(經濟略論)에 관하여 강연했으며, 10월 3일 제29회 통상회에서는 장헌식(張憲植)과 안명선(安明善) 제씨(諸氏)가 연설을 했다고만 적혀 있다. 하지만 제6호 강연란을 보면, 다만 원응상의 “개화(開化)의 3원력(三原力: 自然·社會·一個人)”과 권호선(權浩善)의 “대한국(大韓國)의 위치(位置) 및 경계(境界)와 신민(臣民)의 각오(覺悟)”라는 강연 내용만 실려 있고, 그 밖의 강연들은 등재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모르겠다.

원응상의 강연 내용을 보면, 개화의 세 가지 주요 요인으로 자연의 세력, 사회의 세력, 일개인의 세력을 들면서 이들 각각에 관하여 설명한 다음 “대저(大抵) 자연력이 사회력을 구조(構造)하고 사회력으로 부터 일개인력을 양성이라 하니…… 대한신민(大韓臣民)과 당장(當場) 회원은 개개(個個) 일개인 세력을 건(建)해야 절전공후(絶前空後)한 문명개화를 발달하기 위망(爲望)하노이다”라고 끝맺고 있다. 그 다음 권호선의 강연 내용을 보면, 먼저 우리 나라의 위치와 경계(境界)를 약론(略論)한 다음 “국가의 강기(綱紀)를 설(設)하고 3권(三權)의 입법과 행정과 사법을 분명히 해야 중(衆)으로 더부러 천하를 공치(共治)하며 인민으로 해야금 물정(物情)을 개(開)하고 풍속을 화(化)해야 농공(農工)을 무(務)하며 통상(通商)을 업(業)으로 해야 팔역(八域)의 민(民)을 부요(富饒)케 하자”고 촉구하고 있다.

(4) 內報·外報·萬國事報 들의 주요 內容

다섯째로 내보란에는 모국에 관한 18건(전체 본문기사의 19.6%)의 기사가 15.8쪽(전체 본문기사 쪽수의 9.0%)에 걸쳐 실려 있는데, 그 중 3건은 조칙(詔勅), “年號頒布詔勅”, “勅令第三十六號”이며 5건은 정부관계 소식(“各道地方隊設置의 發表”, “京畿裁判所設置事”, “官廳事項”, “法部發令”, “扈衛隊編制”)이며 3건은 행사관계 뉴스(“開國紀元節의 景況”, “隆武亭의 觀兵式”, “萬壽聖節”)이고 4건은 철도와 산업 관계 소식(“下端鐵路”, “産業”, “咸鏡道鏡城天一會社定款”, “新開港場”)이며, 나머지는 각종 현황에 관한 자료들(“慶尙南道三十郡의 戶口表”, “端川誌”, “在本邦外國居留民”)이다.

여섯째로 외보란에는 세계 열강들의 소식과 정세 등을 나라별로 나누어 실어놓았는데, 모두 36건(쪽수는 50.1쪽) 중에서 일본에 관한 것이 15건(전체 외보 건수 중 41.8%)에 29.2쪽(외보 전체 지면의 58.3%)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청국(淸國)에 관한 것이 5건(13.8%)에 8.9쪽(17.9%), 영국에 관한 것이 4건(11.1%)에 2.6쪽(5.1%), 아메리카에 관한 것이 5건(13.8%)에 4.2쪽(8.3%), 러시아에 관한 것이 4

건(11.1%)에 1.9쪽(3.8%), 프랑스에 관한 것이 3건(8.3%)에 3.3쪽(6.6%)이다. 이들 중 일본에 관한 기사들을 보면 우편과 전신에 관한 것(“遞信事業의 發達” 등)이 5건으로 가장 많으며 외교문제에 관한 것이 2건(“條約改正의 事業”, “日本の 軍備擴張과 歐美列強”), 교육에 관한 것이 2건(“豫修學校等區別”, “高等智識分配上の 緩急”), 각종 자료가 4건(“明治三十一年度歲入歲出總豫算”, “全國各種銀行調査”, “各市의 人口”, “布哇에 移民總數”), 기타가 1건(“富豪의 事業”)이며, 끝으로 명치(明治) 30년도의 정계(政界) 동향을 총정리해 놓았다. 그 다음 청국에 관한 기사들을 보면 청국의 금화본위(金貨本位), 국채(國債), 공채모집(公債募集), 신개무역항(新開貿易港)에 관한 소개 기사와 “지나혁명(支那革命)의 기(機)”라는 논설 기사를 실어놓았다. 그리고 영국·아메리카·러시아·프랑스에 관한 각종 기사들을 게재하였다.

일곱째로 만국사보란에는 모두 10건(10.9%)의 기사들이 16.5쪽(9.4%)에 걸쳐 실려 있는데, 첫머리의 “광무원년(光武元年)의 세계파란(世界波瀾)”이라는 기사에서는 1897년도의 세계 주요 동향들을 총정리해 놓고 있다. 그 다음 “열국해군(列國海軍)의 동정(動靜)”, “섬라(暹羅)의 군대”, “보호국사론(保護國史論)”, “만국평화회의”, “회람의 장래”, “파사(波斯)에 대한 영로(英露)의 권형(權衡)”, “독일 황제의 연회(宴會)”, “불로(佛露)의 동맹”, “로불(露佛)의 관계” 등의 기사들을 실어놓았다. 이들 만국사보와 위의 외보들은 거의가 일본 신문과 잡지에 실렸던 것들을 번역한 것인데, 각 기사의 말미를 보면 그 출처들을 괄호 안에 밝혀놓았다.

(5) 雜報와 會中記事들의 주요 內容

여덟째로 잡보란에는 6건의 기사들이 6.3쪽에 걸쳐 게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위의 외보나 만국사보란 기사들과 비슷한 외국관계 기사들이 4건(“萬國貨幣史年表”, “萬國郵遞聯合條約國名”, “세계의 鐵道”, “世界上的 最久한 銅鑛山”)이다. 그리고 나머지 2건 중 “한문옥편(韓文玉篇)”이라는 기사는 지식영(池錫永)이 한문옥편(漢文玉篇)을 한글로 번역하고 있다는 소식이며 “궁중상일주년(宮中喪一週年)”이라는 기사는 일본 궁내성(宮內省)에서 발포한 일본 황태후의 상식(喪式)을 전제한 것이다.

끝으로 회중기사(會中記事)란에는 1897년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6개월간의 친목회일기를 비롯하여 “임원개선급신천자”(任員改選及新薦者), “졸업생”, “통상회원동정”, “특별회원동정”, “신입통상회원”, “신입통상찬성원”, “신입특별찬성원” 명단이 실려 있다. 이들 중 “임원개선급신천자”를 보면 새로 선출한 회장 조제환(趙齊

桓), 부회장 안형중(安衡中)을 비롯하여 평의원·간사·회계·간침·간독·편찬·발행인·통상사무원·특별사무원들의 성명이 적혀 있다. 그 다음 “졸업생”을 보면, 남순희(南舜熙)는 10월 문부성 사무를 필(畢)했으며, 조계환·유문상(劉文相)·김동규(金東圭)는 12월 우편전신국 사무를 마쳤다고 적혀 있다.

한편 “통상회원동정”과 “특별회원동정”에는 여러 본회원들과 특별회원들의 동정을 소개해 놓고 있다. 그리고 “신입통상회원”, “신입통상찬성원”, “신입특별찬성원”에는 새로 가입한 본회원 5명, 통상찬성원 6명, 특별찬성원 1명의 이름과 주소들이 소개되어 있다.

3) 뒷붙이들의 여러 가지 內容들과 뒤표지

위와 같은 제6호의 본문기사들에 이어, 뒷붙이로는 1897년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6개월 사이에 찬성금(贊成金) 기부자 명단과 금액, 기증받은 서적(신문·잡지 포함)의 목록, 매입서적(잡지 포함) 목록, 매입신문 목록 및 “친목회 회보 제5호 발간 후 출납보고(出納報告)” 등이 2쪽에 걸쳐 실려 있으며, 이들 뒷붙이에는 “一”, “二”라고 별도의 쪽 번호를 새로 붙여놓고 있다.

이러한 뒷붙이들 중에서 “출납보고”(自七月迄至十二月分까지六個月分入出) 내역만 간단히 소개해 보면, 수입은 회비금 62원 50전, 찬성금 53원 50전, 은행소임치금이자(銀行所任置金利子) 4원 46전, 회보매입대 4원 36전 5리, 신문매입 및 기타대 6원 89전 5리로서 소계(小計) 131원 72전에다가 전계여금(前計餘金) 203원 31전 8리를 합쳐 총계 335원 3전 8리로 되어 있다.

그 반면, 지출은 《회보》 제5호 500부 출판대 103원 23전, 통상회 및 임시회의비 3원 14전 5리, 원유회비(遠遊會費, 本年七月) 18원 63전, 통신비 21원 99전, 서적매입대 5원 30전, 신문매입대 3원 35전, 사무원 왕복비 5원 88전 5리, 지필묵과 초책(草冊) 매입대 7원 19전 등을 포함, 모두 193원 33전 4리로서, 수지차액금은 141원 70전 4리로 나와 있다.

이와 같은 출납보고에 이어, 뒤표지 안쪽 면에는 판권장이 실려 있으며 바깥 면에는 “친목회편찬소광고”(親睦會編纂所廣告), “투서제씨(投書諸氏)의 주의(注意)”, “사무소이정(事務所移定)이라는 제목의 친목회 공고(公告)가 실려 있다. 이들 중 “친목회편찬소광고”는 앞서 제5호에도 실었던 것으로서, 그 내용은 인쇄소의 일본인 조판공들이 한글을 제대로 알지 못해 오식(誤植) 등이 많으니 양해해 달라고 한 것이

다. 그 다음 “투서제씨의 주의”는 앞붙이 둘째 쪽에 실었던 것을 다시 표지 뒷면에도 실어놓은 것이다.

끝으로 “사무소이정” 공고는 처음 실은 것인데, 친목회 사무소를 옮겼으니 착령(着諒)해 달라는 내용이다.

4. 第6號의 發行部數와 配布對象 및 配布狀況

제6호도 앞서 제5호와 마찬가지로 500부를 발행했는데, 1897년 12월 12일자 친목회일기를 보면, 이날 상오 10시에 열린 제47회 위원회에서 “제6호 회보는 광무 2년 1월 10일노 한(限)하야 입재(入梓)홀 사(事)로 정하고 부수(部數)는 500부로 정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제6호도 500부를 발행한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제4호부터는 《회보》의 배포범위를 확대, 친목회 본회원과 특별회원 및 통상찬성원과 특별찬성원들 뿐 아니라 “내외유지제씨(內外有志諸氏)에게도 공람”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12월 12일 제47회 위원회에서 제6호의 발행부수를 500부로 결정할 당시 친목회의 회원과 찬성원 등 《회보》의 주된 배포 대상자들이 모두 몇 명이나 되었기에 500부나 발행하기로 했는가?

이에 관한 정확한 기록을 찾지 못해 확실히는 알 수 없으나, 그 4개월 전인 8월 17일자 《독립신문》을 보면 당시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던 우리 유학생을 모두 77명이라고 보도하고 있다(《독립신문》 제2권 97호, 3면 잡보). 한편 11월 22일자 친목회일기를 보면, 당시 친목회 회원들 중 관비유학생은 모두 71명이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親睦會會報》 제6호, p. 170). 따라서 이러한 기록들을 볼 때, 관비유학생들과 기타 사비(私費) 유학생들을 모두 합쳐, 1897년 12월 당시 친목회 회원은 약 70~8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찬성원들은 통상찬성원이 33명, 특별찬성원이 30명으로 모두 63명이었던 것 같다. 따라서 이들 찬성원과 회원들을 모두 합쳐보면 약 130명 내지 140명 정도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6호를 500부나 발행하기로 결정한 것을 보면, 약 350부는 내외유지들에게 배포하기 위해서였다고 짐작된다.

그러면 그 중에서 몇 부씩을 각각 일본과 모국의 “유지제씨”에게 배포했을까? 제

6호는 중간호였기 때문에 이에 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어 정확히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우선 일본의 “유지제씨”에게 유료로 배포한 부수부터 살펴보면 약 30부 정도였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앞서 제5호의 유료 배포부수가 약 29부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제6호의 경우도 일본의 유지제씨에게 유료로 배포한 부수가 약 30여 부밖에 되지 않았다면 “내외유지제씨”에게 배포할 350부 중에서 그 나머지 320부 정도는 어떻게 했을까? 이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혹시 모국에 배포하지 않았을까 짐작되는데, 왜냐하면 당시 친목회 회원과 찬성원들의 숫자가 모두 합쳐 약 130명 내지 140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며, 일본 내에서의 유료 배포부수도 30부 정도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제6호도 500부나 발행한 것을 보면, 모국에 약 300부를 보내기 위해서였다고밖에 해석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모국의 누구에게 주로 배포했을까?

제6호도 역시 모국의 정부기관, 학교, 독립신문사, 주요 사회인사(社會人士)들에게 보냈던 것 같다.³⁰⁾ 또한 그간에 귀국했던 친목회 회원들에게도 보낸 것으로 짐작되는데, 1896년 봄부터 관비유학생들의 일본파견이 다시 중단되어 새로운 유학생들이 도입하지 않았고, 그 전에 건너갔던 학생들은 공부를 마치고 귀국, 회원 수가 점차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회보》를 계속 500부씩 발행한 것을 보면, 귀국한 회원들에게도 계속 배포하기 위해서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VII. 結 言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나라 잡지역사상(雜誌歷史上) 우리 손으로 처음 만들어졌던 국문잡지인 《회보》는 1896년 2월 15일 창간 이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2년 2개월 동안 모두 6호를 발간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898년 봄, 친목

30) 친목회에서는 母國의 주요 人士들을 通常贊成員으로 많이 끌어들이었음을 볼 때, 母國의 주요 人士들에게도 《會報》를 많이 배포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왜냐하면 제6호 會中記事에 실려 있는 “新入通常贊成員” 명단을 보면, 서울의 權在衡(陸軍參尉), 張基濂(陸軍參領), 申昌熙(陸軍正尉)와 부산의 金洛駿 등이 通常贊成員으로 새로 가입했는데, 이들을 통상찬성원으로 迎入할 때 친목회의 활동을 알리기 위하여 《會報》도 보내주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친목회에 가입한 通常贊成員들에게도 《會報》가 나올 때마다 보내줌으로써 母國에 배포된 《會報》의 部數는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通常贊成員들 중에는 母國의 居住者도 많았기 때문이다.

회 회원들 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많은 회원들이 대거 탈퇴하게 됨으로써 친목회가 해체되기에 이르자 《회보》도 동년 4월 9일 제6호 발행을 끝으로 중단되고 말았다. 하지만 《회보》는 그간에 우리 나라 일본유학생들 간의 친목과 지식교환 등에 크게 기여했다. 뿐만 아니라 모국에도 널리 배포됨으로써 개화사상(開化思想)과 새로운 지식 및 언론문물(言論文物) 등을 전파하는 데도 큰 몫을 했는데, 그러면 《회보》가 특히 모국에 어떤 영향들을 미쳤는가에 관해서 끝으로 간단히 논의해 보기로 하겠다.

1. 《會報》가 母國에 미친 影響의 根據

《회보》가 모국에 미친 영향에 앞서, 우선 《회보》가 모국에도 여러 가지 영향들을 미쳤다고 추정되는 근거부터 들어보면, 첫째로 《회보》가 모국에도 널리 배포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회보》가 몇 부나 모국에 배포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앞서 언급했듯이 매호 발행부수 500부(제3호만은 300부) 중에서 약 200 내지 300부를 보냈던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를 오늘날의 기준으로 볼 때는 모국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아주 미미한 숫자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시로서는 결코 적지 않은 부수(部數)였는데, 《회보》와 같은 해 창간된 《독립신문》도 처음에는 300부를 발행했다(金道泰편, 1948, p. 213). 그러나 《독립신문》 한 장을 적어도 200명이 읽었다(Mckenzie, 1969, p. 67)고 함을 미루어 볼 때 《회보》도 역시 여러 사람들에게 회람(回覽)됨으로써 수백 명의 모국 동포들이 《회보》를 직접 읽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회보》는 당시 모국 동포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둘째로 《회보》가 모국에도 여러 가지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추정되는 또 하나의 근거로는 《회보》가 나올 때마다 그 내용을 《독립신문》에서 상세히 소개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왜냐하면 《독립신문》이 《회보》의 내용을 상세히 소개함으로써 《회보》를 직접 보지 못한 모국의 많은 동포들도 ‘잡지’라는 새로운 언론문물의 존재뿐 아니라 《회보》에 담겨져 있는 개화사상과 새로운 지식 등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회보》는 모국에도 개화사상, 새로운 지식과 학문, 언론문물 등을 전파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처럼 《독립신문》를

통하여 《회보》가 모국 동포들에게 미친 파급효과는 오히려 《회보》가 직접 모국 동포들에게 미친 영향보다 컸다고 생각되는데, 당시 《독립신문》의 인기와 영향력은 대단했기 때문이다.

《독립신문》의 창간자 서재필의 회고에 의하면, 1896년 4월 7일 《독립신문》을 창간하자 국민들이 열성적으로 읽게 되어 판매 부수가 쟁쟁쟁쟁 뛰었다고 하는데, 그 중요 이유 중 하나는 《독립신문》이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고발, 이를 중단시키자 국민들은 《독립신문》을 그들의 통치자에 대한 어필(appeal) 수단의 하나로 존경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이 작은 신문은 서울과 그 부근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도처의 먼 곳까지 배부되었는데,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맨 처음 구독자가 신문을 읽은 다음에 그것을 반드시 그 이웃사람들에게 돌려서 결국 신문 한 장을 적어도 200명이 같이 읽게 되었다”고 한다 (Mckenzie, 1969, p. 67).

《독립신문》에 대한 이러한 국민 대중들의 인기는 1894년 1월부터 1897년 3월까지 한국을 네 번이나 방문했던 영국의 여행가 Isabella Bishop 여사의 저서 *Korean and Her Neighbors*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이 책을 보면 “언문(en-mun) 신문을 한 뭉치 옆구리에 끼고 거리를 지나고 있는 신문배달원과 신문을 상점에서 읽고 있는 사람들의 광경은 1897년의 신기한 현상의 하나였다”고 적어 놓고 있다(Bishop, 1970, p. 67).

이처럼 《독립신문》은 대단한 인기와 영향력을 갖고 있었으며, 또한 당시 우리나라 사람이 발행하던 유일의 국문신문이었기 때문에 《회보》가 나올 때마다 그 내용과 목적 등을 보도기사와 논설을 통해 모국 동포들에게 자세히 알려주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독립신문》은 1896년 9월 22일자 잡보에서 “일본 류학하는 조선 학도들이 친목회를 시작하여 년보를 출판하느니 독립신문사에 년보 데이호를 보내었는데 본국 국한문으로 석근 칩이 이벽칠십장이 되고 그속에 잇는 논설과 각식 신문을 조선학도들이 지어 각식 학문상 의론을 만히 하고 외국 스정도 만히 괴록 하였느니 이런 칩은 조선 사람들이 처음으로 만든거시라”고 《회보》에 관하여 처음 소개하면서 이를 높이 평가했다.

10월 8일 《독립신문》은 또 제1면 첫머리 논설을 통하여 《회보》 제2호의 내용을 다시 상세히 소개하면서 그와 함께 《독립신문》의 창간 이전에 나왔던 《회보》 제1호의 내용도 자세히 소개했다. 또한 제4면의 영문판 *The Independent*의 논설

(Editorial)에서도 제1호와 제2호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고 나서, 《회보》의 발간을 통하여 “과학적 또는 문학적 성취보다도 더 중요한 애국심을 배우게 되기를 바란다”고 요망했다.

《회보》 제3호가 나오자 《독립신문》은 11월 7일자(제93호) 1면 잡보란의 첫머리 기사로 “일본 잇는 조선 생도 친목회 회보 테삼호가 독립신문사에 왔는데 열두 사람이 각각 논설을 하야 몇장식 기록들을 하얏고 또 그중에 혹 시도 잇고 그중에 논보라 하고 조선 신문도 기록하며 외보라 하고 세계 각국에 요긴한 신문들을 번역하야 기록하얏으며 또 회중 일도 기록하얏는데 조선 학도들이 이런 책에다가 논설을 지어 일년에 네번식 이리케 기지하는거슨 학문상에도 유조하고 또 생각이 차차 넓어져 일후에 국가에 유조한 사람들이 될듯하더라”고 소개했다. 또한 제4면 영문판 *The Independent*의 “Exchanges”란에서도 제3호의 기사내용과 그 필자들을 자세히 보도했다.

《회보》 제4호가 나오자 또 《독립신문》은 1897년 4월 8일자 제1면 전체를 할애한 ‘론설’을 통하여 제4호의 내용도 아주 자세히 소개했다. 그리고 나서 “친목회 회원들의 독실한 학문과 활달한 의견은 문명 세계에 진보하는 기초가 될지라 본국에 도라와서 아모조록 보국안민하야 큰 스업을 이루여 조선이 세계 각국에 우등 더접을 받게 힘을 우리는 바라노라”고 칭찬과 당부를 했다.

이와 같이 《독립신문》이 《회보》가 나올 때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소개한 이유는 그 소개들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당시 우리 나라 일본유학생들이 《회보》의 발간을 통하여 학문과 문명세계에 관한 의견들을 개진하는 것이 기특했고, 또한 이들이 선진외국의 새로운 학문과 문명을 배워다가 조국의 문명개화에 앞장서 줄 것을 바랬기 때문인 것 같다. 또 한편으로는 일본의 우리 유학생들의 선진적 사상 등을 모국의 젊은이들에게 알려, 모국의 젊은이들도 우리 나라의 문명개화에 앞장서도록 촉구하려고 했던 것 같다.

2. 《會報》가 母國에 미친 주요 影響

위와 같이 《독립신문》은 《회보》가 나올 때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소개함으로써, 비록 《회보》가 모국이 아닌 일본 땅에서 발행되었으며, 그 중에서 약 200 내지 300부 정도만 모국에 배포되었지만, 《회보》를 직접 보지 못한 모국의 많은 동

포들도 그 내용을 《독립신문》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회보》는 모국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특히 어떤 영향들을 미쳤을까?

1) 母國에서 雜誌의 生成과 그 性格에 미친 影響

첫째로, 《회보》가 모국에 미친 중요한 영향의 하나로는, ‘잡지’라는 새로운 언론문물의 소개를 통하여 모국에서도 잡지가 나오도록 만드는 데 하나의 중요한 자극제가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왜냐하면 《회보》는 우리 나라 잡지 역사상 우리 손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근대적 국문잡지였으며, 비록 일본 땅에서 나왔으나 위에서 말했듯이 모국의 요로(要路)에도 널리 배포되었고 또한 그 내용과 목적 등에 관하여 《독립신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상세히 소개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모국의 동포들도 ‘잡지’라는 새로운 언론문물의 존재와 그 기능과 필요성도 인식하게 되었을 것으로 짐작되기 때문이다. 또한 지식층 중에는 《회보》를 직접 보고 읽으면서 우리 나라에서도 잡지를 발간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 땅에서도 드디어 우리 손으로 처음 만들어진 잡지가 나오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회보》의 영향 때문이라고는 물론 단정할 수 없다. 하지만 《회보》가 최소한 하나의 자극제 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는 볼 수 있는데, 어쨌든 《회보》가 창간된 8개월 뒤인 1896년 11월 20일 우리 땅에서도 우리 나라 사람들에 의하여 최초로 《대조선독립협회회보》라는 잡지가 창간되었다. 그리고 이듬해 2월에는 우리말로 된 최초의 종교지(宗教誌)인 《조선그리스도인회보》가 창간되었고, 1900년대로 들어와서는 1905년 12월 우리 나라 최초의 학술지(學術誌)인 《수리학잡지》(數理學雜誌)가, 1906년 6월에는 최초의 교양지(敎養誌)인 《가뎡잡지》등이 출현하다가 1907년 2월에는 《야뢰》(夜雷)라는 종합지(綜合誌)까지 등장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잡지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었다.

둘째로, 《회보》는 또한 우리 나라 초창기 잡지들이 개화사상(開化思想)과 자주독립사상 등의 전파를 그 주요 기능으로 삼는 계몽적 잡지의 성격을 갖게 하는 데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앞서 살펴보았듯이 《회보》는 비록 우리 나라 일본유학생친목회의 기관지였지만 내용적으로 개화와 자주독립 사상의 고취에 주안점을 두었는데, 뒤를 이어 모국에서 나온 초창기의 잡

자들, 예컨대 《대조선독립협회회보》, 《조양보》(朝陽報), 《서우》(西友), 《호남학보》(湖南學報), 《대한자강회월보》(大韓自強會月報) 등도 거의 모두가 《회보》와 마찬가지로 개화와 자주독립 사상의 전파를 그 주요 기능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회보》의 영향 때문이라는 말은 아닌데, 왜냐하면 위와 같은 우리 나라 초창기 잡지들이 《회보》처럼 개화와 자주독립의 사상 등의 전파와 고취를 주요 기능으로 삼는 계몽지의 성격을 갖게 된 것은 《회보》의 영향 때문이라기 보다는 당시 우리 나라의 정세와 국가적, 사회적 필요성에 따른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보》가 최소한 그 방향을 선도하거나 본보기를 보여 주었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모국의 각종 애국 단체들도 개화와 자주독립사상 등의 고취와 전파 수단으로 하나로 잡지를 발간하게 됨으로써, 그 결과 우리 나라 초기의 잡지들은 거의 모두가 계몽적 성격을 띠면서 개화사상과 자주독립사상을 고취, 형성시키는 데 중요한 교량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2) 開化와 自主獨立思想의 傳播에 미친 影響

셋째로 《회보》는 그 자신이 일본의 우리 나라 유학생들뿐만 아니라 모국의 지식층과 젊은이들에게 당시의 세계 정세와 우리 나라 정세를 알려주면서 개화사상과 자주독립사상 등의 전파에도 중요한 구실을 했다. 앞서 말했듯이 《회보》는 특히 신지식(新知識)의 소개와 세계 정세에 관한 새로운 정보의 보급을 통하여 개화사상을 전파하기 위하여 외보와 민국사보에 가장 큰 비중을 두었는데, 예컨대 제4호의 경우를 보면 외보기사가 전체 본문기사들 중 건수로는 43.5%, 쪽수로는 30.3%를 차지해 수위(首位)를 점했으며, 이러한 외보들에다가 그와 성격이 비슷한 민국사보를 합치면, 선진외국에 관한 기사들이 전체 본문기사들 중 건수로는 53.1%, 쪽수로는 33.9%나 되었다. 또한 사실과 논설들도 거의 대부분이 선진 열강 제국(諸國)의 정세와 문명을 소개하면서 우리 나라도 속히 구태(舊態)와 구습(舊習)에서 벗어나서 문명개화를 이룩, 부강하고 자주적 국가를 만들자고 역설했다.

그리하여 일본의 유학생들은 물론, 모국의 많은 동포들도 선진외국의 형세와 정세를 알게 되면서, 우리 나라도 하루속히 문명개화한 자주독립국가를 이룩해야 되겠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인식을 모국의 많은 동포들도 갖게 된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독립신문》이 《회보》의 내용들을 상세히 소개함으로써, 비록 《회보》를 직접 읽지 못한 모국의 동포들도 《독립신문》을 통해 《회

보》의 내용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1897년 4월 8일자 《독립신문》의 ‘론설’을 보면, 제1면 전체를 할애, 《회보》 제4호의 내용을 아주 자세히 소개했는데, 당시 《독립신문》은 우리의 유일한 신문으로서 그 영향력이 대단히 컸음을 볼 때, 이러한 《독립신문》이 소개한 《회보》의 내용은 모국 동포들에게 개화사상과 자주독립사상을 형성하는 데 큰 자극이 되었다고 짐작된다. 그 결과 《회보》는 모국의 많은 동포들에게도 개화와 자주독립사상 등을 전파하고 고취하는 데 중요한 사상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3) 近代的 學問의 導入과 發達에 미친 影響

넷째로 《회보》가 모국에 미친 또 하나의 중요한 영향 내지 역할로는 새로운 근대적 학문을 소개, 우리 나라에서도 근대적 학문이 시작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우선 그 실례의 하나로 《회보》 제2호에 실려 있는 고희준(高義駿)의 “사물변천(事物變遷)의 연구에 대한 인류학적 방법”이라는 논설을 들 수 있겠다. 이는 우리 나라에 인류학적 방법론을 최초로 소개한 논문으로 생각되는데 1896년 당시에 벌써 인류학적 방법론을 소개했다는 것은 괄목할만한 일이며, 이는 당시 일본 유학생을 통하여 우리 나라에 서양의 새로운 학문이 어떻게 유입, 전파되었는가를 이해하는데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이처럼 《회보》는 창간 초부터 새로운 학문의 소개에도 노력했으며, 특히 제4호부터는 제1차적 목적을 “학문상 발달”에 두기로 결정하고 《회보》에 강연(講演)란을 신설하는 한편, 매회 통상회에서 회원들 중 몇 명씩 연구발표를 하도록 하여 그 내용을 강연란에 게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강연란을 제4호에는 미처 신설하지 못하고 제5호부터 설치, 이를 통하여 각종 새로운 학문들을 본격적으로 소개했는데, 그에 게재되어 있는 학술논문들을 보면 당시 우리 나라에서는 상상도 못 했을 새로운 개념이나 학설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으며, 또한 정치학·법학·군사학·경제학·심리학·물리학·지구과학·화학·의학 등 각종 학문 분야들을 망라하고 있다.

이와 같이 《회보》는 그에 강연란도 설치, 이를 통하여 새로운 근대적 학문을 소개함으로써 우리 나라도 새로운 근대적 학문을 도입, 발전시키는 데도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회보》는 일본유학생들의 학술적 지식의 교환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특히 제4호부터는 그 제1차적 발간목적은 학문 발달에 두고, 회원들의 동정을 알리는 것은 부차적 목적으로 삼음으로써 《회보》가 회원들의 동정을 주로 알리는 단순한 회보 내지 회지(會誌)에서 벗어나 일종의 학술지로 발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3. 앞으로 다른 研究의 필요성과 課題

비록 본고에서는 다만 《회보》의 발간실태만 살펴본 뒤 이들 《회보》가 특히 모국에 미친 몇 가지 주요 영향들만 추정해 보았을 뿐이나, 서두에서 말했듯이 우리나라 잡지언론의 생성기(生成期)인 1890~1910년대에 일본에 유학했던 우리 유학생들이 그곳에서 근대적 언론문물도 보고 배우면서 발간했던 《회보》를 비롯한 여러 가지 근대적 잡지들에 관한 연구는 우리 나라 근대언론의 생성·발전 과정을 규명하는 데도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 ‘잡지’라는 서양 언론문물이 어떻게 도입·생성되었으며, 그 수용과정에서 《회보》를 비롯하여 우리 나라 일본유학생들이 발간한 여러 가지 근대잡지들이 그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앞으로 이에 관한 더 많은 연구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중요 연구과제만 참고로 열거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로는 우선 《회보》의 뒤를 이어 우리 유학생들이 발간했던 여러 가지 잡지들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데, 1898년 《회보》의 종간 이후 1910년 한일합병 이전까지 창간한 잡지만도 《제국청년회월보》(帝國青年會月報, 창간연월일 미상), 《태극학보》(太極學報, 1906년 8월 24일 창간, 월간), 《공수학보》(共修學報, 1907년 1월, 계간), 《대한유학생회학보》(大韓留學生會學報, 1907년 3월 3일, 월간), 《동인학보》(同寅學報, 1907년 7월), 《낙동강친목회회보》(洛東江親睦會會報, 1907년 10월, 월간), 《대한학회월보》(大韓學會月報, 1908년 2월), 《상학계》(商學界, 1908년 10월), 《대한흥학보》(大韓興學報, 1908년 9월 25일, 월간) 등을 위시하여 모두 13종에 달했다. 따라서 이들 잡지도 모국에서 잡지의 생성·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연구해 보아야만 우리나라에서 ‘잡지’라는 언론문물의 수용과정에서 일본유학생들이 발간한 잡지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전체적으로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와 같은 잡지들에 관한 연구는 우리 동포들이 이국(異國) 땅에서 어떠한 언론 출판 활동을 전개했는지도 정리해 주며 우리 나라 언론사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로는 위와 같은 일본유학생들의 잡지가 모국에서 잡지의 생성·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한데, 본고에서는 다만 《회보》가 우리나라 잡지의 생성·발전에 미친 영향을 필자 나름대로 추정해 보았으나, 앞으로는 그 영향에 관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회보》를 비롯하여 일본유학생들이 발간한 각종 잡지들과 당시 모국에서 발간된 초기 잡지들인 《대조선독립협회회보》, 《조양보》, 《서우》, 《호남학보》, 《대한자강회월보》 등의 편집체재와 내용 등을 서로 비교해 과연 일본유학생들의 잡지가 모국의 초기 잡지들에 영향을 미쳤으며, 만약 영향을 미쳤는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좀더 정확하게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로는 또한 우리 나라 개화기이자 잡지의 생성기였던 1890~1910년대에 새로운 근대적 문물제도(文物制度)를 배우러 일본에 건너갔던 우리 유학생들과 특히 그 중에서 각종 잡지의 발간에 직접 참여했던 유학생들이 귀국 후 우리 나라 잡지의 생성·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당시 일본에 건너가서 그곳의 근대적 언론문물을 보고, 배워 온 유학생들도 우리 나라 잡지의 생성·발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1907년 일본유학생 출신의 젊은이들은 대한구락부(大韓俱樂部)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동년 4월 10일 《대한구락》(大韓俱樂部)이라는 잡지(월간, 국판, 발행인: 李斗淵)를 창간했는가 하면, 일본 유학 중에 《대한유학생회학보》의 편집인으로 활약했던 최남선(崔南善)은 귀국 후 1908년 11월 1일 《소년》(少年)을 창간했으며 1913년 1월에는 문예지 《붉은저고리》를, 11월에는 아동잡지 《셋별》을, 1914년 10월에는 《청춘》(青春)을 창간하는 등, 우리 나라 잡지의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 이러한 인물들의 영향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우리 나라에 ‘잡지’라는 언론문물이 어떻게 도입·생성되었는지 그 수용과정을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慶應義塾大學編(1910). 《慶應義塾五十年史》. 東京: 慶應義塾大學.
- 慶應義塾大學編(1960). 《慶應義塾百年史: 中卷前》. 東京: 慶應義塾大學.
- 金根洙(1973). <舊韓末雜誌概觀>. 永信아카데미韓國學研究所編, 《韓國雜誌概觀 및 號別日次集》. 서울: 永信아카데미韓國學研究所.
- 金道泰編(1948). 《徐載弼博士自叙傳》. 서울: 首善社.
- 木村誠外編(1995). 《朝鮮人物事典》. 東京: 大和書房.
- 白淳在(1972). <韓國雜誌發達史>. 韓國雜誌協會編, 《韓國雜誌總覽》. 서울: 韓國雜誌協會, pp. 41-93.
- 森田芳夫(1955). <在日朝鮮人處遇の推移と現状>. <法務研究> 제43집 제3호, pp. 1-11.
- 愼鏞夏(1975). <독립신문의 創刊과 그 啓蒙的 役割>. <韓國史論> 제2집, pp. 314-383.
- 李光麟(1979). <徐載弼의 《독립신문》 刊行에 대하여>. 《韓國開化思想研究》. 서울: 一潮閣, pp. 152-198.
- 李光麟(1974). 《韓國開化史研究》(改訂版). 서울: 一潮閣.
- 李光麟(1993). 《韓國史講座 V: 近代篇》. 서울: 一潮閣.
- 李海暢(1983). 《韓國新聞史研究》. 개정증보판. 서울: 成文閣.
- 車培根(1998). <大朝鮮人日本留學生 《親睦會會報》에 관한 研究: 그 創刊趣旨·經緯·內容을 중심으로>. <言論情報研究>(서울대언론정보연구소) 제35집, pp. 1-55.
- 崔承萬(1977). <海外留學生小史>. 《韓》 6권 4호, pp. 91-96.
- 筆者未詳(1914). <日本留學生史>. 《學之光》 제6호, pp. 10-17.
- 阿部洋(1976). <解放前韓國における日本留學: 第二部 解放前日本留學の史的展開過程とその特質>. 《韓》 5권 12호, pp. 20-73.
- 阿部洋(1974). <舊韓末の日本留學(I): 資料的 考察>. 《韓》 3권 5호, pp. 63-83.
- 玄圭煥(1976). 《韓國流移民史(下)》. 서울: 三和印刷株式會社出版部.
- Bishop. Isabella(1970). *Korean and Her Neighbors*. Reprinted edition.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 Mckenzie. Frederick A.(1969). *Korea's Fight for Freedom*. 2nd ed.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 《독립신문》 제1권 제1호(1896. 4. 17)부터 제3권 제280호(1898. 12. 28)까지.
- 《親睦會會報》 제1호(1896. 2. 15 발행), 제2호(1896. 6. 16 발행), 제3호(1896. 10. 23 발행), 제4호(1897. 3. 24 발행), 제5호(1897. 9. 26 발행), 제6호(1898. 4. 9 발행).

《學之光》 제1호(1914. 4. 2)부터 제29호(1930. 4. 5)까지.

《太極學報》 제1호(1906. 8. 24)부터 제20호(1908. 12. 24)까지.

《大韓留學生會學報》 제1호(1907. 3. 3)부터 제3호(1907. 5. 20)까지.

《大韓興學報》 제1호(1908. 9. 25)부터 제9호(1908. 11. 25)까지.